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Danuri Helpline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됩니다.

☎ 031-257-1841

제188호 2021년 01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93-0445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점점 늘어나는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 어떻게 돌볼까요?

▲김포시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포럼이 열렸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12월 18일 다양한 가족 등장에 따른 김포시 가족정책 방향, 김포시 가족정책포럼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38면> 송하성기자

2021년 다문화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한국의 교육제도 변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2021년도에는 한국의 교육제도에도 몇가지 변화가 이뤄진다. 외국인주민이 알아두어야 할 한국의 교육제도 변화를 살펴봤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부는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1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해 시행한다. 지난해까지는 2~3학년만 무상교육대상이었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단,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

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확대된

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돼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 대비 6000명이 늘어난다. 이처럼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하면 어린이들이 더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마음도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 48면, 베트남어 43면, 러시아어 15면, 태국어 34면>

김지연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5, 11, 13, 47, 48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6, 13, 43 일본어(Japanese) 日本語 5, 8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29, 31, 34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15, 17, 18, 25, 28, 35, 37, 39, 45 네팔어(Nepali) नेपाली 46 캄보디아어(Khmer) ខ្មែរ 14 영어(English) 20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8 생활정보 Information 20, 35, 41, 45, 46 코로나19 Covid-19 18, 43, 48 금융 Finance 31 도서관 Library 4, 34 비자출입국 Visa 5 인터뷰 Interview 9, 23 이주배경청소년 10 보건 Health 6, 15, 19 육아 Infant Care 39 행사 Event 7, 33, 36, 38 한국어 Korean 32 복지 Welfare 3, 8, 13, 24, 27, 29, 30, 37 교육 Education 1, 15, 34, 43, 48 환경 Environment 5, 11, 28, 36, 47 취업 Job 17, 33 기고 Column 22 문화 Culture 25, 47

2021년에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정책 5개 분야, 10대 정책

다문화가족도 관심 가질만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경기도가 2021년에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정책을 최근 5개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다.

아울러 10대 주요정책으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군소음 피해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혜택 확대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추진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꼽았다.

특히 10대 주요정책 가운데 6개 정책이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에 해당됐다. 이에 따라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도 관심을 가질만한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경기도의 경우, 주택가액 1억5,00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 면제, 주택가액 1억 5,000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일몰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도내 사업 시행 시군에 주민등록된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연 13만 8,000원(분기별 3만4,500원)으로,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등 15개 시·군의 11만 2,607명의 여성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

로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91)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2021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배달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12월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화성, 파주, 오산 3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1년에는 ▲1분기-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2분기-안양, 평택, 군포, 양주, 구리, 안성, 의왕, 여주, 연천 ▲3분기-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4분기-시흥, 동두천, 가평 등 24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서 가맹신청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앱 스토어(iOS), 플레이 스토어(AOS)에서 '배달특급'을 검색해 앱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2992)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위해 도민 참여 확대돼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박창순 위원장,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박창순 위원장)는 29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난 10월부터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을 지방자치 발전 및 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 정의하고 교육의 목표를 구체화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를 맡은 김성종 교수



(단국대학교)는 최종보고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민주시민을 위한 속

의민주주의 제고 ▲사회적 자본의 구축 ▲시민배심원제의 활성화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박창순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도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확대되어 지역 공동체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가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수원시청 1899-3300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57-8504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031-223-0075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031-247-1324
수원이주민센터 070-8671-3111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070-7523-3686 수원교육지원청 031-250-1335 수원여성의전화 031-232-7795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31-7864 범죄신고 112 수원서부경찰서 031-8012-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 요금 감면신청 했나요? 지금 신청~"

고양시, 1월까지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기간 운영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마련했다.

소득인 많지 않은 다문화가족들도 고양시의 이번 정책으로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요금감면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 대해 전화와 문자서비스, 우편물 등을 활용해 2021년 1월까지 홍보와 안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회복지급여를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해 미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요금감면 서비스는 요금 유형 및 복지대상자별로 혜택이 조금씩 다르다. 5개 요금에 대한 대상자별 요금감면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안내-요금감면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의 경우는, 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 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은 신분증, 요금 청구 고지서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행 정보지센터를 방문하면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각 사업기관에 직접 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는 각 요금감면 기관에 신청방법을 문의하여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미감면 복지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별 전화와 문자서비스, 우편 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등으로 취약계층 시민들이 최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미성년 자녀 최대 9개월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각종 명령 ▲직접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중 하나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최종 결정되면, 양육 중인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통번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 해당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지원
서비스 대상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서비스 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통번역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번역 ▶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 행정·사법 기관 이용 시 통번역 ▶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이용 시 통번역 ▶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통번역 ▶ 기타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 업무 등
서비스 유형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이용방법	내방, 전화, 이메일(goyangtmc@hanmail.net), 팩스, 출장(외부) ※ 사전예약 필수!

통번역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

- 무리한 서비스의 지속적 반복적인 요구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이민자의 통번역 요청
- 무료를 약속한 개인 및 업체의 요청
- 공중을 요구하는 기관 및 개인의 요청
-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통번역 요청

※ 법적 책임 및 공중(번역자 확인서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 불가

문의처
TEL : 031) 938-9801, 9805, 9806. FAX : 031)938-9803
http://goyangsi.liveinkorea.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27 정원빌딩(4층)

结婚移民者翻译服务

高阳市多元文化家庭中心为帮助解决结婚移民者在适应韩国社会及其家庭所需要的语言沟通问题, 向结婚移民者和多元文化家庭免费提供翻译服务。

服务语言	中国语, 越南语 ※ 对于相关地区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不支援的语言翻译情况, 多元文化家庭及直接间接支援多元文化家庭的个人或机构, 请咨询所属地区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提供翻译服务。
服务对象	▶ 针对入籍初期因家庭生活及国家之间的文化差异而引起的矛盾提供翻译咨询。 ▶ 协助结婚移民者的安居乐业及提供取得国籍·滞留等方面的相关信息等。 ▶ 提供怀孕·分娩·养育等生活信息及咨询内容翻译。 ▶ 对接受教育过程进行翻译支援。 ▶ 对访问行政·司法机关时的翻译服务。 ▶ 对访问医院·保健所·警察署·学校等公共机关时的翻译服务。 ▶ 对危机状况及紧急情况发生时的翻译服务。 ▶ 多元文化家庭和直接或间接支援多元文化家庭的机关及个人委托的翻译业务等。 口译, 笔译, 提供信息等。 ※ 出外服务须提前预约
服务内容	▶ 持续及反复提出不合理的翻译要求时 ▶ 有可能发生纠纷或需法律责任的内容及资料 ▶ 语言沟通上没有问题的结婚移民者提出翻译要求时 惠惠利用无偿服务而提出翻译要求的个人或团体
服务类型	※ 相关法律法规及要公证证明(包括翻译者确认书)不给与提供。
使用方法	来访, 电话, 电子邮件(goyangtmc@hanmail.net), 传真, 出差(外部)等。 ※ 出外服务须提前预约

咨询电话: TEL : 031) 938-9801, 9805, 9806. FAX : 031)938-9803 (10362) 京畿道高阳市-山东区大山路27院大厦(4楼) http://goyangsi.liveinkorea.kr

Dự án thông-번 dịch cho người kết hôn di trú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hành phố Goyang cung cấp dịch vụ thông-번 dịch miễn phí nhằm hỗ trợ giao tiếp ngôn ngữ cần thiết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cá nhân hoặc các cơ quan hỗ trợ trực tiếp - gián tiếp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Ngôn ngữ	tiếng Trung Quốc, tiếng Việt Nam ※ Nếu trực thuộc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không có hỗ trợ ngôn ngữ theo yêu cầu thì chúng tôi sẽ kết nối với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huộc khu vực lân cận.
Đối tượng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cá nhân hoặc các cơ quan hỗ trợ trực tiếp - gián tiếp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 Thông - 번 dịch tư vấn giai đoạn đầu nhập cảnh về sinh hoạt gia đình và sự khác nhau về văn hóa giữa các quốc gia. ▶ Thông - 번 dịch về việc hỗ trợ định cư cho người kết hôn di trú, cung cấp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quốc tịch, cư trú và hướng dẫn các dự án của trung tâm. ▶ Thông - 번 dịch về nội dung tư vấn và hướng dẫn các thông tin sinh hoạt như mang thai, sinh đẻ, nuôi dạy con, v.v. ▶ Hỗ trợ thông - 번 dịch các chương trình giáo dục. ▶ Hỗ trợ thông - 번 dịch khi sử dụng các cơ quan hành chính, tư pháp. ▶ Hỗ trợ thông - 번 dịch khi sử dụng các cơ quan công cộng như bệnh viện, trạm y tế, sở cảnh sát, trường học, v.v. ▶ Thông - 번 dịch hỗ trợ khẩn cấp khi gặp tình trạng nguy cấp. ▶ Hỗ trợ thông - 번 dịch cho cá nhân, cơ quan hỗ trợ trực tiếp - gián tiếp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Nội dung	Thông dịch, biên dịch, cung cấp thông tin, v.v. đến trung tâm, điện thoại, email(goyangtmc@hanmail.net), fax, công tác(bên ngoài) ※ Phải hẹn lịch trước!
Hình thức dịch vụ	▶ Hạn chế cung cấp dịch vụ thông - 번 dịch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sau - Yêu cầu quá đáng với hình thức liên tục, lặp đi lặp lại - Yêu cầu làm dụng dịch vụ miễn phí của cá nhân và công ty - Yêu cầu thông - 번 dịch mang tính tranh chấp hoặc chịu trách nhiệm pháp luật - Yêu cầu thông - 번 dịch cho người di trú không gặp khó khăn trong giao tiếp ngôn ngữ
Phương thức sử dụng	※ Không hỗ trợ các trường hợp yêu cầu chi trả trách nhiệm và mất pháp luật, công chứng, bảo hiểm cá nhân, xác nhận người biên dịch
Tư vấn	TEL : 031) 938-9801, 9805, 9806. FAX : 031)938-9803 Tầng 4 Jeongwon Building, 27 Daesan-ro,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http://goyangsi.liveinkorea.kr

이민자가 선정한 올해 고양시 우수의원

이민자통합센터, 고양시의원 3인에 감사패 수여



이민자통합센터에서는 이민자가 선정한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고양시의회 김덕심, 정봉식, 엄성은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의원은 중도입국 학생들과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활동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김덕심, 정봉식, 엄성은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중도입국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교육청 및 시청 관계자에게 민원 제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시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도 중도입국청소년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며 중도입국청소년 대안학교 문제, 학교생활 적응, 다문화가정 생활환경 등 여러 방면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고도 했다.

감사패를 수여받은 세 의원은 평소 중도청소년의 어려운 환경에 공감하고 이민자통합센터 김세영 센터장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성숙한 고양시민의 하나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꽃다발과 함께 감사패를 수여받은 의원들은 “처음 중도학생들을 위해 품었던 희망을 잃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나아지고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과 애정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연 기자

"다문화가족도 편리하게 이용해요"

어린이 전용 별꿈도서관과 일산도서관 개관



고양시(시장 이재준)에 18번째, 19번째 시립도서관이 연이어 개관했다.

지난 12월 24일 18번째 시립도서관인 별꿈도서관이 덕양구 동산동에 개관했다. 고양스타필드 인근 동산꽃마미 공원(삼송4호 근린공원) 내 자리 잡았으며, 어린이 전용 도서와 콘텐츠를 특화한 도서관으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10시~19시, 주말은 9시~18시까지다.

도서관은 일반열람실, 어린이열람실,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했다. 지역민은 물론, 스타필드 방문객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신세계프라퍼티에 따르면 이번 도서관 설립은 스타필드 고양 지역사회 파트너로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됐다.

스타필드 고양은 1000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 확장에 연이어 공공도서관까지 설립하며 상생 행보를 보이고 있다.

12월 29일에는 일산서구 일산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일산도서관이 개관했다. 벽과 열람실이 없는 2무(無) 도서관인 것이 특징이다. 공부방이 돼버린 열람실을 없애고 대신 자료실 안에 200여 개의 좌석을 확보해 독서공간을 충분히 마련했으며, 특히 2층은 북카페처럼 꾸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더했다.

일산역과 가까워 접근성도 좋다. 운영시간은 12월은 9시~18시, 2021년 1월부터는 9시~21시다. 단, 도서관의 운영일정 및 시간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2021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일정 알림

20. 12. 1. 법무부 이민통합과

2021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주관 기본소양평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21년도 법무부 주관 평가 일정 : 총 24회

차수	사전평가(10차)				중간평가(4차)			종합평가(10차)		
	신청기간	평가	결과발표	응시:그외 정원비율	신청기간	평가	결과발표	신청기간	평가	결과발표
1차	20.12.22(화) ~ 12.28.(월)	1. 9.(토)	1.22.(금)	2 : 8	1. 5.(화) ~ 1. 11.(월)	1.23.(토)	1.29.(금)	1.19.(화) ~ 1.25.(월)	2. 6.(토)	2.16.(화)
2차	2. 2.(화) ~ 2. 8.(월)	2.20.(토)	3. 5.(금)	7 : 3	4.27.(화) ~ 5. 3.(월)	5.15.(토)	5.24.(월)	2.16.(화) ~ 2.22.(월)	3. 6.(토)	3.12.(금)
3차	3. 3.(수) ~ 3. 9.(화)	3.20.(토)	4. 2.(금)	7 : 3	7.27.(화) ~ 8. 2.(월)	8.14.(토)	8.20.(금)	3.16.(화) ~ 3.22.(월)	4. 4.(일)	4. 9.(금)
4차	3.30.(화) ~ 4. 5.(월)	4.17.(토)	4.30.(금)	2 : 8	11.30.(화) ~ 12. 6.(월)	12.18.(토)	12.24.(금)	4.13.(화) ~ 4.19.(월)	5. 1.(토)	5.10.(월)
5차	5.11.(화) ~ 5.17.(월)	5.29.(토)	6.11.(금)	7 : 3				5.25.(화) ~ 5.31.(월)	6.12.(토)	6.18.(금)
6차	6. 8.(화) ~ 6.14.(월)	6.26.(토)	7. 9.(금)	7 : 3				6.22.(화) ~ 6.28.(월)	7.10.(토)	7.16.(금)
7차	7.20.(화) ~ 7.26.(월)	8. 7.(토)	8.20.(금)	2 : 8				8.17.(화) ~ 8.23.(월)	9. 4.(토)	9.10.(금)
8차	8.31.(화) ~ 9. 6.(월)	9.18.(토)	10. 6.(수)	7 : 3				9.10.(금) ~ 9.16.(목)	10. 2.(토)	10.8.(금)
9차	9.28.(화) ~ 10. 4.(월)	10.16.(토)	10.29.(금)	7 : 3				10.26.(화) ~ 11. 1.(월)	11.13.(토)	11.19.(금)
10차	11. 9.(화) ~ 11.15.(월)	11.27.(토)	12.10.(금)	5 : 5				11.23.(화) ~ 11.29.(월)	12.11.(토)	12.17.(금)

* 특정 제외동포(F-4, H-2, C-3-6)와 그 외 체류자격 소지자의 균형 있는 사전평가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신청 가능 정원 비율을 설정하고, 신청기간 마지막 날 접수 마감일 안 된 평가장은 비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게 함

2. 2021년도 학기 운영

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운영기간	1. 4. ~ 5. 2.	5. 3. ~ 8. 1. 5.	8. 1. 6. ~ 12. 1. 2.

※ 정규 3학기 원칙이나, 예산 및 수요에 따라 운영기관별로 운영기간을 달리하여 교육 과정 개설되므로 자세한 학사 일정은 관할 출민국 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문의

3. 참고사항

○ 평가 일정은 코로나19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I-KOREA & C
대한민국 사회통합지원센터

전 국민 누구나! 무료!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디지털 격차로 인한 일상 생활 속 불편을 경기도디지털배움터에서 해결하세요!

경기도 디지털배움터

교육생 모집

주소창에 경기도디지털배움터.kr을 검색하세요.

교육 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신청 방법 [http:// 경기도디지털배움터.kr](http://경기도디지털배움터.kr)

교육 문의 1800-0096

교육 과정 디지털 기초, 디지털 생활, 디지털 중급, 디지털 특별 등

교육 기간 2020.9.14 ~ 2021.1.31

교육 비용 전액 무료

주소창에 경기도디지털배움터.kr을 검색하세요.
(<http://경기도디지털배움터.kr>)

디지털 기초

- 스마트폰 완전 정복
- 나도 이제 사진작가
- 어디든 갈 수 있어요
- SNS 제대로 배우기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 왕초보 컴퓨터 배우기
- 키오스크(무인결제) 어렵지 않아요!

디지털 생활

- 내 손안의 비서 (메이킹/인화/주유 등 활용)
- 디지털 콘텐츠 만들기 (카드 뉴스 제작 등)
- 디지털로 일하기 (공유 도메인/문서 활용)
-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 코딩 시작하기
- 쉽게 배우는 문서작성법

디지털 중급

- 이미지 편집 도구 픽슬러와 함께하는 디자인 여행
- 온라인 쇼핑물 창업스쿨
- 한 번에 끝내는 데이터관리
- 한눈에 들어오는 발표자료
- 텍스트 코딩(파이썬)

디지털 특별

- 3D프린팅 기초와 실습
- 빅데이터와 AI의 이해
- 신나는 AR/VR 세상 속으로 (손쉽게 만드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

코로나 2.5단계 시에는 모든 교육이 비대면 온라인 양방향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短期滞留签证又可以网上延期了 단기체류비자, 온라인 연장 가능

“외국인주민, 하이코리아 hikorea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비자 연장하세요”

近期因为疫情再次爆发,外国人出入境业务也是需要预约或者网上办理。不预约直接去的话业务是不能办理的。短期签证的网上延期方法如下。

首先进入www.hikorea.com网站,然后点击左上角的三条线。

然后申请会员。已经申请完的伙伴可以直接登陆。

不懂韩语的朋友可以选择右上角的语言,里边有英文,中文,韩文三种语言。然后点击短期滞留的外国人。

之后按照内容填写。需要注意的是填写id的时候一定要确认是否重复,还有邮箱地址一定要填写,再一个就是填写名字的时候姓和名字中间要有空格。

加入会员后,需要进邮箱里确认认证信息,点击确认信息后,再次会出现hikorea首页。

重新登陆,选择以离境为目的的滞留延期

之后按内容填写,下面页面填写完成后,还要上传机票或者手写事由书,申请完成。

申请成功后,几个工作日内会有信息提醒你的签证是否通过。之前短期签证是一个月需要延期一次,这次是给两个月的延期哦。

祝愿大家都能顺利延期,疫情期间尽量避免外出,多多使用网络,再次希望大家都能安全健康的度过2020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다시 폭증하고 있어서 외국인 출입국 업무도 예약이나 인터넷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예약 없이 바로 출입국 사무소에 가게 되면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단기 비자의 온라인 연기 방법은 아래의 흐름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먼저 법무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com)에 접속하여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3개의 선을 클릭한다.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한다.(만약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오른쪽 상단 모퉁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언어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3개 나라 언어로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단기 체류 외국인 항목을 클릭한다. 그 후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아이디를 작성할 때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을 쓸 때 성과 이름 사이에 빈 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가입 후, 메일함에서 반드시 인증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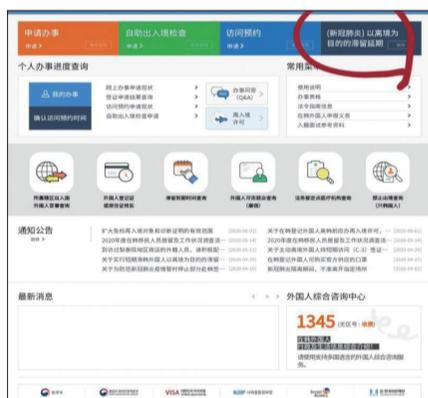
확인메시지를 클릭하면 하이코리아 첫 페이지가 다시 뜬다. 거기서 다시 등록해 출국 목적과 체류 기간 연기를 선택한다. 이후 해당 항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한 뒤 하단에 있는 페이지 작성 완료 후 항공권이나 사유서를 직접 작성하여 업로드하여 신청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며칠 이내에 당신의 비자연장 신청이 통과되었는지 알려주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기존에는 단기 비자소지자는 한 달에 한 번 씩 연장 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번에는 두 달에 한 번 신청하도록 조정되었다.

필자는 여러분이 모두 편리하게 자신의 비자를 연장 하길 바라며, 외출은 가급적 피하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안전하고 건강하게 2021년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원안 경기외국인SNS기자단



マスク、きちんと捨てなければ動物に被害を与える凶器に!

短時間の使用、汚れていなければ再使用可能...使用後はゴミ出し袋に

코로나19により外出時には必需品となったマスク。使い捨ての使用量が増えるにつれて環境汚染が心配される。マスクはどう再利用すればいいだろうか?マスクの正しい使い方、捨て方を調べてみた。

■ 汚れておらず、短時間使用したマスクは、本人に限って再使用可能

ほとんどのマスクは使い捨てだが、マスク再使用が状況と場所によって可能だ。汚染度が低い場所で一時的に使用した場合、本人に限って再使用できる。

マスクを再使用するためには換気が良い場所で乾燥させること。ドライヤーで乾かしたりアルコ

ール消毒、また洗濯しての再使用は良くない。

マスクを使ってから保管する時にも紐をもって、ジッパー袋などに入れておくのがいい。

■ 使用済マスクはすぐゴミ出し袋に入れて捨てること

マスクの使用量が増えるにつれてゴミの量も増えている。環境を守るために使用済マスクはどう捨てればいいのか?

まずマスクの外側の汚染物質が手につかないように、耳にかける紐を指でつまんで顔から外す。マスクを捨てる時には、紐を切ってしまうほうがいい。紐が切れなようならば、マスクを縦横に内側を中にしてたたんで紐を巻き付けて小さく

してから捨てること。

一番重要なのは不織布、綿など、材質と関係なくすべてゴミ出し袋に入れて捨てること。マスクの紐を切ってから捨てるのは、野生動物の脚にマスクの紐が絡まるなどの被害を防ぐためだが、ゴミ出し袋にきちんと捨てればそれも心配しなくてよい。

一度使用したマスクをちゃんと捨てなければ、環境を汚染するだけではなく、野生動物に被害を与えたり、他人を感染リスクにさらすことになる。しっかり覚えておこう。

<한글 기사 36면>

資料 : 京畿道庁

KHÔNG ĐEO KHẨU TRANG Ở ĐÂU, KHI NÀO THÌ SẼ BỊ PHẠT TIỀN ?

외국인주민 위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안내, 인증된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Như mọi người đã biết từ ngày 13 tháng 11 qua nhà nước Hàn Quốc đã áp dụng phạt tiền đối với những ai không đeo khẩu trang hoặc đeo không đúng cách, không đúng loại.

Dịch bệnh bùng phát tới nay đã được gần 1 năm, gần 1 năm trôi qua đã có nhiều thay đổi trong văn hóa giao tiếp cũng như là cho con người ta trở nên dễ kích động và dễ nổi nóng. trong đó không thể nhắc tới văn hóa đeo khẩu trang khi ra ngoài và những vụ bạo lực đánh lộn vì vấn đề này ở những nơi công cộng như tàu điện ngầm hay trên xe bus. Nhưng tới nay thì việc đeo khẩu trang không đơn giản chỉ là văn hóa mà nó còn là trách nhiệm và bắt kì ai vi phạm sẽ bị xử phạt nghiêm khắc.

Vậy mọi người đã biết việc đeo khẩu trang như thế nào, và không đeo khẩu trang khi nào ở đâu thì sẽ bị phạt chưa ạ?

Thứ nhất hình phạt sẽ được áp dụng với những ai không đeo khẩu trang, hoặc có đeo khẩu trang nhưng không che hết miệng và mũi, bên cạnh đó hình phạt còn được áp dụng với những ai đeo khẩu trang không đúng loại như khẩu trang dạng lưới hay khăn tay hay dùng áo để che chắn vv... Các loại khẩu trang được công nhận gồm có KF94, KF80, hay những loại khẩu trang có tác dụng chặn được bụi nước, khẩu trang vải, khẩu trang dùng 1 lần ...

Thứ 2 dựa theo cấp độ giãn cách xã hội để áp dụng cho việc đeo khẩu trang bắt buộc.

Đối với cấp độ 1 áp dụng với những khu vực trọng điểm như khi sử dụng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ông cộng, các cuộc hội họp hay tại khu vực biểu tình hay các khu vực quản lý thông thường (23 loại), khu vực y tế, viện dưỡng lão, khu vực chăm sóc bệnh nhân, khu vực tín ngưỡng, các khu vực thi đấu thể thao ở trong nhà, hay các khu vực kinh doanh được xem là khu vực dễ lây nhiễm bệnh, và các khu vực có tụ tập từ 500 người trở nên như hội họp, lễ hội [trung tâm,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일반관리시설 (23종),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몇 주야 간호시설, 종교 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 협의 된 500인 모임. 행사).

Trong đó khu vực quản lý thông thường (일반관리시설 23종) gồm có quán net, đám cưới, đám ma, trường dạy thêm, nhà tắm, rạp biểu diễn, rạp chiếu

phim, công viên giải trí, công viên nước, phòng chơi game, khu tập luyện trong nhà, quán làm tóc, siêu thị, cửa hàng bách hóa,, phòng đọc sách...

Và khu vực quản lý trọng điểm gồm có khu vui chơi giải trí club, quán hát, quán riệu, quán aq, quán cafe ...

Nói chung là những khu vực nói trên là những khu vực bắt buộc phải đeo khẩu trang khi tham gia. Có thể nói là mọi lúc mọi nơi ạ.

Đối với cấp độ 1,5 thì áp dụng đối với các địa điểm như cấp độ 1 và thêm vào đó là áp dụng với cả những khu vực sân thi đấu thể thao ngoài trời.

Đối với cấp độ 2 thì sẽ được áp dụng với tất cả các khu vực và các hoạt động ở trong nhà và các hoạt động được cho là nguy hiểm ngoài trời

Đối với cấp độ 2,5 và 3 thì việc đeo khẩu trang được áp dụng với tất những người tham gia hoạt động ở trong nhà và tất cả những người hoạt động ngoài trời mà không thể giữ khoảng cách nhiều hơn 2m với người khác.

Bên cạnh đó thì cũng có những trường hợp ngoại lệ với lệnh phạt khi không đeo khẩu trang này. Ví dụ như những người có chuẩn đoán của bác sĩ là sẽ gặp khó khăn về đường hô hấp khi đeo khẩu trang, người dưới 14 tuổi, Và khi đang ăn, đang bơi, hay đang điều trị bệnh, rửa mặt... Hay khi đang biểu diễn hay ngừng hoàn cảnh đặc biệt phải cho thấy mặt của mình, hay những trường hợp người tàn tật, thiếu năng trí tuệ gặp khó khăn khi 1 mình đeo khẩu trang... Những trường hợp như trên sẽ không áp dụng lệnh phạt.

Dù là thế nào đi chăng nữa thì việc đeo khẩu trang là để bảo vệ sức khỏe cho mình và cho mọi người nên không có lí do gì mà chúng ta lại không đeo khẩu trang đúng không ạ?

Qua bài iết này mong sẽ giúp mọi người tìm hiểu thêm về lệnh đeo khẩu trang tại Hàn Quốc trong mùa dịch và chúc mọi người sức khỏe thật nhiều.

외국인주민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11월 13일부터 한국 정부는 마스크 미착용이나 부적절한 마스크 착용에 대해 벌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생긴지 1년이 지나 소통 문화가 바뀌면서 공공장소에서 말다툼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

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싸움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은 문화가 아닌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위반하는 사람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과 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건이나 투명마스크 등 재질이 부적절한 것을 착용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옷을 마스크대신 사용하는 것도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인증된 마스크는 KF94, KF80, 물과 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마스크, 1회용 마스크 등 입니다.

둘째,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공공장소, 미팅장소, 시위장소나 일반관리시설 23종, 의료기관, 요양원, 환자관리 구역, 종교구역, 실내 운동시합장 등은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로 판단됩니다.

일반 관리시설 23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목욕탕, 공연장, 극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마트, 백화점, 독서방 등이 있습니다.

중점 관리 장소는 클럽, 노래방, 술집, 식당, 카페 등이 있습니다. 결론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시간 및 장소 무관입니다.

거리두기 1.5단계 경우는 1단계에서 적용된 대상 외에 실외 운동장이 추가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실내 및 실외 범위에 속한 모든 구역 및 실외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활동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거리두기 2.5 및 3단계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실외 및 실내 모두에서 의무입니다. 마스크 착용 중에도 사람거리는 최소 2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벌금 부과에서 예외인 경우를 살펴 볼까요. 의사 진단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하거나 14살 이하인 어린이. 식사 중이거나 수영 중 또는 병을 치료 받는 중이거나 세수 중에도 마스크 착용이 면제됩니다. 공연 중이거나 특별한 이유로 얼굴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스스로 못 하는 경우도 벌금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의 건강을 지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민소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고양시청 031-909-90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38-9801 고양이민자통합센터 031-970-3000 누리다문화학교 031-919-4025 (사)밝은미래
경기도지부 031-925-0400 고양교육지원청 031-900-2800 고양파주여성민우회 031-907-1003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12-8555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20-3937 범죄신고 112 고양경찰서 031-974-4311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재 미래



고양 이민자통합센터서 코로나 극복 경기8거점 언택트 성과공유회 및 세미나 개최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어려워지면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 및 기본소양평가 일정도 바뀌면서 기관과 강사, 참여자들의 혼란과 온라인 시스템 환경의 미비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12월 21일 고양이민자통합센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경기8거점 성과공유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거리 상관없이 희망지역 참여, 이수율 증가

이날 세미나에서 성과발표에 나선 경기8거점 전담인력인 박유정 국장은 2020년 진행된 온라인 화상교육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장점을 살린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 화상교육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 및 강사와 참여자의 만족도 증가, 평일 낮 수업참여가 힘들었던 평일 야간, 주말 야간 참여자들의 증가 및 이수율 증가 등을 꼽았다.

반면 코로나 19로 1학기 예정됐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2학기로 연기되면서 기관 및 강사, 참여자들의 혼란이 있었고 포기자까지 생겨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강사들이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점과 온라인 시스템 환경을 준비하지 못해 운영기관들의 어려움이 발생한 점, 참여자 역시 수업 참여공간을 마련하지 못하

거나 온라인 웹엑스에 익숙하지 않아 수업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박 국장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시간이 갈수록 참여자들과 강사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며 만족도 평가 결과 참여자의 95%, 강사들의 8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경기8거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고양시 이민자통합센터,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승리다문화비전센터, 고양시다문화청년네트워크 4개 기관과 파주시 한국다문화복지협회, 파주한마음교육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921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2019년(1,503명)보다 감소한 수치다.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시스템 필요

'사회통합프로그램 미래 발전 방향' 주제발표자로 나선 경기8거점 이민자통합센터 김세영 센터장은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실시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코로나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면 법무부와 각 지역 거점 및 운영기관은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법무부의 역할로는 오프라인 수업 외 온라인 수업의 비중을 높일 것과 '기본소양평가 온라인 실시, 이민자들의 접근이 쉬운 사회통합정보망 시스템 개선, 체계

적인 감염병 상황 대응 지침 및 오프라인과 온라인 운영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 및 배포를 요구했다.

김 센터장은 "감염병이 줄어들다 해도 참여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교통이 좋지 못한 곳에 거주하거나 임신, 육아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민자 및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이민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기관과 강사의 역할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이 모두 가능하도록 운영방법을 마련할 것과 전담인력과 강사들이 보수교육 및 모니터링,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위한 교육과 예산지원, 정보공유 강화 및 지역네트워크 강화,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참여 등을 꼽았다. 참여자의 역할로는 수업을 위한 자세 준비 및 사회통합의 복잡한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 등을 들었다.

김 센터장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이민자 취업 교육이나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사업 등도 진행해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운영기관을 예산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거점센터에서 일괄적인 지침과 매뉴얼 필요

토론자로 나선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순일 센터장은 "강사교육 등은 법무부 거점센터에서 일괄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며 "교재연구가 필요하며 웹엑스 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건강상태질문서 등 필요한 자료를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해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고양시다문화청년네트워크 김지민 대표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강사 입장에서의 장점으로 수업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코로나로 인한 격정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며 녹화기능을 활용한 셀프 피드백이 가능한 점을 들었다.

반면 수업의 전달력 감소, 불안정한 온라인 수업환경, 학생들의 수준 저하 및 합격률 감소, 보안의 취약성을 단점으로 들었다.

김 대표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학생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강사 개인의 책임감 및 보안성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비대면 상황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의 얼굴이 운영기관과 출입국, 법무부의 얼굴이 된다"고 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인 우즈베키스탄 이민자 주흐라씨는 "2020년 온라인 수업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질문하기 어려우며 친구들과 사귀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코로나가 빨리 끝나 친구들과 만나고 싶고 야외수업, 외부모임 등도 자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정책 확산, 안산시 '마중물' 역할

2021년부터 안산시 포함 경기도 7개 시군, 유아학비 지원 시범사업

안산시 출산가정 현금지원 현황(1인당)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가정양육수당 수령시 합계	2천20만원	2천220만원	3천239만원	3천839만원	5천639만원
영유아보육료 수령시 합계	4천535만원	4천735만원	5천754만원	6천354만원	8천154만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1천645만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경기도 지역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선7기 공약인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내·외국인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으며, 안산시만의 선도적인 정책이 다시 한번 인정받으며 다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안산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안산시를 포함해 경기도 내 7개 지자체(안양, 과천, 부천, 시흥, 연천, 포천)를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성준모 경기도의원(안산 5)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1인당 7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사례처럼 이번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도 안산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 것이다. 안산시가 추진하는 선도적인 복지정책이 또 한 번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안산시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1월부터 추진했다.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만 3~5세) 가운데 사립 유치원생에게는 매달 24만원, 공립유치원생에게는 매달 6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사업으로 언어장벽에 상대적으로 경제기반도 취약한 외국인 가정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안산시는 도교육청의 시범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에 예산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하나,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유아학비는 안산시에 3개월 이상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원아가 입학하는 유치원에서 출석부 사본 등을 시에 제출하면 유치원으로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올해 270명의 외국인 아동에게 유아학비로 5억 원을 지원했다"라며 "그동안 안산시가 펼쳐온 선도적인 정책들처럼 이번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정책도 전국으로 점차 확대돼 국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는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 1회로 간편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외교부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 재발급을 위해 신청과 수령 등 두 차례 시청 민원실을 방문했던 횟수가 한 차례로 줄어들어 방문의 번거로움을 크게 덜었다.

다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은 기존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성인에 한정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 미필자 등은 여권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http://www.gov.kr>)에 접속해 여권 사진 업로드 후 수수료를 내면 되고, 재발급 신청 후 일주일 후 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에서 방문 받으면 된다. 단, 업로드한 사진이 여권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정부24'사이트에서는 여권 발급상태 조회, 여권 분실신고 등 10여종의 여권 관련 간편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청 민원실(031-481-213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政府、小商工人と特殊雇用職労働者に3次災難支援金支給

다문화가족 복지정보, 정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政府は1月から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코로나19) 3차 확산による被害を受けている小商工人などに、最大300万ウォンの3차 緊急災難支援金を支給する。今回の災難支援金はカフェ、カラオケなど、코로나19被害小商工人をはじめとして、タクシー運転手、ケア・サービス従事者など、特殊雇用職とフリーレンサーなどが支援対象に含まれる。

政府は12月29日、政府廳舎にて '코로나19・3차 擴散對應被害支援對策' に関連するブリーフィングを開き、對策を發表した。多文化家族にも一部該当するであろう3차 災難支援金についてまとめてみた。

まず政府はカラオケ、學院(塾)など、集合禁止業種小商工人に最大300万ウォンを支給する。食堂とカフェ、美容業など、集合制限業種とその他の一般業種には各200万ウォン、100万ウォンが支給される。支援対象は防疫指針上、集合禁止・制限業種に

分類されている小商工人で、前年対比の売り上げが減少した、年売り上げ4億ウォン以下の小商工人280万人だ。今回の3차 災難支援には個人タクシー16万人と遊興業所3万ヶ所も支援対象に含まれる。

集合禁止業種小商工人には1.9%の金利で貸借料の貸出も支援する。貸出限度は1000万ウォン。集合制限業種には2~4%台金利の融資資金が供給される。

一人当たり50万~100万ウォンの支援金が支給される、特殊雇用職とフリーレンサーのための緊急雇用安定支援金も支給される。特殊雇用職は學習誌教師、學院講師、放課後教師、訪問販賣員、保險設計士、通譯家など、多文化家族の多くが働いている業種が該当する。訪問・ケア・サービス従事者9万人にも生計支援金50万ウォンが支援される。法人タクシー運転手8万人には所得安定資金50万ウォンが支給される。すでに廢業した小商工人には廢業店舗再挑

戰獎勵金50万ウォンを支給し、最大1000万ウォンの再創業 事業化資金も支援する。また政府は中位所得75%以下の低所得層に支給する月127万ウォンの緊急福祉支援金も、來年1分期まで延長して支給するとした。3차 災難支援金は1月6日対象者に直接文字メッセージを發送後、オンライン申請を受付け、11日から支給する。一方、イ・ジェミョン京畿道知事は3차 緊急災難支援金を、消滅性地域貨幣として支給することを政府に訴えた。

イ知事は、"京畿道はすべての道民への地域貨幣支援方案を検討中にあるが、財政上難しく悩んでいる"とし、政府が國民經濟回生のための經濟政策として現金ではなく、消滅性の地域貨幣を全國民に支給するならば、小商工人の売り上げも上がり、韓國經濟が回復すると指摘した。 <한글 기사 30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한국의 고된 노동 속에서 피어난 네팔의 노동문학이죠"

인터뷰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 번역한 이기주 씨와 모헌 까르끼 씨

-무나(네팔 이름으로 '새순'이라는 뜻/이기주)를 처음 본 것은 지인의 결혼식이었다. 한국 사람이 네팔어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고, 아름다운 목소리에 반했다. 네팔이 너무 좋아 여행 왔다가 놀러살게 된 무나는 낯설고 열악한 생활환경에도 "전생에 네팔인이었나 싶을 정도로 영혼을 잡아당기는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네팔 문학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도 좋았다. 한국어 선생님인 무나를 네팔 학생들도 좋아했다. 무나와 함께한 시간은 술한 인연들로 얽히고설켜며 부부의 연으로 단단하게 이어졌다. (모헌이 전하는 '무나' 이야기)

-네팔에서 크고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면 모헌은 언제나 손길을 내밀었다. '저렇게 친절할 사람이 다 있나?' 생각했다.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그의 모습에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네팔에서 10여 년을 살았다. 부부로 살 때도 모헌은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했다. 한국에 와서도 늦은 퇴근 후 저녁밥도 미뤄둔 채 친구의 부탁을 먼저 처리하는 모습이 때론 나를 속상하게 한다.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해 라디오, 신문 등에 기고를 많이 한 모헌은 네팔인 작가이자 번역가다. (무나가 전하는 '모헌' 이야기)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시만으로 묶인 첫 시집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가 발간됐다. 69편의 시를 쓴 35명의 시인은 모두 네팔 출신 노동자로, 한국-네팔인 부부인 이기주,모헌 까르끼가 번역을 맡았다.

시집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다. 2017년 한국과 네팔의 문인들은 양국을 서로 방문하며 문학·학술대회를 열었다. 명지대에서 열린 국제문학인대회에 네팔에서 이름 있는 시인인 스러원이 방문했고, 그 소식을 들은 한국에 있는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만남을 요청했다.

"행사가 늦은 시간에 끝났는데 동대문에 모여있다는 연락이 와서 가보니 그곳에 모인 분들이 한국에서 문학을 매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시를 쓰는 분들이었죠. 즉석에서 시 낭송회를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책으로 출판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이기주)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과 문학, 예술로 교류하며 후원해 온 정대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총장대행의 지원과 시 모임 중 하나인 '잇떨 아와즈'에 참여하고 있는 빠라짓 뽀무가 중간역할을 했다. 빠라짓 뽀무는 네팔 이주노동자 시 모임들과 에스엔에스(SNS) 대화방으로 소통하며 시를 모았다. 시를 모으기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렸고, 올 2월 중순부터 학술대회 통역을 맡았던 이기주에게 메일로 전달됐다.

"작가들의 감정, 정서까지 담고 싶었어요"

네팔은 100개 넘는 종족이 각자의 언어를 가진 국가다. 시는 공용어인 네팔어로 쓰였지만, 번역은 '머리가 깨질 만큼' 힘든 작업이었다. 시인들이 속한 종족어가 섞여 번역에 애를 먹기도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름 만큼 난해한 작품들을 만날 때면 후회가 밀려왔다.



"시에 쓰인 단어와 표현은 그 나라의 문화, 역사를 비롯해 모든 배경을 내포하고 있어요. 단락이나 행간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느껴지는 작가들의 감정이나 정서를 번역하는 데 중점을 두었죠. 수없이 소리 내 읽으며 같은 단어라도 시어나 운율에서 느껴지는 맛이 다른 부분들까지 신경 썼지요."

이기주는 "모헌은 '단어 하나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만, 작가들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단어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챙기는 등 한국어의 문맥에 맞도록 작업하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모헌이 뜻의 이해를 돕고 맥락을 풀어주는 네팔어 사전 역할을 했지만, 서로 이견이 생길 때면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번역을 끝낸 후에도 '과연 이 시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부끄러움이 앞섰다. 하지만 번역 과정이 너무 힘들어 원고를 넘길 때는 아쉬움보다 시원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시 번역은 의역할 수밖에 없기에 내가 그분들이 표현한 것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나? 다른 것을 담아내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많아 때론 안을 갈라서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넘기고 나서는 걱정도 됐는데, 첫 독자인 정대기 선생님이 '소리 내서 읽어봤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고 눈물이 났다'고 전화해 주셔서 안도했죠."

이기주는 "번역은 제2의 창작물이라 생각한다. 시 번역은 매 순간 영혼을 녹여낼 만큼 힘든 작업이기도 하지만 그 시에 딱 맞는 시어나 문장을 찾아냈을 때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낀다. 한때 시인을 꿈꾸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다시 쓰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서 꿈틀대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란 틀에 가려진 내면 들여다봤으면"

"한 줌의 숨을 담보 삼아/한 뼉의 땅을 담보 삼아/죽음의 계약서에 서명하고/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고향을 떠나 사람을 사고파는 도시에서/전쟁에 이기려고 용감한 군인이 되어/삶이 전쟁터에서/ 페인트를 칠하고/전선을 당기면서/용접을 하고/연마를 하면서/ 나는 배를 만들고 있다"(수레싱 썸바향페이 '나는 배를 만들고 있다' 중)

"친구야,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여기는 재스민과 천 일홍들이 애정을 뿌리며 웃지 않는다/새들도 평화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여기는 사람들이/ 기계의 거친 소음과 함께 깨어난다/하루 종일 기계와 함께 기계의 속

도로 움직인다"(서로즈 서르버하라 '기계' 중)

이기주, 모헌은 시집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길 바란다.

"이번 시집을 번역하며 노동이라는 고된 시간 속에서도 문학을 매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창작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몇십 년 전 우리의 노동문학이 떠올랐어요. 네팔의 노동문학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집으로 한국사회가 바라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이기주)

"열악한 인권, 고된 노동 등 이주노동자란 틀에 갇혀 가려진 그들의 영혼과 내면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모헌)

"눈부신 발전을 해도 가난과 결핍은/ 어디에나 넘쳐난다/길거리에도 사거리에도 골목 구석구석에도/하어/할머니의 구루마는/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수스마 라나허마 '할머니의 구루마' 중)

<상록수> 번역해 2021년 네팔에서 출간하고 싶어"

이기주,모헌의 마음이 독자들에게 닿았는지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는 출간과 함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시집에 힘입어 2021년에는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소설을 모아 번역, 출판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몇 해 전에 제안받고 시작한 소설 〈상록수〉 번역도 2021년에는 마무리하여 네팔에서 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은 김선향 시인의 작품을 번역하고 있다.

인터뷰 말미 모헌은 "2003년부터 몇 년간 한국에서 살 때 한국 작가들과 함께 한국 동화와 동시를 번역했는데 그때는 한국어를 잘 몰라도 열정 하나로 해냈던 것 같다. 한국의 문학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안양에서 배울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만난 선생님과 공지영 작가의 작품 번역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해 마음에 걸린다"라며 "한국에 와서 다시 연락했지만 안 됐다. 그분이 혹시라도 기사를 보신다면 연락 달라"고 했다. <오마이뉴스 동시계제>

@모헌 까르끼

네팔의 중학교 교사를 거쳐 수년간 NGO 활동을 하다 2003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한국에서 일하며 동화와 동시 등 한국의 문학작품을 번역했고, 귀국 후에는 출판사를 운영하며 한국의 전래동화 등 다수를 번역 출판했다. 현재 한국에서 창작 활동을 하며 안산시 계간지인 〈안산하모니〉 네팔어 번역을 하고 있다.

@이기주

한국에 온 네팔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네팔과 인연을 맺었다. 네팔 여행 후 코이카(KOICA) 봉사단으로 과건돼 네팔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 임기 후에는 네팔EPS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다문화센터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며 통역 및 문학작품 번역을 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성과 거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활기찬 '2021년'

창립 11주년 기념행사, 월드비전 파트너십 시상식, 꿈빛학교 수료식, 한국어 수료식 등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이승미)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을 함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약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창립 11주년 기념행사 및 사업 최종평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창립 11주년을 맞아 지난 12월 17일 11주년 기념행사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업 최종평가를 진행했다(사진1과 2)

센터는 사업 최종평가를 통해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센터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 초 계획한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며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을 잘 활용하여 차질없이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주년을 맞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위해 유관 기관, 센터 이용자 등 많은 이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 센터를 응원했다. 센터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되겠다”라며 새로운 2021년을 기대했다.

#꿈꾸는 아이들, 월드비전 파트너십 시상식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지난 12월 16일 월드비전 경기서부지역본부에서 ‘2020년 월드비전 파트너십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3)

이날 시상식에서 센터는 ‘꿈꾸는 아이들’ 사업을 통해 ‘꿈나눔파트너십상’을 수상하게 됐다. 센터는 2014년 ‘꿈

꾸는 아이들’ 1기 아동 11명과 시작해 현재는 ‘꿈꾸는 아이들’ 2기 10명의 아동과 2019년부터 함께 하고 있다.

‘꿈꾸는 아이들’은 아동이 다양한 경험과 기회 제공을 통해 불평등을 넘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 사업이다.

센터는 “꿈도 자신의 형편에 맞춰야 하는 현실,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꿈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아동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특별한 여정에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 대안학교 ‘꿈빛학교’ 수료식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지난 12월 4일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꿈빛학교’ 수료식을 진행했다(사진4)

이날 수료식에서는 그동안 꿈빛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작업한 미술작품 전시회와 연극수업 시간에 촬영한 영상을 함께 보며 2020년을 정리하고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년 동안 고생한 학생들에게 축하와 함께 열심히 학교에 나와 공부해준 학생들을 위한 수료증 및 상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센터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해 준 21명의 학생 모두 너무 고맙다. 꿈빛학교 학생들의 길이 꽃길만 가득하길,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녕! 한국어 학교’ 수료식 진행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지난 12월 4일 ‘안녕! 한국어 학교’ 수료식을 진행했다(사진5와 6)

이날 수료식에서는 1년 동안 함께한 교사, 친구들과의 이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안녕! 학교’ 학생들을 위한 이승미 센터장의 따뜻한 축사로 시작했다.

수료식에서는 1년간 한국어수업, 문화체험 활동, 일상들을 담은 짧은 동영상 시청 후 수료증과 함께 아이들의 강점을 칭찬하는 상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수업을 들으며 준비한 예비학교 학생들의 학력인증서도 함께 수여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계획된 만큼 활동할 수 없었지만, 오프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며 성실하게 안녕! 학교 과정을 마친 친구들의 미래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Blooming Mate’ 바리스타 2급 취득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진로진학 인터넷으로 지난 11월 10일 바리스타 2급 취득 과정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생 3명은 총 7번의 교육을 통하여 12월 1일 바리스타 2급을 취득했다.

자격증 취득 후 학생들은 “어려웠는데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 행복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为了清理西海海域,“京畿清净号”开始了首航 서해바다 청소하는 ‘경기 청정호’

‘인류는 자연과 공존’ 외국인주민도 시민의식 갖고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 보전 노력해야

据YTN新闻报道消息,12月22日京畿道为清理被污染的海洋而举行的“京畿清净号”首次航行仪式在华城市前谷港举行。

京畿道知事李在明、华城市长徐哲模、安山市长尹华燮和京畿道议长张贤国等一同出席。

京畿清净号为长33米、宽9米的140吨级大轮船。它配备了挖掘机和打捞架并安装了起重机、作业艇及声波探测仪、无人机等。预计每年将收集沉入海底的废弃渔具、渔网、浮游垃圾等200吨左右的海洋垃圾。

京畿道知事李在明在贺词中说到当前海洋污染问题日益严重的现实。同时祝贺京畿道在这样的情况下,为清理西海垃圾建造“京畿清净号”并终于能够成功出海。他在贺词中还说:“该项目是前韩国党议员李镇福两年前在京畿道国政监查中提议的内容。

我认为政策是没有版权,在改善道民的生活问题上是不分执政党和在野党。只要有利于国家发展及改善国民生活的政策就应该提出合理方案共同研讨对策。

通过相互间的合理竞争来共同发展国家并共同改善岛民和国民的生活。”京畿道议长张贤国也在贺词中提到1997年在北太平洋首次发现地图上也不存在的“太平洋垃圾岛”的问题。并表示:“真心祝贺为净化京畿岛大海,京畿清净号成功出港。”

笔者听到这个消息后觉得,京畿道

继完成针对溪谷整备工程之后,现在又开始进行大海清扫工作,为保护大自然积极行动。人类应该与自然共存。如果在人类社会的发展过程中不能保护自然环境的生态系统,反而破坏自然环境,那么像现在流行的“新冠肺炎”传染病等严重现象今后还会继续。因此,笔者认为此次的“京畿清净号”首航仪式具有更加重要的意义。前京畿道

目前,京畿道是外国人最多的生活圈。若在韩国生活,那就不分你是外国人还是韩国人都应该有保护自然维持自然生态环境的义务。

正如京畿道知事李在明在贺词中所说的“在国家发展和改善国民生活方面没有执政党和在野党之分,在保护自然环境方面,是不存在本国人与外国人之分。因此,我们外国人也必须具备成熟的市民意识,应该积极参与与自然环境保护。

作为生活在韩国的外国人,我们应该也要自觉遵守关于保护自然生态环境的各项法规和方针。如果我们每一个人都能做到从我做起,积极参与并开始实践“减少垃圾”等活动,那么京畿道以及整个大韩国将成为我们向往的清洁而美好国家。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22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오염된 바다를 치우기 위한 경기청정호 첫 출항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윤화섭 안산시

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서철모 화성시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장현국 경기도 의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참석했다. 경기청정호는 길이 33m, 폭 9m의 140t급 기선이다.

굴착기와 인양대를 갖추고 크레인과 작업정 및 음파탐지기, 드론 등을 장착했다.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폐어구, 그물, 부유물 쓰레기 등 연간 200t가량의 해양 쓰레기가 수거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축사에서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해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경기청정호를 건조해 출항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

이재명지사는 축사에서 “이 프로젝트는 이진복 전 한국당 의원이 2년 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정책은 저작권이 없고, 도민 생활 개선을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함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상호 합리적 경쟁을 통해 함께 나라를 발전시키고 도민들과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국 경기도 의장도 축사에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쓰레기는 정말 심각하다. 그것이 결국은 인간에 되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경기 청정호의 취항은 의미가 있다”면서 “경기도의회도 깨끗한 바다를 지켜내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통해 필자는 경기도에서

계속 준비에 이어 또 한번 바다정소를 위해 적극 행동하고 있고 자연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인류는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 만약 인류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생태계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파괴한다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팬데믹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경기청정호’ 첫 출항식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한국에 살고 있다면 외국인인든 한국인인든 상관없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축사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생활 개선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듯이, 자연환경 보호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때문에 우리 외국인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자연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우리도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각종 법규와 지침을 스스로 잘 지켜야 한다. 나부터 ‘쓰레기 줄이기’ 같은 작은 노력부터 앞장서 실천하게 된다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가 원하는 청정하고 아름다운 살기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영애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민선7기 안산시, 시민 모두의 삶 빛나는 생생도시로 한번 더 도약한다

다문화마을특구에 국제문화센터 건립, '상호문화도시' 발전전략도 본격 수립



민선7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실현을 위해 시민과의 약속을 이어간다.

안산시는 2021년 주요정책 사업을 '안심(安心)', '생동(生動)', '소통(疏通)' 등 3대 가치를 바탕으로 한 6대 분야로 추진한다. 6대 분야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생명·안전 ▲즐거움과 설렘의 문화·체육·관광 ▲자연과 함께 숨쉬는 친환경 청정(안산형 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경제 ▲다양성이 공존하는 참여·소통 ▲공간과 마음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 도시를 위한 목표로 마련됐다.

안산시는 확산세가 여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에도 힘을 모으며, '2030 안산비전'인 '다함께 생생안산'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다.

2021년도 주요정책 사업과 올 한해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를 소개한다.

새로운 시대로 재도약하는 2021년

민선7기 안산시의 2021년 시정운영방향은 '모두의 삶이 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라는 비전으로 함축된다. 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뒤로 하고,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서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금보다 더욱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성폭력제로 시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미 스웨덴 소재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에 국문 신청서를 제출한 시는 2021년 중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 가해자 출소로 불거진 시민 불안감 해소를 넘어,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성폭력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요구된 감염병 대

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방역 전문가 양성 및 감염병 관리센터 운영을 보다 확대해 나가며 시민의 건강 안전망도 한껏 끌어올린다.

민선7기 안산시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아가며, 2021년에도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및 출산장려를 적극 이어간다. 아동도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러브맘카페'를 3호점까지 늘리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한다.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안산시를 위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은 신청 편의를 높여 이어가며,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는 기본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안산화폐 다온으로 연 13만8천 원을 지급한다. 주민친화형 노인복지시설도 5개소 확충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김홍도의 도시' 안산으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시는 조선 천재화가 김홍도를 안산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로 구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관광·축제·체육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한다. 이를 위한 전담부서도 조직된다.

다문화마을특구에 건립되는 국제문화센터 건립의 기틀을 닦는 한편, 이국적인 맛을 자랑하는 세계음식거리의 명소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내 최초로 지정된 '상호문화도시'를 활용한 중장기 발전전략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안산의 자랑 대부분은 '빛과 바다가 생생한 체험관광 섬'으로 거듭난다. 관광필수코스가 될 해상케이블카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안산9경(景) 중 1곳인 동주염전 체험장도 조성되며 과거 시화호 뱃길을 복원한 안산천 하구~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 사이에는 친환경 유람선이 운행되며 또 다른 추억을 제공한다.

시민중심의 교통체계를 위해 도입한 도심 순환버스는 올해 남부권을 시작으로, 2021년 ▲맑은-Green(서부권) ▲예술-Orange(동부권) 등 2개 노선도 운행할 예정이다. 순환버스는 전철역 중심으로 순환하며 안산시 전역을 역세권화하며, 시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무상교통'도 2021년 초부터 실현된다. 수도권 첫 무상버스는 어르신의 교통편의를 높이며 삶의 질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추진된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2021년부터 본격도에 오른다. 수소경제를

선도하며 명품 수소도시 조성에 핵심이 될 사업은 '안산형 그린뉴딜'의 핵심이 된다. 하루 1.5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부터 이송·활용까지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시는 수소복합 모빌리티 인프라도 추진한다. 안산시 1호 수소충전소가 2021년 3월 들어서 하루 최소 250kg의 수소를 공급하며, 수소연료전지차 100대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로 지정된 대부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안산 스마트허브 내 기업에 태양광에너지 발전 시설 보급도 확대한다. 시화호 수변도로에는 태양광 그늘막도 설치된다.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안산시는 안산 스마트허브 내 혁신데이터센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탈바꿈된다. 제조혁신 창업타운과 드론, 미래형자동차 등 미래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도 마련된다.

강소연구개발특구·캠퍼스 혁신파크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 시설을 비롯한 연구기업 입주 가속화되며,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은 안산 스마트허브로의 이전이 더욱 활기가 될 전망이다.

안산시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이어가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영업 지원 및 지역기업 우대 정책도 계속 추진해 나간다.

안산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안산산업 역사박물관'은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시민의 추억과 안산시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2021년에는 또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올해 2개동에서 시범추진된 주민자치회가 25개 동으로 확대되는 해가 된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는 자치행정 실현의 기본이 된다.

코로나 뒤덮었던 2020년...주요성과는?

올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안산시는 미래의 희망을 위해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 시설 유치가 올해의 큰 성과로 기록됐다. (썬카카오는 4천억 원을 들여 한양대

ERICA캠퍼스 혁신파크 부지에 사업을 추진, 2023년까지 7만8천579㎡ 부지에 첨단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 될 데이터센터 등을 조성한다.

지난해 9월에는 안산시 '5도(道)6철(鐵)'의 한 축인 수인선이 개통돼 호재를 알렸다. 1995년 12월 31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인선 협궤열차에 이어 25년 만에 수원과 인천 사이를 잇게 된 수인선을 통해 수원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졌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은 '안산형 선도 복지정책'으로 성대히 맞을 올렸고, 1단계 대상 학생인 2천545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 모두 16억 원을 지급했다. 안산시는 2021년에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시화호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낸 시의 노력도 빛이 났다. 한국전력공사와의 법적 소송도 벌였던 시의 노력은 매년 40억 원 안팎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유일 다문화 특구이자, 전국 최고의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는 올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아시아권에서는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CoE)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ICC)'로 지정되는 소식도 알렸다.

미니 신도시로 조성되는 장상-신길2지구 사업 추진 소식도 올해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모두 2만 호 규모가 공급되는 이 사업은 역세권도 조성돼 안산시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재난에서 안산시는 신속한 정책을 추진했다.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된 안산화폐 '다온'은 당초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으나,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11배에 이르는 3천310억 원이 발행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왔다. 올 4월 분석에서는 4천36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됐다. 내국인 주민 10만 원, 외국인 주민 7만 원씩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독특한 효과를 냈다. 특히 외국인 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며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김지연 기자

Chính phủ trợ cấp tiền hỗ trợ lần thứ 3 dành cho đối tượng là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thuộc diện lao động đặc thù và những tiểu thương đang hoạt động kinh doanh trên toàn quốc.

Chính phủ đã ra quyết định trợ cấp lần thứ 3 với số tiền tối đa là 3 triệu won dành cho đối tượng là những tiểu thương đang hoạt động trên địa bàn toàn quốc bị thiệt hại về thu nhập trong kinh doanh khi bị chịu ảnh hưởng của dịch Covid-19 bùng phát, thời gian tiến hành trợ cấp sẽ bắt đầu từ tháng 1 năm 2021.

Trong đợt trợ cấp lần thứ 3 này, chính phủ quyết định mở rộng thêm đối tượng có thể nhận được trợ cấp không chỉ có tiểu thương mà còn bao gồm cả quán cafe, quán Karaoke hay những người làm nghề lái taxi, những người làm nghề chăm sóc trẻ nhỏ,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hoạt động trong lĩnh vực đặc thù hay những người làm việc tự do mà bị thiệt hại về thu nhập do dịch bệnh phát sinh.

Nội dung này đã được chính phủ công bố vào ngày 29 vừa qua với nội dung chính thức mang tên "Chính sách hỗ trợ thiệt hại phù hợp với từng đối tượng và đối phó với dịch bệnh Covid-19 bùng phát lần thứ 3".

Chúng ta hãy cùng nhau tìm hiểu thêm về những hỗ trợ lần thứ 3 này của chính phủ mà một số nội dung hỗ trợ đó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cũng có thể được nhận nhé.

Đầu tiên, chính phủ quyết định trợ cấp số tiền tối đa là 3 triệu won dành cho các đối tượng là tiểu thương đã bị đình chỉ hoạt động trong lĩnh vực hoạt động như các lò luyện thi hay phòng Karaoke. Ngoài ra Chính phủ sẽ hỗ trợ số tiền tối đa lần lượt là 2 triệu won và 1 triệu won đối với các ngành nghề bị hạn chế số lượng tập hợp khách như salon làm tóc, quán cafe hay các nhà hàng và một số những ngành nghề kinh doanh bị hạn chế số lượng khách đến khác, vv

Theo thống kê, số lượng tiểu thương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lần thứ 3 này của chính phủ mà ngành

ngành kinh doanh của họ thuộc mảng bị chính phủ đình chỉ hoạt động cũng như hạn chế hoạt động trong một thời gian nhất định và thu nhập kinh doanh của họ giảm dưới 400 triệu là 2 triệu 8 trăm nghìn người. Ngoài ra, trong đợt hỗ trợ lần thứ 3 này số lượng người làm nghề lái taxi tư nhân là 160,000 người và khoảng 30,000 địa điểm kinh doanh vui chơi giải trí cũ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trong lần hỗ trợ thứ 3 này của chính phủ.

Thêm một số nội dung khác trong mảng hỗ trợ của Chính phủ đó chính là hỗ trợ tiền vay khi thuê mặt bằng là 1.9% đối với đối tượng là tiểu thương bị Chính phủ đình chỉ hoạt động trong thời gian nhất định. Số tiền vay hỗ trợ tối đa lên đến 10 triệu won. Đối với các ngành nghề bị hạn chế kinh doanh thì số tiền là hỗ trợ sẽ là 2~4%

Không chỉ thế,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lao động tự do hoặc những người đang lao động thuộc lĩnh vực lao động đặc thù cũng được hỗ trợ với số tiền 500,000won~1,000,000won/người. Đối tượng lao động trong các mảng lao động đặc thù đó chính là những giáo viên hỗ trợ việc giảng dạy, giáo viên làm việc tại các lò luyện thi, giáo viên hướng dẫn học sinh học tập sau những tan trường, những người bán hàng đến tận nơi của người mua hàng, những người làm trong lĩnh vực bán bảo hiểm, những phiên-biên dịch viên, vv những ngành nghề mà gia đình đa văn hóa đang lao động với tỷ lệ cao.

Số tiền 500,000won cũng sẽ được hỗ trợ dành cho 90,000 người lao động thuộc lĩnh vực dịch vụ đến tận nhà hay trông nom chăm sóc trẻ nhỏ. Số tiền 500,000won cũng sẽ được hỗ trợ cho 80,000 người đang làm việc với công việc lái taxi.

Ngoài ra chính phủ cũng sẽ hỗ trợ số tiền tối đa là 10 triệu won dành cho những doanh nghiệp đã đóng cửa nhưng có nguyện vọng kinh doanh lại hay trợ cấp với số tiền 500,000won khuyến khích các doanh nghiệp này kinh doanh lại.

Chính phủ cũng có chính sách sẽ kéo dài thêm thời gian trợ cấp số tiền hỗ trợ phúc lợi khẩn cấp là 1,270,000won hàng tháng dành cho đối tượng có thu nhập thấp đến tận quý 1 của năm 2021 tới đây.

Bắt đầu từ ngày 6 tháng 1 năm 2021, chính phủ sẽ gửi thông báo tới số điện thoại cá nhân của các đối tượng thuộc diện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sau đó tiếp nhận đăng kí online và tiến hành trợ cấp chính thức bắt đầu từ ngày 11 tháng 1 năm 2021 cho đợt hỗ trợ lần thứ 3 này.

Chủ tịch tỉnh GyeongGi- ông Lee Jae Myeong có thông báo rằng nếu số tiền hỗ trợ đã hết những vẫn chưa thể hỗ trợ được cho toàn bộ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thì sẽ được chuyển sang từ hỗ trợ tiền mặt sang hỗ trợ bằng tiền đặc thù của khu vực.

Chủ tịch còn cho biết thêm "Tỉnh GyeongGi đang tiến hành nghiên cứu thêm về phương án hỗ trợ bằng tiền đặc thù của khu vực dành cho toàn bộ người dân trên địa bàn tỉnh nhưng những yếu tố liên quan đến kinh tế dự phòng của tỉnh gặp khó khăn rất lớn", nhằm đảm bảo ổn định mức thu nhập trong kinh doanh của các tiểu thương trong địa bàn tỉnh thì tiền đặc thù của khu vực sẽ có tiến độ thúc đẩy kinh tế của khu vực, hỗ trợ thu nhập cho các tiểu thương đang kinh doanh trên địa bàn tỉnh hơn là hỗ trợ bằng tiền mặt có thể tiêu thụ được trên phạm vi toàn quốc.

<한글 기사 30면>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政府对小商工人和特殊雇佣职提供第三次灾难补助 3차 재난지원금 지급

从新年1月开始,政府将向因新型冠状病毒感染(新冠病毒)第3次扩散而受到损失的小工商业者等人支付最高300万韩元的第3次紧急灾难支援金。

此次灾难支援金的支援对象包括咖啡厅、练歌房等因“新冠病毒”受害的小工商业者,出租车司机、照顾服务从业者、特殊雇佣职和自由职业者等。

12月29日,政府在政府大楼召开了“应对新冠病毒第3次扩散的针对性受害支援对策”相关新闻发布会,并发表了上述对策。

对给多文化家庭带来部分优惠的第3次灾难支援金进行了解。

首先,政府向练歌房、补习班等禁止集合行业的小工商业者最高支付300万韩元。对餐厅、咖啡厅、美容业等聚集限制行业和其他普通行业将分别支付200万韩元和100万韩元。

根据防疫方针,支援对象是被分类为禁止集合、限制行业的小工商业者。今年销售额比去年减少,并低于4亿韩元的280万小工商业者,在此次第三次灾难支援中,16万名个人出租车司机和3万多家娱乐场所也被列入支援对象。

对禁止集合行业的小工商业者,以1.9%的利率提供租赁费贷款。贷款限额为1000万韩元。为限制聚集行业提供利率在2%至4%左右的融资资金。

此外,还将向特殊雇佣员工和为自由职业提供每人50万至100万韩元的紧急雇佣稳定支援金。特殊雇佣职业包括学习指导教师、补习班讲师、第二课堂教师、上门售货员、保险设计师、翻译师等众多多文化家庭成员工作的行业。

另外,对9万名访问、照顾服务从业者也将提供50万韩元的生计补贴。对于8万名法人出租车司机,将支付50万韩元的收入稳定资金。

对于已经关门的小工商业者,将支付50万韩元的停业店铺再挑战奖金,并支援最多1000万韩元的再创业事业化资金。

政府还决定,将向中等收入低于75%的低收入层每月提供127万韩元紧急福利支援金的期限延长到明年第一季度。

第3次灾难支援金将于1月6日给相应对象发送短信后,接受网上申请,从11日开始支付。

另外,京畿道知事李在明向政府呼吁,将第3次紧急灾难支援金作为消失性地区货币支付。李知事指出:“虽然京畿道正在讨论对所有道民支援地区货币支援方案,但是因为财政上的困难而苦恼。”并强调“如果政府作为挽救国民经济的经济政策,向全国国民支付消失性地区货币,而不是现金,那么小工商业者的销售额就会增加,从而使韩国经济复苏。” <한글 기사 30면> 왕그나 기자



다문화가정 등 어린이에 선물꾸러미

안산시새마을회, 한부모가정 등 150가구 방문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안산시새마을회 (회장 임충열) 회원 10여 명이 지난 12월 18일 성탄절을 맞아 산타로 분장해 가가 호호 방문하며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부모 가정 등 150가구의 어려운 가정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사랑나눔의 지원을 받아 구매한 따뜻한 모자와 장갑, 먹거리를 자루에 담아 중학생 이하의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저소득 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150가구에 일대일로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참석인원을 최소화했다.

안산시새마을회 임충열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 한창 꿈을 키우며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이 집안에만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라며 “작지만 큰 사랑을 담은 선물을 받고 많은 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준 안산시새마을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 집단감염 막기 방역 강화

안산시, 코로나19 자발적 검사받도록 안내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최근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에 맞춰 방역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감염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공동 거주시설, 공동 식사 등 모임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언어 소통의 어려움 및 불법체류자의 검사 회피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직장 내 추가 전파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안산 스마트허브 등 주요 지역에 다국어 현수막 게시 및

기업체에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사내 방송 협조 등을 통해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알리고 외국인 커뮤니티 및 상인회 등 단체를 통해 홍보 및 자발적 참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불법체류자 무료 검사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여성부와 외교부는 역학조사 시 통역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외국인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현장 점검과 방역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의심 증상 발현 시 출근하지 말고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의 기자

Изменения в системе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и в 2021 году, о которых хорошо бы знать и иностранцам. 2021년 외국인주민이 알아두면 좋은 새해 한국의 교육제도 변화

В 2021 году в системе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и будут внесены ряд изменений. Рассмотрим изменения в системе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и, о которых полезно знать иностранцам.

◆ Бесплатное средн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лная реализац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бесплатное среднее образование для учащихся 2 и 3 классов старшей школы. В 2021 году будет расширено полностью и внедрено для учащихся 1,2,3 классов старших школ. Планируется уменьшение ежегодных затрат на обучение в размере около 1,6 миллиона вон на одного учащегося старшей школы, такие как вступительный взнос, плата за обучение, школьные взносы и плата за учебники. Однако частные школы, в которых вступительные взносы и стоимость обучения определяются директором школы, исключены.

◆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гарантий пособий на образование

Для учащихся из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семей также увеличится предоставляемая сумма пособий на образование (расходы на поддержку образования и т. Д.). Если суммировать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е пособие на расходы обучения (основной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й учебный материал, школьны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то для учеников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сумма составит 286.000 вон, для учеников средней школы- 376.000 вон и 448.000 вон для учеников старших школ, что в среднем на 24%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 Увеличение пособий на уход за детьми

В целях облегчения бремени расход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особие,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е семьям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будет расширено. До этого семьи, пользующиеся услугами неполного рабочего дня, получа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до 720 часов в год, но в будущем они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до 840 часов в год. По отношению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пособию за услуги также увеличено 80 → 85% (средний доход 75% или меньше), для домохозяйств, пользующихся услугами для ребенка полный день, и 55 → 60% (средний доход менее 120%) для домохозяйств, пользующихся услугами для ребенка не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что приведет к сокращению каждых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расходов на 5%. Кроме того, увеличено и пособие для уязвимого класса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ниже 75% от среднего дохода), так что неполные семьи, родители-инвалиды и семьи с детьми-инвалидам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о 90% оплаты за обслуживание.

◆ Увеличение распределения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оспитателей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В целях улучшения условий труда воспитателей, таких как снижение нагрузки и обеспечение часов отдыха, будет расширено размещение в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оспитателей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28.000 помощников и 30.000 воспитателей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что на 6.000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если количество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го персонала во многих детских садах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тся, то и услуги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будут более качественными, и возможно родители-иностранцы почувствуют облегчение на душе. <한글 기사 1면>

장올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시흥 지역사회의 온정의 손길 이어지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말 지역사회 3개 단체의 따뜻한 후원

연말을 맞아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시흥시 관내 단체들의 따뜻한 후원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에 잇달아 도착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후원금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8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명우)로부터 3사랑밥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흥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사진 가운데)

이날 전달식에는 이명우 회장 비롯해 이규식 부회장, 김상재 지역협의회의장, 3사랑밥터 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결식아동 식사비를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이 전달됐다. 이 후원금은 지역 내 결식아동들에게 매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이 나눔을 9년간 지속해오고 있다.

이명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기계설비업계의 정성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저소득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상공회의소 다문화가정 후원금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

시흥상공회의소(회장 서재열)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흥시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한 후원금(시흥화폐 시루)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사진 왼쪽)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 시흥상공회의소 관계자, 다문화가족 대표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흥시의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지원을 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흥상공회의소는 2012년부터 매년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선정하여 가족 모두가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하고, 다문화자녀를 위한 역사탐방과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여파로 인해 모국방문 지원을 대신하여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선정하여 자녀 수에 따라 1자녀?30만원, 2자녀?50만원, 3자녀 이상?70만원을 시흥화폐(시루)로 후원한다.

후원 가정은 다문화가정, 다문화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가정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등 10개국, 총 112가정을 선정하였다.

시흥상공회의소 서재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의 몸과 마음이 지친 가운데 시루가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참석했던 다문화가정 대표자는 “올해 코로나19

로 많은 사람이 심리적 우울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루를 지원해주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힘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감사함을 전하였다.

#3사랑밥터, 결식아동 특별선물 전달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24일 지역 주민 후원회 ‘3사랑밥터’로부터 결식아동을 위한 크리스마스 특별선물을 전달받았다.(사진 오른쪽)

‘3사랑밥터’(대표 공갑식)는 2011년부터 지역 내 결식아동들을 돕고자 정왕본동 상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 후원회이며, 학기 중 조식, 방학 중 중식을 10년째 지원해왔다. 현재는 코로나19로 당일 제조한 영양 도시락을 후원하고 있다.

이날, 아이들을 위해 각 가정당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아동별 양말선물세트를 제공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에서는 전 연령을 위한 책가방 후원으로 힘을 보탰다.

도시락을 받는 가족들은 “매일 맛있는 밥을 받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물들과 예쁜 케이크를 받아 센터에 산타할아버지가 대신 왔다 가신 것 같아 행복하다.”, “항상 아이들에게 명절이나 방학, 특별한 날에 마법 같은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다. 함께 따뜻해지는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 온라인 학습지원으로 코로나 속 학교와 아이들을 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학교의 온라인 수업으로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고자 ‘2021 온라인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사’ 사업을 진행한다.

‘온라인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사’는 관내 초중학교의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온라인 학습지원 및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혜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가정방문형, 지역거점형, 학교방문형 3가지 방식으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의 등교인원이 제한되고 가정의 온라인 학습이

증가하면서 학습돌봄이 필요한 저학년 학생, 맞벌이 가정, 조손가정 등을 중심으로 학습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마을교사들을 활용해 학습태도 개선 기초학습 및 학습 성취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공고기간을 거쳐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할 참여기관 및 단체의 접수를 받았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발된 기관 및 단체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시흥시는 코로나19가 발생, 확대된 2020년 상반기부터 예상치 못한 온라인 개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과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논의를 이어왔다. 그리고 그 대응 방안의 하나로 교육복지 사각지대의 학생들을 위해 마을교사를 지원하고 마을교육자치회의 거점공간을 활용해 학습지원 및 돌봄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20년 하반기에 11개교 120여명의 학생이 온라인 학습지원을 받았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 장기화로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며 “앞으로도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습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31-310-3426, 3427

김지연 기자

Сайты по поиску работы в Корее? 한국 취업 웹사이트에 대해

외국인주민도 알아야 할 한국의 취업 사이트 “원하는 정보 쉽게 찾을 수 있어”

Вопрос поиска работы хоть раз в жизни встал наверно у каждого. Но как мы знаем это далеко не самое легкое испытание даже для самых стойких людей. В условиях кризиса поиск работы нередко затягивается на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и даже месяцев, что, безусловно, очень сильно давит на психику и настроение. Однако, так как этот процесс является неизбежным, существует больше количество сайтов-помощник для упрощения процесса поиска работы.

Пока я жила в России, поиск работы был затруден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тем, что сайты для поиска работы были не так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как, например, кадровые агентства. Поэтому приходилось лично посещать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ого рода и отзваниваться каждый день в надежде, что мое резюме заинтересовало работодателя. Но с появлением сайтов, поиск работы упростился в разы. Во первых, работодатель может сразу оценить ваше портфолио, а во-вторых, в случае если резюме подходит под стандарты компании, то работодатель напрямую свяжется с вами.

В Корею тоже существует множество сайтов для поиска работы. Однако, оказывается, не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знают о них. И в этой статье я поделюсь именно самыми популярными.

◆JobKorea(잡코리아)-сайт, занимающий перв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сайтов по поиску работы в Корею. Job Korea предлагает множество бесплат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азработанных Job Korea, таких как NCS, тест на профпригодность, правила составления хорошего резюме, анализ компани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Т.е. то, что будет весьма полезно для соискателей. Также благодаря встроенному фильтру по провинциям/городам,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 другим параметрам, вы легко сможете найти и желаемую работу. На сайте постоянно проводятся различные ивен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выиграть небольшой, но приятный приз.

◆Saramin(사람인)-также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

мых популярных сайтов наряду с JobKorea. На этом сайте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ует фильтр по желаемому району работы, виду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т.д. Также в случае выбора параметров желаемой работы вас постоянно будут оповещать о появлении подходящей вакансии. Если вам приглянулась какая-то вакансия, то можно оценить общ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подавших на должность кандидатов (количество подавших,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желаемая годовая зарплата, опыт работы, знание языков и т.д.). Кроме этого на сайте присутствуют такие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как: тест на профориентацию, проверка на орфографию и др.

◆И последнее это сайт, которое было созда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жабаба.

Сайт был создан в 2017 году 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разнообразную информацию, связанную с работой, такую как обучени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политика в области занятости,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услуги по поддержке работы и индивидуа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Все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порталы имеют как личные сайты, так и приложения на моби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Поэтому 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ими ресурсами можно в любое время и в удобном для вас месте.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직업을 찾는 숙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취업은 가장 끈질긴 사람들도 쉬운 도전과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구직이 종종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연되기 때문에 정신과 기분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직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도움말 사이트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러시아에 사는 동안 구직 사이트가 채용 대행사만큼 널리 보급되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대행사를 직접 방문하고 제 이력서가 고용주에게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매일 다시 확인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취업 웹사이트의 출현으로 구직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첫째, 고용주는 구직자의 포트폴리오를 즉시 평가할 수 있으며 둘째, 이력서가 회사의 표준에 부합하면 고용주가 직접 연락할 것입니다.

한국에도 취업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이 그러한 사이트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취업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잡코리아

잡코리아는 국내 구직 사이트 중에 1위를 차지합니다. 잡코리아는 NCS, 적성 검사, 좋은 이력서 작성 규칙, 기업 분석 등 잡코리아에서 개발한 많은 무료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구직자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문 분야 및 기타 매개 변수별로 내장된 필터 덕분에 원하는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벤트, 연구를 개최하여 작지만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

사람인은 잡코리아 만큼 매우 인기있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검색에 유용한 원하는 지역, 직업 영역, 활동 유형 등에 대한 필터도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작업의 매개 변수를 선택하면 적절한 일자리 공고가 올라왔을 때 알려줍니다.

일자리가 마음에 들면 해당 정책에 지원한 구직자의 일반적인 특성(지원자 수, 평균 연령, 원하는 연봉, 경력, 언어 지식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인 사이트에는 직업지도(진로) 테스트, 맞춤형 검사 등과 같은 보조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잡아바

마지막은 경기도에서 만든 사이트인 잡아바입니다. 2017년에 개설된 사이트로 취업 교육, 취업 정책, 취업 상담, 취업 지원 서비스, 개인 맞춤형 취업 정보 등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모든 포털에는 모바일용 사이트와 응용 프로그램(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소스를 언제든지 편리한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잡코리아 - 취업 신입 경력 맞춤채용 무료 연봉정보

잡코리아 비즈니스 ★★★★★ 15 321

◆ Есть реклама

◆ Приложение совместимо с вашим устройством.

◆ Добавить в список желаний

Установить



사람인 - 취업도 쉽고 빠르게

(주)사람인HR 비즈니스 ★★★★★ 19 908

◆ Приложение совместимо с вашим устройством.

◆ Добавить в список желаний

Установить



잡아바

경기도일자리재단, 비즈니스 ★★★★★ 745

◆ Приложение совместимо с вашим устройством.

◆ Добавить в список желаний

Установить



색다른 해외여행, '랜선외국(COOK) 여행'

시흥외복, 국가별 공동체 음식문화 탐방프로그램 운영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종교)는 지난 11월 15일부터 국가별 공동체 음식문화 탐방프로그램 '랜선외국(COOK)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랜선외국(COOK)여행'은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태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총 7개국 국가별 공동체 회원들이 본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소개하고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이를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유튜브에 매주 1회 공개하고 있다.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내국인에게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 상호문화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태국 공동체 회원 카난타이 아벡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처럼 태국 리그라통 축제(태국의 대표적인 2대 명절 중 하나, 태국력 12월 보름)는 열지 못했지만, 대신 팟타이(태국식 볶음 쌀국수)를 만들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 재미있고 즐거웠다"며 소감을 전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신청하세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자를 1월 6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는 총 10개 사업이 준비돼 있다.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한 ①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비롯해 ②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③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④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⑤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⑥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⑦정신건강도달케어서비스, ⑧우리가족융합프로그램, ⑨통합가족상담서비스 ⑩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의 이용자를 모집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시흥시청 복지정책과 (031-310-356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17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지속, 외국인주민도 적극 호응해야"

Губернатор Ли Чжэ Мён подчеркивает, наряду с профилактико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ыплаты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для всей страны является мер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во время карантина.

Издан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приказ в городах по Кенгидо, Сеул, Инчхон, запрещающий коллективные собрания в помещении или вне с 0:00 23 декабря по 24:00 3 январ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частности запрет на все частные собрания количеством более 5 человек в помещении и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Это более строгая мера, чем «запрет для групп из 10 и более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карантинным условием на 3-м уровне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до Ли Чжэ Мён провёл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и сказал: «Число подтверждённых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превышает 1.000, чт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Заражения больших и малых групп не заканчиваются в местных сообществах. Кёнгидо, как и вс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ере

живает самый серьёзный кризис со времени вспышки коронавируса19», и озвучил план реализации чрезвычайных мер.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ой мерой в столичной зоне запрещены все частные собрания с участием 5 и более человек, разрешены только до 4 человек, как в помещении, так и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Это касается всех видо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ие как встречи по интересам, корпоративы в конце года, ужины сотрудников, новоселье и т.д. Однако, учитывая важность свадебной церемонии и похорон, в этих случаях сохраняются условия 2,5 уровня социализации (допускается до 50 человек).

Губернатор Ли Чжэ Мён сказал: «По Кёнгидо непрерывно происходят групповые заражения и,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причиной являются частные собрания. Были приняты более усиленные меры чем при 3м уровне социализации».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в столичной зоне,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единым жилым райо

ном, не подходят общие меры профилактики, остаётся только внесение ограничений. После тес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с Сеулом и городом Инчхон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карантинный указ об ограничении совместных частных собраний в столичной зоне».

Губернатор Ли сказал: «Было нелегко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потому что это очень повлияет на жизнь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но необходимы повышенные меры для прекра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rona19, а так же чтобы разорвать цепочку локального заражения. Это неизбежн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вынесено с учётом быстрого роста числа случае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 местном сообществе из-за частных собраний. Надеемся на понимание и просим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ак же вынесл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 00 часов 23 декабря по 3 январ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олностью запрещает собрания 5ти и более человек. Действие мер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на столичную з

ону, но и на всю страну. Запрет на собрания до 5ти человек не зависит от места проведения, в помещении или в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все частные встречи такие как встречи по интересам, корпоративы в конце года, ужины сотрудников, новоселье, годик и т.д.

Иностранцам резидентам желательно отменить все встречи и оставаться на месте прожива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арантинной политик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данного указа власти проводят политику строг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лагая штрафы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меры как на владельцев бизнеса, так и на пользователей.

Если, в связи с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заражения лица, во врем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нарушение подтвердится, может быть наложен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до 3млн. вон, а так же возможно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возместить убытки, такие как медицинские расходы. <한글 기사 43면>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Automatic Transfer

자동이체



편리하게 보험료 납부하고 편하게 병원진료 받으세요!

건강보험료는 은행계좌,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매월 자동이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하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유선 | 외국어 전화상담서비스, 1577-1000 & 7 또는 033-811-2000

팩스 |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지사 팩스 전송 (5면 참조)

방문 | 거주지 관할지사, 외국인민원센터, 가까운 은행 방문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The건강보험, 징수포털에서 자동이체 신청 가능)

方便地缴纳保险费, 方便地去医院就诊。

健康保险费可以通过银行账户, 信用卡/借记卡每月自动转账进行缴纳。若选择自动转账, 就不会错过缴纳期限。

申请健康保险费自动转账

电话 | 外语电话咨询服务, 1577-1000 & 7 或 033-811-2000

传真 | 填写申请表, 通过传真发送至居住地的管辖分公司 (参考第5页)

访问 | 访问居住地的管辖分公司, 外国人信访中心或附近银行 (若有电子证书, 可以在The健康保险, 收费门户网站申请自动转账)



Receive bills

고지서



쉽게 고지서를 받아 보험료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출입국관서에 신고한 체류지로 발송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분실위험 없이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전자고지 신청

유선 | 외국어 전화상담서비스, 1577-1000 & 7 또는 033-811-2000

팩스 |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지사 팩스 전송 (5면 참조)

방문 | 거주지 관할지사, 외국인민원센터

请轻松地接收缴费通知单并确认保险费。

健康保险缴费通知单发送至本人向出入境管理部门申报的滞留地。若申请电子缴费通知单, 则没有遗失风险, 可以通过电子邮件或智能手机接收健康保险缴费通知单。

申请健康保险电子缴费通知单

电话 | 外语电话咨询服务, 1577-1000 & 7 或 033-811-2000

传真 | 填写申请表, 通过传真发送至居住地的管辖分公司 (参考第5页)

访问 | 访问居住地的管辖分公司, 外国人信访中心

Delinquency Information

체납자료 제공



건강보험혜택의 유용한 정보!

체납 후 병·의원 방문 시 진료가 제한되며, 미납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날 급여제한이 해제됩니다. 또한 50만원 이상 보험료 체납 시, 체납 자료는 법무부에 제공됩니다.

제공된 체납자료는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체류허가 심사 자료로 활용되어 비자연장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健康保险福利的有用信息

若滞纳金, 去医院就诊时诊疗会受到限制, 在全额缴纳未缴保险费的当天解除补助限制。此外, 滞纳金50万韩元以上保险费时, 滞纳金资料将提供给法务部。所提供的滞纳金资料将被全韩国出入境, 外国人管理部门作为滞留许可审查资料使用, 签证延期等有可能受到限制。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으세요!

请访问附近的体检机构, 享受国家健康体检福利。

	대상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비사무직 1년 주기) 및 피부양자 꼭수출생 (의료급여대상: 만 19세~64세 꼭수년도 출생자, 만 66세 이상 생애전환기 대상)
검사항목 신체계측검사 및 혈액검사 등	
대상 个人参保, 公司参保 (非文职以1年为周期体检) 和偶数年出生的被扶养人 (医疗补助对象: 19-64周岁偶数年出生者, 66周岁以上人生周期转换期对象)	
检查项目 身体测量检查和血液检查等	
	대상 만 40세 이상 꼭수년도 출생자
검사항목 위장조영촬영 또는 위내시경검사	
대상 40周岁以上偶数年出生者	
检查项目 胃造影检查或胃内窥镜检查	
	대상 만 50세 이상(1년 주기)
검사항목 1단계 분변검사 ▶ 양성판정 2단계 대장이중촬영 또는 대장 내시경검사	
대상 50周岁以上 (以1年为周期)	
检查项目 第1步 粪便检测 ▶ 判定阳性 第2步 大肠双重造影或大肠内窥镜检查	
	대상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
검사항목 간 초음파 및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상 40周岁以上肝癌发病高风险群	
检查项目 肝脏超声检查和甲型胎蛋白检查	
	대상 만 40세 이상 꼭수년도 출생 여성
검사항목 유방촬영검사	
대상 40周岁以上偶数年出生女性	
检查项目 乳房摄影检查	
	대상 만 20세 이상 꼭수년도 출생 여성
검사항목 자궁경부세포검사	
대상 20周岁以上偶数年出生女性	
检查项目 宫颈抹片检查	
	대상 만 54~74세 꼭수년도 출생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검사항목 저선량 흉부CT 및 사후상담	
대상 54-74周岁偶数年出生者中肺癌发病高风险群	
检查项目 低剂量胸部CT和后续咨询	

▶ 건강검진 비용 본인부담 없음 또는 10% 부담
▶ 体检费用 本人无需负担或负担10%

우리 함께
약속해요!

생활 속 올바른 마스크 쓰기



인천·경기 지사 팩스번호

지사명	관할지역	팩스번호	지사명	관할지역	팩스번호
인천중부	중구/동구/용진구	032-870-4364	파주	파주시	031-828-8251
인천남부	미추홀구/연수구	032-870-4304	이천	이천시	031-229-0752
인천계양	계양구	032-870-4324	김포	김포시	031-229-0834
인천서부	서구/강화군	032-870-4385	화성	화성시	031-229-0654
인천남동	남동구	032-870-4347	경기광주	경기광주시	031-229-0692
인천부평	부평구	032-870-4405	포천	포천시	031-828-8322
수원동부	팔달구/영통구	031-229-0496	양평	양평군	031-229-0711
수원서부	장안구/권선구	031-229-0515	성남남부	분당구	031-229-0474
의정부	의정부시	031-828-8202	성남북부	수정구/중원구	031-229-0454
부천북부	원미구/오정구	032-870-4444	양주	양주시	031-828-8262
부천남부	소사구	032-870-4422	광명	광명시	02-3275-8170
평택	평택시	031-229-0815	시흥	시흥시	031-229-0535
동두천연천	동두천시/연천군	031-828-8281	안성	안성시	031-229-0772
안산	안산시	031-229-0565	구리	구리시	031-828-8362
과천	과천시	02-3275-8181	여주	여주시	031-229-0732
남양주가평	남양주시/가평군	031-828-8343	고양일산	일산동구/일산서구	031-828-8384
오산	오산시	031-229-0791	고양덕양	덕양구	031-828-8235
군포	군포시	031-229-0612	안양	안양시	031-229-0580
의왕	의왕시	031-229-0632	용인동부	치안구	031-229-0884
하남	하남시	031-229-0852	용인서부	기흥구/수지구	031-229-0674

외국인 민원센터 주소

-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 우체국 7층)
-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빌딩 4층)
-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正确的口罩佩戴法



코와 입을 모두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若没有将口鼻全部遮住, 等于没有戴口罩。

h-well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

Guide

꼭 필요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안내

外国人健康保险 制度须知



외국어 전화상담서비스
外语电话咨询服务

1577-1000 & 7 / 033-811-2000

- 1 영어상담사 英語
- 2 중국어상담사 中文
- 3 베트남어상담사 越南語
- 4 우즈베크어상담사 乌兹别克語

**Family Connection
Life Cycle Empathy-UP**

Seoul National University's Snookom

Team on Academic Cooperation in
Self-Governing Education(031-310-3495)

- **Eligible for Support** : 1st grade in elementary school to 3rd grade in middle school
- **Application period** : All year-round (Recruitment is by program)
- **Service Charge** : Free
- **Support details**
 - (Elementary grade program/11 subjects) English, creative mathematics, musical, choral, children's sports, disabled children's sports, astronomy, art, reading, classical literature appreciation, history exploration
 - (Middle grade program/6 subjects) English, musical, career, coding, physical education, mental healing.
 - (Students' parent program/1 subject) A course to strengthen parent's ability to guide their children to pursue a career.
- **Application method** : Internet application (<http://educenter.snu.ac.kr>)
- **Documents Needed** : separate information dissemination by program

Support for overseas exchangeproject for young people

Youth and Youth Safety Team (031-310-3612-3)

- **Eligible for Support** :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college students within the governed district
- **Application period** : beginning of the year
- **Project Details**
 - From Siheung to the world! Youth Planning and Training Tool
 - Into the world of aspiring Siheung trees to the World! Overseas Visit Experience Group (Culture and Art, History Tour)
- **Application method** : Refer to the notice in the recruitment section of the city homepage
- **Support details** : Support for each team, local stay expenses, pre- and post-school expenses, etc.

**Public medical support
for children in our neighborhood**

Health Policy Department and
Health Policy Team(031-310-5814)

- **Eligible for Support** : Children aged between 6 and 12 years of age and under medical condition
- **Application period** : All year-round (frequent recruitment)
- **Support details** : Medical expenses of 300,000 won per year
- **Documents Needed** : application form,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resident registration copy, medical report, etc.

**Siheung Oido Museum Children's
Experience Room**

Siheung Oido Museum(031-310-3052)

- **Location** : 332 Oido-ro, Siheung-si
- **Operating hours** : 3 times between 10:30 and 17:00 p.m. on Tuesdays and Sundays
< 10:30 to 12:00 (1st times), 13:30 to 15:00 (2nd times), 15:30 to 17:00 (3rd times)>
- **Entrance Fee** : 1,000 won per person (50% discount for Siheung city citizens)
- **Recommended to** : Children over 36 months old to 9 years old
- **How to Use** : Self-experience after reservation through website (there are programs to experience life and culture and performances)

**Children and Youth
Psychological Support**

Health City and Health Promotion Team
(031-310-5877)

- **Eligible for Support** : children, adolescents, under the age of 0-18; parents, teachers, and ordinary citizens who have difficulty in emotional behavior
- **Application period** : year-round
- **Service Charge** : Free
- **Support details**
 - Psychological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Operate a program to alleviate emotional behavior problems
 - Visit counseling, education, and program management (local children's center, happy health center, etc.)
 - Support for psychiatric treatment expenses
- **Application method** : different application by case, inquiry through the institution

Child Care Benefit

National Tax Service(1544-9944)

- **Eligible for Support**
 - If you have dependents under the age of 18 (a total of 1,000,000 won or less in annual income).
 - If the combined annual income of couples is less than 40,000,000 won,
 - If you have less than 200 million won in property
- **Application Period** : May every year (Subsequent application available but reduced after this period)
- **Support details** : Up to 700,000 won per person
- **Application method** : Call by telephone, fax, or visit, National Tax Service Office



Children · Youths

**Family Connection
Life Cycle Empathy-UP**

Gyeonggi School of Dreams

Self-governing Department and
Village Education Cooperation Team(031-310-3427)

- **Eligible for Support** :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 **Selection Criteria** : Different by each Dream School
- **Service Charge** : Free
- **Application Period** : Each dream school recruit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but some programs are available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 **Application Method** : Individual application (each school, internet, parents, etc. can apply freely)
- **Support Procedure** : Support for each dream school's business program
- **Documents Needed** : application form



Support for Education Expenses

Women's Family and
Healthy Family Team(031-310-2618)

- **Eligible for Support** : Single-parent families (including grandparent and grandchildren) who raise only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less than 22 years old) who are under 52% of the standard middle age.
- **Support Details**
 - (education expenses) 20 percent tuition for freshmen in 2020, 20% of the admission fee paid to schools
 - (expenses for learning materials) 15,000 won per month for each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 (expenses daily necessities) 50,000 won per year for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Lunar New Year/Thanksgiving Day)
 - (expenses for family with grandparent and grandchildren) 100,000 won per person per month
 - ※ Can't be duplicated: Out of the customized benefits, livelihood benefits, emergency support
- **Application Method** : Apply to each 'Dong(community)'s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Drop-out Prevention System

Siheung-si Education Support Agency(031-488-2449)
Provincial Education Office(031-820-0642)

- ! Prevent hasty school drop-outs by thinking of various problems that can arise from dropping out of school.
- **Eligible for Support** : Parents and students who have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drop out of school.
- **Consideration Period** : more than 15 days
- **Caution** : As each education office has a different duration or program, please contact the education office.

Tell Me Your Worries, - Youth Counseling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031-318-7100)
Jeongwang Dream Center(031-318-7101)

Section	Topic
Youth Cyber Counseling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ber Counseling Center (https://www.cyber1388.kr:447) • Help Call Youth Hotline 1388 / #1388 text message available without country code) • School Violence SOS Support Group (1588-9128) • (app) 117 CHAT (School Violence Reporting Center)/ Kakao Talk Plus Friend (#1388)
Out-of-School Youth Counseling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Ground Floor, 179 Eunhaeng-ro/Youth Training Center) • Jeonwang Dream Center (3F, Geumgwang Building, Odong Village)
Youth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Ground Floor, 179 Eunhaeng-ro/Youth Training Center) • Youth Hotline (1388/Text 031-1388) No Country Code



Helping out-of-school Youth Dream(Stepping Stone)

Siheung City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Daeya-dong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031-318-7100)
Jeongwang Dream Center(031-318-7101)

- **Eligible for Support**
 - Youths aged 9 to 24
 - Teenagers who have been absent or suspended from school for more than three months after enteri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 Teenagers who have been re-enrolled or dropped out of high school.
 - Teenagers who didn't go to high school
 - Teenagers who are considering dropping out
- **Support Details** : Services tailored to the needs of out-of-school youth, such as counseling, psychological testing, mentoring, etc.

**Family Connection
Life Cycle Empathy-UP**

English



Children · Youths

2021년 예산, 1조 5,527억원 확정

시흥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등 포함 복지 강화



2021년도 시흥시 예산이 지난 12월 16일 시흥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조 5,52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①민생안정 ②미래도시 조성 ③복지안전망 강화 ④교육기반 마련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했으며,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회복 활력 제고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5억원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11억원 등 249억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흥화폐(시투) 발행 121억원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10억원 등 252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40억원 등 101억원을, 시민건강 관리 지원에 ▲출산 장려금 지원 14억원 등 106억원을 편성했다.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K-골든코스트 구축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37억원 ▲해변노을 공원 조성 10억원 등 96억원을, 대도시 품격에 걸맞은 도시기반 마련

을 위해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 61억원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 20억원 등 283억원을 편성했다.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버스노선 운영 지원 86억원 등 313억원을 편성했으며,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에 ▲물왕저수지 수변 테크 조성 39억원 등 739억원을 편성했다.

더욱더 견고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 36억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21억원 ▲시흥형 주거복지 지원 14억원 등 사회적약자 864억원, 노인 1,229억원, 아동 및 여성지원에 1,994억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교육으로 성장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대 교육협력 및 혁신교육 사업 73억원 ▲인재양성 및 청소년재단 운영과 한반위 장학생 선발 등 장학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출연금 47억원 등 교육·청년·청소년 지원에 365억원을 편성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021년 예산은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넘어 향후 미래 대비 전략사업 육성과 시민의 생활 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시흥시협의회

시흥다문화엄마학교 후원금 300만원 전달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지난 12월 30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시흥시협의회 회장 김용수)로부터 결혼이민자의 초등교육과정 습득 및 개인역량강화를 위한 시흥다문화엄마학교의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용수 회장을 비롯해 시흥다문화엄마학교 김형수 이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시흥다문화엄마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시흥다문화엄마학교’는 2019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가 직접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하고, 교육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용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시흥시협의회장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

‘2021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에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시민을 위해 ‘2021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추진한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소상공인과 실직자의 매칭을 통해 실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흥시가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 소재 소상공인이 구직자(시흥시민)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최대 약100만원씩 3개월간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 한해 사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에게는 집근처의 일자리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사업기간인 3개월 이후에도 50% 가까이 고용이 유지되며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에는 행정안전부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돼 2021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2021년에는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해 참여 대상 소공인은 매출액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채용과정을 산업진흥원

에서 직접 추진하는 등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였다.

1월부터 6월까지 시흥시 소재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10인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구직자 300명 채용을 지원한다. 2021년 1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구인을 원하는 업체는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신분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를 구비해 시흥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업체는 구직자 1인당 100만원가량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당 최대 2인을 채용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끊긴 구직자 모두 시흥시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당장의 생계유지 방안과, 코로나19 상황을 장기적으로 헤쳐 나갈 방안 모두를 고민하며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1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일자리총괄과(031-310-6257)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연 기자

#궁금증해소

이민법 전문 변호사 안내

김예진 변호사

지물이민법센터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비자 변경, 국적 취득, 신분창설
가족법 문제 등 모든 상담 가능

모국어 통역 상담

영어(English), 태국어(ภาษาไทย),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이주민 상담

대표번호 1599-2569

#중요이민개!

'2021년'에도 교류소통공간 다가온과 함께해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가온(ON) 연말 온라인 전시회 진행 눈길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에서는 다양한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2020년을 보내는 12월, 다가온(ON) 자조모임인 '풍선아트 자조모임', '마크라메 자조모임', '양말목 자조모임', '라탄공예 자조모임', '손뜨개 자조모임', '빛그림 동화 자조모임'은 센터 4층에 전시회장을 마련하여 그동안 만든 작품들을 전시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전시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라탄공예 이송강사와 양말목공예 김송이 강사(사진 가운데)의 작품이 함께 전시돼 행사를 빛내주었다. 전시회는 영상으로 촬영 편집

해 12월 21일 다가온(ON) 프로그램을 참여한 결혼이민자들과 SNS와 카톡 밴드를 통해 공유했다.

네이버품을 통해 감사 글을 전한 결혼이민자들은 "양말목 프로그램이 참 재미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제가 만든 물건을 전시회를 통해 만족을 느껴요.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요.", "몇 주간에 걸쳐 배우면서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영상으로 보니 뿌듯하고, 너무 이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배울 때는 낯설고 어려웠는데, 선생님의 친절하고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완성했던 작

품들이 모이니 멋진 작품이 되었네요.", "영상을 보면서 함께 수업받았던 친구들과 모습도 다시 봐서 너무 기쁘고 마지막에 코로나로 끝까지 함께 못한 것은 아쉽네요.", "만든 작품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쓰이는지 영상을 통해 보니 더 감동적이에요.", "지난 시간은 붙잡을 수 없지만 샘과 친구들과 함께 배우며 즐겼던 시간은 내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거예요. 2021년에도 꼭 다시 하고 싶어요. 모두 보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 전시회에 참여 못 한 아쉬움을 이렇게 온라인 전시회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부천시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해

부천시는 2021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노인, 한부모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 가구에 대한 기준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원)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천시는 이번 완화 조치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에 따라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새해에는 모든 우리 마음도 몸도 거리 두지 않고 만나길 바라"

<기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사 '박유림'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지만, 다양한 자녀 관련 프로그램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타국에서 태어나 자라다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와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로 배우는 중도입국 자녀 한국어 교육, 엄마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이중언어교육,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언어적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또래 친구들보다 언어발달이 다소 지연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언어발달 교육 등이 운영된다.

나는 2013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들, 외국인 자녀들과 언어발달 교육을 함께 해오고 있는 8년 차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사'다.

그동안 120여 명의 아이와 교육을 진행했지만 지난 한 해 만큼 특별하고도 힘든 해는 없었던 것 같다.

갑작스러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아이들과의 수업 시간은 언제 어떻게 중단될지 모른 채 한 해 훌쩍 지나갔다.

수업하더라도 마스크를 쓴 아이들 얼굴만 볼 수밖에 없고, 센터에 들어서는 아이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체온 재는 게 먼저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주말 사이 확진자 수가 1천명 이상으로 집계돼 오전부터 부모님들께 전화로 또다시 교육이 중단되었음을 알리면서 한 주가 시작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 중단이 잠시 풀렸던 교육시간에 6살 아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마스크도 답답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수업 전 별다른 생각 없이 가볍게 물었던 질문이었는데, 아이 얼굴이 꽤 심각해지더니 "네. 너무 심심해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못 놀아요. 놀이터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가고, 내 생일파티도 못 해요.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옆에 못 가는 거예요."라고 발음은 조금 부족하지만 아주 똑똑히 말한다. 그 말을 듣자 '아,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아이들도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외롭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어쩌면 어른보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과 학교 휴교, 외출금지로 아이들은 당연한 친구들과의 일상과 날씨 좋은 날 뛰어놀 수 있는 바깥 생활을 잃은 채 1년을 지냈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집에만 갇혀서 컴퓨터 화면으로 선생님을 만나고, 마스크 쓴 친구들만 가끔 만나며 1년을 지내왔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어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었지만, 이 말이 아이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도 힘든 한 해였을 거라 생각된다. 어른들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말하느라 미쳐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지 못하고 지나왔으니 이제는 아이들의 마음속 어려움도 한번 헤아려보면서 새해에는 꼭 아이들도, 어른들도 마스크를 벗고 몸도 마음도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본다.

그리고 새해에는 6살 그 아이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마스크를 쓰고 친구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놀이터에 가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곧 마스크 없이 마음껏 웃고, 떠들고, 친구들과 간식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라고.

박유림 언어발달지도사

코로나로 위축된 다문화 교육, 포스트 코로나 준비한 'T.H.E교육'

〈인터뷰〉 전국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부천신흥초등학교 조운정 교사'

코로나19로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학교와 가정 연계 교육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높아



“학부모 전화 상담을 하면 코로나로 아이들이 계속 집에만 있어 친구 관계를 걱정하세요. 특히 베트남 학생 학부모는 한국어 온 지 얼마 안 돼 등교수업 축소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걸 들으며 다문화 수업을 고민하게 됐죠.”

부천신흥초등학교 조운정 교사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제12회 전국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다문화 실천사례 교육자료 부분에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더(T.H.E) 다문화 감수성 키우기〉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문화 수업을 등교수업과 온라인으로 잘만 병행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부천신흥초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30% 정도로 높은 편이어서 다문화 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 절실했다.

조 교사는 올해 맡은 2학년의 수준을 고려해 다국어 동화 읽기를 활용한 다문화 수업 교육자료를 만들었다. 다문화 학생의 언어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다국어 동화 총 6권을 선택했다.

한국의 전래동화와 창작동화, 외국의 전래동화를 한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 등으로 번역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중 교과와 연계해 다문화 수업을 하기 위한 온라인 동화를 골랐다.

자아 정체성, 문화 다양성, 반 편견과 평등, 배려 존중, 협동, 세계 시민성이 포함된 〈우리 동네 가족 이야기〉, 〈서울 할머니, 하노이 할머니〉, 〈몽고메리 버스에서 생긴 일〉, 〈무지개 친구〉, 〈달라요 달라〉, 〈서로

도우면 할 수 있어〉 동화를 선택하여 다문화 감수성 수업을 하였다.

조 교사의 교육자료는 공모전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코로나19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학교와 가정 연계 교육으로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2월 10일 조운정 교사를 신흥초등학교에서 만났다.

-전국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2학년을 맡았고, 교직 생활은 14년 정도 됐다. 처음 다문화 학생을 만나 '다문화 학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한국어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친구와의 관계가 개선될 거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언어문제가 해결돼도 친구들과의 소통에는 2%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우연히 부천신흥초등학교에 와서 다문화 학생을 언어적, 심리적, 언어적으로 지원하는 학급인 다문화 특별학급을 2년 정도 맡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는 일반학급에서 다문화 학생 협력학급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을 총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원에서 전공으로 다문화 교육을 공부하였다. 다문화 학생들은 언어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회 및 문화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이 함께하는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수상한 〈블렌디드 러닝으로 더 다문화 감수성 키우기〉에 대해 설명해 달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 운영하는 수업방식인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으로 다문화 감수성 수업을 하였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다문화를 생각해(Thinking) 보고 등교수업으로 친구들과 생각을 즐겁게 나누며(Enjoy) 이 둘의 조화(Harmony)를 통해 다문화 교육이 이뤄짐을 의미하는 '더(T.H.E)'로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자료다.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물음표가 될 수 있지만, 꾸준히 다문화 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이 코로나 전후로

단절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또 코로나19로 다문화 학생 부모들의 막막함은 더 크게 다가와 교육적 소스의 필요성을 느껴 자료를 찾아 보니 다문화 동화 사이트에 전래동화, 창작동화 등이 한국어와 모국어로 탑재돼 있었다. 가정에서 온라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마련돼 있는 것에 착안해 다국어 동화책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다문화 교육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다국어 동화책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은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접근이 쉬운 것 같다.

=동화는 아이들에게 공감과 교육적 메시지는 물론 부모에게도 아이와의 소통을 위한 좋은 소재다. 수업은 책 6권을 선정한 후 6가지 학습주제로 2차시씩 총 12차시를 운영했다.

원격수업에서는 주제에 맞는 인지 수업을, 등교수업에서는 공감도 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실천적 배움 등을 진행해 다문화가족을 대할 때 태도, 다문화 실천 나눔, 다문화 수업을 하면서 느낀 소감 등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의 한계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신 것 같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만남이 계속 미뤄지면서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일상의 문제 해결 역량을 배워나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상황이 됐다.

올해 다문화 수업은 코로나로 위축된 교육현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보내기 위한 작은 날갯짓이었는데, 좋은 공감과 평을 얻게 돼 고맙다. 이 과정까지 봐주시고 격려해준 교장.교감 선생님 등 학교 관계자와 가족 및 함께 고민해주신 분들이 있어 다문화를 향한 마음이 한 번의 관심으로 끊기지 않고 계속 올 수 있었다. 두려움과 설렘으로 다가왔던 다문화 교육을 향한 열정에 방점을 찍게 해 준 이번 수상이 저에게도 큰 영광이었지만 다문화 교육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께 힘과 소통의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

〈오마이뉴스 동시게재〉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부천시청 032-320-3000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부천교육지원청 032-326-2108 부천여성의전화 070-7733-4995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부천고용지원센터 032-320-8900 범죄신고 112 부천원미경찰서 1566-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에보안내 131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한 2020년, 새해엔 더 '다채롭고 알차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한부모가족 위한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 등 운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2020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들과 만나며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다문화가족 인권감수성 향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일상성 속의 인권감수성 향을 위해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을 지난 12월 20일 진행했다.

교육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대상으로 웹엑스를 사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인권개념 및 이해, 인권감수성과 인권감수성 인권문제, 인권감수성 높이는 방법, 활동키트로 비누꽃 바구니 만들기 등이 이뤄졌다.

#이중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코칭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

족 만 5세 이하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업을 10월 1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다.

'이중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자녀와 놀면서 이중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사전 접수해 이뤄졌다.

센터는 또한 다문화가족 만 5세 이하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했다.

부모코칭은 이중언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교육으로 총 5회차 진행됐다. 교육은 1차 2회기 교육으로 5가정씩 총 25가정 대상으로 주 1회 이뤄졌다.

이밖에도 취학 전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을 가정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

원하는 2020년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으로 '아로마테라피'가 진행됐다.

아로마테라피는 10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온라인교육으로 이뤄졌으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다문화가족 예비 초중학생 학부모 교육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줌을 이용해 '다문화가족 예비중학교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중학교 이해하기'로 중학교의 학급 배정,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다른 점, 중학생인 내 아이 이해하기,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진학 ▲'아이의 내일을 위한 부모의 역할'로 내 아이의 꿈을 이해하기, 아이의 꿈과 부모의 역할 등이 이뤄졌다.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은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줌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우리들은 1학년'이란 주제로 ▲초등학생 입학 준비교육 및 생활 준비교육 ▲1학년 일과 및 방과후 특기적성, 초등오후돌봄교실 안내 ▲1학년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과 그 특성에 알맞은 부모 역할 ▲1학년 학습안내(개정교육과정) ▲1학년 원격수업 안내 등이 진행됐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자조모임, 부모교육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인 자조모임과 부모교육을 10월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천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진행했다.

자조모임은 아로마테라피, 뽀빠리로 만들기, 하바플라리움 만들기 등이 진행됐으며 부모교육은 자녀 성교육과 자녀와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한번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이 있다면 새해에는 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김영의 기자



부천시, 저소득층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서비스 집중 접수해요

전기, 이동통신서비스, 도시가스, 지역난방, TV수신료 등 요금 감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부천시는 1월까지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서비스'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해 미신청자에게 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는 기

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소득이 많지 않은 다문화가족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집중 접수 기간 동안 요금감면 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전화, 문자, 우편물 등을 활용해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2021년 1월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자에 따라

지원 한도와 감면 비율이 상이하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는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만 3천5백원 한도에서 기본료는 최대 2만 6천원, 통화료는 50%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등)에게는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 1천5백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 1천원과 통화료 35%를 감면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씩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 1천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요금감면 서비스는 신분증, 요금청구고지서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일괄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생활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감면 서비스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Удивительная Корея. Подарки на праздники 신기한 한국 명절 선물

관심과 사랑, 감사를 명절선물로 전하는 한국인 ... 카카오톡 선물 등 달라진 변화 이해하기



С приближением Нового года у многих появляется насущный вопрос: что же подарить? Как Вы думаете, какие подарки принято дарить в Корее на праздники и какие нет? Об этом, а также о подарках, которые меня удивили и почему, я хочу поделиться в этой статье.

Главные праздники в Корее, когда вся страна щедро делится подарками - это Соллаль(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и Чусок (осенний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Начальник даже небольш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дравить своих сотрудников, поэтому если Вы работаете в Корее, без подарка в Чусок вряд ли останется. И наоборот, если Вы управляете предприятием, самый удачный повод для поощрения сотрудников - поздравить их на Соллаль и Чусок. Во всех магазинах примерно за месяц до этих важных дат появляются специальные подарочные комплекты, в красивых коробках и праздничной упаковке, на любой вкус и кошелек. Обычно это косметика, средства личной гигиены, консервы и еда. Фрукты в праздничной коробке или сладости для нас, мигрантов, вполне привычное и понятное дело, но как Вы посмотрите, если в подарок получите коробку мяса? и причем...сырого мяса?!

Как раз в связи с этим хочу рассказать забавный случай, который произошел со мной в самом начале моего пребывания в Корее. На Чусок мы, как обычно принято у корейцев, всей семьей собрались у свекрови дома и младший брат мужа подарил ей большую коробку сырых говяжьих ребер. Я была мягко сказать удивлена: да, наверное практично и вкусно, но разве это подарок? Еще больше меня удивила искренняя восторженная реакция на подарок всех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надо же, как вся семья хорошо играет роль и скрывает досаду от странного подарка, подумала я. Честно говоря, если бы я получила такой подарок, я бы точно обиделась и, возвращаясь домой, я сказала об этом мужу. Тогда я узнала, что одним из самых дорогих и приятных подарков в Корее считается сырое мясо говядины. В отличие от Узбекистана, где свинина дороже говядины, в Корее цены на говядину в разы выше, чем на другие виды мяса, а на корейскую говядину "хану" и того дороже. Связано это со многими факторами, например, долгое время в Корее корова считалась не столько продуктом питания, сколько орудием труда и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закалывать корову без специаль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от властей было запрещено. И получить мясо говядины считалось и дос их пор считается очень ценным подарком. Поэтому если Вы хотите порадовать корейца, подарите ему коробку хану и Вы не ошибетесь.

Но как по мне,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самым лучшим и безошибочным подарком все же являются деньги. В Корее деньги дарят только на большие торжества: свадьбы, юбилеи, похороны, на ежегодные праздники же принято дарить подарочные купоны - санпумквоны. Это разменные банкноты с различным номиналом от специальных торговых площадок, которые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феры охвата в крупных супермаркетах, онлайн-шоппинге, общепите, кинотеатрах и т.п, одним словом практически везде. Но вполне вероятно, если иностранец получит санпумквон в подарок без объяснения, как его использовать, реакция будет примерно как у меня, когда мне впервые выдали в подарок эти бумажки: удивление, непонимание и даже разочарование. Более того, не зная, что с ними делать, я их хранила какое-то время, и в итоге выбросила. Как потом я узнала, использовать их можно как наличные и, например, расплачиваясь санпумквоном, номинал которого в

ыше, чем сумма покупки, сдачу так и получаешь наличными деньгами. Срок действия санпумквонов всегда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ой, их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 больших супермаркетах, в онлайн-магазинах, кстати часто бывают скидки, если приобретать их онлайн. Но в самом начале я не знала об этом, и хотя сумма неиспользованных санпумквонов была небольшая, мне до сих пор жалко, что пришлось ее выбросить.

Еще один неудачный опыт у меня случился с какао-подарком.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Корее популярно и очень удобно поздравлять друг друга через онлайн приложения. Насколько я знаю, наибольшим спросом в Корее являются какао-подарки. Большой выбор подарков на любой вкус и кошелек одним кликом - очень удобная услуга, согласитесь. Именно так работает какао-приложение. Итак, когда я получила подарок через какао-ток, я также, как и в случае с санпумквоном, не знала, что с ним делать, но наученная горьким опытом, я не стала его выбрасывать, вернее удалить с телефона, а оставила на длительное хранение. Но оказывается у какао-подарков срок не такой большой, как у санпумквонов, и поэтому с первым какао-подарком у меня также случился конфуз - срок действия подарка прошел и я уже не смогла получить его.

На самом деле, оказалось, что использовать и какао подарок тоже очень просто: мне надо было пойти в ближайшую кондитерскую и забрать свой торт. В какао-приложении подарки есть в разной вариации: можно заказать срочные купоны и забрать подарок можно не сразу, а в течени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срока(проверяйте всегда срок!), можно заказать подарок в праздничной упаковке с доставкой на дом и т.п. Одним словом, если Вы ломаете голову, что же подарить, загрузите kakaoTalk на телефон, и в разделе "Сделать подарки"/선물하기 среди огром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предложений выбирайте подходящий подари-

рок. Как бы там ни было, я считаю, что главное не подарок, а внимание. И могу сказать на своем опыте, что корейц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сегда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и радостью принимают любые знаки внимания в виде подарков. Но все же знать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и выборе подарка, думаю, лишним не будет.

Узнавайте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вместе с репорте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по Кёнгидо Еленой Ким.

새해가 다가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합니다. 한국은 명절에 선물을 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낌없이 선물을 나누는 한국의 주요 명절은 설날(구정)과 추석(가을 추수 축제)입니다. 소기업 사장조차도 직원들에게 축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 선물 없이 추석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을 하는 운영자라면 직원들에게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날과 추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날을 대비해 모든 상점은 1달 전부터 다양한 취향에 맞는 특별한 선물 세트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화장품, 개인 위생 케어, 통조림 제품 및 식품 세트 등입니다. 선물 상자에 담긴 과일이나 다과는 이웃민에게 꽤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상자를 선물로 받았다면 어떠세요? 게다가 그것이 생고기라면요?!

한국 입국 초기에 저에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추석 때 한국인의 전통에 따라 우리도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고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큰 갈비한 상자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실용적이고 맛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선물이 될까? 하지만 저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선물에 대한 진지하고 열광적인 반응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온 가족이 이상한 선물에 당황함을 숨기려고 연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06 임금

가. 정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즉 임금은 근로의 가치로 근로의 값(근로시간)과 근로의 질(업무)에 따라 결정된다.

나. 임금지급방법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그 유익한 생계수단의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 통화물 ○ 직급별 ○ 전액불 ○ 정기불(매월 1회 이상)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법령과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임금지급지급의 원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지급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기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 한다. 민법으로 보면 임금도 채권의 일종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임금채권도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 즉, 이론적으로는 임금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자는 사용자에 임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민법상의 권리인 채권자 대위권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의무인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상호 충돌된 경우,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임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추심권 자체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임금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대법원 95다14200)에서도 임금채권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 경우 사용자가 임금채권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라.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아니라 고정적이고 일정한 조건 기준을 정해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한다.

1) 통상임금의 활용 : 해고고수당, 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 휴유가수당 등을 산정할 때 계산의 기초가 된다.

- ① 해고고수당 : 30일분의 통상임금
- ②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 ③ 연차유급휴가 수당 : 평균임금 100% 또는 통상임금 100%
- ④ 출산휴가수당 : 최초 60일분(우선지원기업 아닌 경우 사업주가 지급)
- ⑤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의 40%
- ⑥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 ⑦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 :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60%이치 당시 평균임금으로 하나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

근로관계 상담 Q&A(통상임금)

표준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 209만원(기본급+고정직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매월 그 금액에서 제세공과금 20만원을 공제한 후 189만원의 포괄임금을 받음.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이 20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관련 법규에 의거 시급은 1만원이 되며, 이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 시간급과 수당이 합 한한 포괄산정임금제는 사업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하며 더 나아가 실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그러므로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실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산정하여 임금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청해야 함.

나.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게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1) 3개월간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
기타 급부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판례(대법원 2015두 36157)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조합행 동의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고 판시하였다.

2) 평균임금에서 제외대상
① 산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 (출장비, 정복비, 교재비, 해외근무수당, 작업용품대, 유류대)
② 은혜적인 금품(결혼축하금, 조의금, 생일귀로금)
③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인 금품(주택자금대, 사택제과, 통근차, 학비보조금, 의료비보조금, 가족수당, 할동비, 식비, 경정비 등)
④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부 특정된 조건에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금품

3) 평균임금의 활용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근로자에 대한 재채로서 감금액, 산재보험 급여를 산출하는 기초

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생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가가 결정 그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강제로 규정(제13조 제1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병과가능) 1년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가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기사사용인, 산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 아닌 1년 이내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100을 감한 금액에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금액으로 한다(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 적용 불가함)

1) 최근연도 최저임금액

구분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간급		6,470원	7,530원	8,350원	8,590원
일급		51,760원	60,240원	66,800원	68,720원
월급(주40시간)		1,352,230원	1,573,770원	1,745,150원	1,795,310원
월급(주44시간)		1,462,220원	1,701,780원	1,887,100원	1,941,340원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능률수당, 결혼수당, 체력단련비 등등
-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수당 등등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법 개정(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19년 - 436,287원)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2019년 - 122,160원)

근로관계 상담 Q&A(최저임금)

2019년도에 사업장에서 기본급 165만원, 수습비 20만원 등 총 185만원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2019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 1,745,150원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의 7%인 122,160원을 초과하는 금액 778,400원(200,000원-122,160원)에 사업장에서 책정한 월 급여 1,650,000원을 더하면 1,727,840원이 되는데 이는 2019년도 최저임금(1,745,15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한편 상여금의 경우,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의 25%, 즉 2019년도 월급 1,745,150원을 기준으로 하면 정기상여금의 25%인 436,287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 시 포함됨.

•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각종 수당 포함)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2항). 예컨대,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떠나 식비 미지급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바 위법으로 보아야 한다.

3) 최저임금 위반 상담
표준근로계약서에 나타난 통상임금(기본급+수당)을 확인한 후, 급여명세서에 지급된 기본급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의 만군이 확실하고 기본급과 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명과가능)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한다.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기존의 최저임금법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다. 그동안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를 가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8년 말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일을 포함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단,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만 제외).

금

가. 법적근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나. 적용제외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근로기준법 제2조 8호, 시행령 제9조 1항).

다. 계속근로연수
개근 또는 출근통에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채용당시의 직종이나 입사직 수습직 임용직 등 고용형태에는 상관없이 사실상 최초의 고용일로부터 기산하여 실제 퇴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로한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출.

라. 퇴직금 산정방식 = 계속근로연수(재직일수/365일) × 30일분의 평균임금

마.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

- 1)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확인한다. 급여명세서가 있을 경우 공제 전 급여명세서 기타공과(세비, 식비 등)를 제외한 모든 임금 합산, 급여명세서가 없을 경우 급여명세서에 언급된 금액 합산한다(이 경우 실제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음).
- 2)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산재요양기간 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가기간이 포함될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제하고 병정 인정, 휴가기간 이전의 급여로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8항).

근로관계 상담 Q&A(퇴직금산정)

퇴직 전 약 한 달 동안 본국으로 무급휴가를 다녀옴.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장에서는 차액이 발생되지 않았고 함.

약 본국 휴가가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면 그 휴가기간은 관련 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8항)에 의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됨.

이, 등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함. 사업장에서는 해당 무급 휴가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법정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임. 참고로 휴업기간(본국 휴가기간)은 근무했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3) 계속근로연수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에 포함된다.

4)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에 수렴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금이다. 내법원 역시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부당이득금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수렴한 근로자가 퇴사 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과 직접 상계처리는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퇴직금 포기자의 법적 효력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품이다.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단,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각서)은 한 경우,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최종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20).

다. 임금계산기준 : 2020년도 최저서급 : 8,590원)

일	요일	사업	종업	휴게(식사)	기본(8시간)	총(근로시간)	연장(50%)	야간(50%)	휴일(50%)	임금(계산시간)	임금
1	월	08	19	1	8	10	1			11	94,490
2	-	-	-	-	8	10	1			11	94,490
3	-	-	-	-	8	10	1			11	94,490
4	-	-	-	-	8	10	1			11	94,490
5	-	-	-	-	8	10	1			11	94,490
6	토	08	15	1		6	3			9	77,310
7	일	19	08	1	8	12	2	3.5	6	31.5	270,585
8	월	-	-	-	8	12	2	3.5		17.5	150,325
9	-	-	-	-	8	12	2	3.5		17.5	150,325
10	-	-	-	-	8	12	2	3.5		17.5	150,325
11	-	-	-	-	8	12	2	3.5		17.5	150,325
12	-	-	-	-	8	12	2	3.5		17.5	150,325
13	토									0	0
14	일				8					8	68,720
합계											1,640,690

※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시간은 50%로 계산해서 적용한 시간이다.
임금계산시간(매월액) = 총근로시간(본문4) + 연장, 휴일, 휴업수당시간(본문5) = 임금(매월액)
(단, 일요일은 주휴수당 8시간이 추가됨)
급여(월액) = 주휴수당시간(본문4) + 총근로시간(본문5) + 연장, 야간, 휴일수당시간(본문5) -- 16 + 128 + 20 + 21 + 6 = 191(시간) × 8,590(원) = 1,640,690(원)

기초생활도 못하는 외국인주민, 성탄절과 연말은 어떻게 하나요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와 경기다문화뉴스, 성탄절 산타가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예년보다 산타가 각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대표 송인선)와 경기다문화뉴스(발행인 송하성)는 힘과 지혜를 모아 직접 외국인주민의 산타가 되기로 했다.

평소 이민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민간단체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민자들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글로벌센터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 가정에 쌀 30~40kg과 멸치, 쌀국수, 햇반, 큰 컵라면, 야채 죽, 전복 죽, 쇠고기 죽, 사과, 단감, 초코파이, 천연비누, 치약, 마스크 등을 하나로 성탄 선물세트를 만들어 전달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경기다문화뉴스가 경기글로벌센터에 이주민메뚜기펀드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

송인선 대표는 지난 12월 24일부터 안

산시와 부천시, 동두천시 등에 거주하는 이민자들 자택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있지만 코로나 방역강화로 인해 집 주변에서 연락을 한 후 선물 박스를 문 앞에 두고 되돌아오고 있다.

성탄선물을 받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물품을 집 앞에 두고 사라지는 그를 먼 발치에서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린다.

한편 이번에 성탄선물을 전달받은 이민자들은 모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 1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모국에서 데리고 온 딸과 함께 생활하는 결혼이주여성은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있었으며 8개월 전 남편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별을 당한 결혼이주여성은 어린 자녀 두 명을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었다.

또한 유학생으로 온 이민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안되어 28개월짜리 아기와 함께 최소한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 가정은 통신료 미납으로 전화연락이 안돼 집 주변에 도착한 뒤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으로 이동해 SNS로 연락을 해야만 했다. 그 밖에 자녀가 조현병을 앓

고 있어서 부모들이 간병을 하며 돌보느라 경제활동을 못하는 이민자, 주 3회 신장투석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역시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결혼이주여성 등이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가로 체류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진 뒤 체류기간 연장이 안돼 난민신청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그 사이 아버지는 출입국 당국에 단속이 되어 몇 년 전에 강제출국을 당한 가정도 있다. 지금은 엄마와 두 아들 모두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고 있어 가정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와 경기다문화뉴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발굴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기다문화뉴스가 운영하는 이주민메뚜기펀드는 민간에서 자금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시흥시의 예진산부인과와 이주민 법률상담 전문인 김예진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지원

남부천신희, 경기글로벌센터에 후원물품 전달



코로나 재난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부천시 남부천신희(이사장 조길원)은 국내 거주 이민자들을 돕고 있는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대표 송인선)를 찾아 쌀 500kg과 쌀국수 50박스를 지원했다.

이날 남부천신희 임직원들은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참석해 기관을 둘러보고 마칩 센터를 방문한 이민자들을 만나 타국 생활의 근황을 물어보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특히 남부천신희 조길원 이사장은 “지

금까지 조합원들의 어려움만 알고 작게나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는데 이번에 이민자들의 어려운 소식을 처음 접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에 동행한 남부천신희 양명석 전무는 2021년에도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10거점 운영기관으로써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 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으뜸 기관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글로벌센터는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방과 후 학습센터 운영과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발굴 및 고충 상담으로 이 땅에 이주민 한사람이라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 (2인도/4인가구 기준)

구분	지급급여	구분	지급급여
생계	1,462,887	주거	2,194,331
의료	1,950,516	교육	2,438,145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민, 고소득(연1억, 세천),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한세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혼위기 가족 지원 및 상담, 오산이 잘한다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부 평가 이혼상담 우수기관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위탁 운영 중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지정사업'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지정사업'은 이혼위기 가족의 문제예방과 정책적 지원 및 상담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이혼전후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7월 공모에 지원, 3개월간 지정심사를 거쳐 A,B,C 유형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경기도의 이혼율은 2만 8453건이며, 이중 오산시는 577건으로 2.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오산시는 30대~40대 인구가 2020년 11월 기준 82,235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34.2%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 도시이다. 이에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젊은 가족 구성원의 조기 이혼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가족해체 예방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족상담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번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지정으로, 향후 3년간 이혼전후상담 인증기관에 걸맞는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가족상담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집단상담 등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유도하고 개인 가족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오산시, 청소년 진로진학 멘토링 17일 '청출어람 프로젝트' 진행

오산시는(시장 곽상욱)는 지난 17일 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를 통해 화상을 통한 전문가 멘토와의 만남 '청출어람 멘토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출어람 프로젝트'는 지역에서는 만나기 힘든 직업군의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새로운 진로와 직업을 알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진로와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하고자 계획됐다.

청출어람 멘토링은 사전활동과 전문가 멘토와의 만남, 사후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2020년 청출어람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문가 김승아씨(살롱드수 대표)와 뷰티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연결해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 내 모뎀상담실에서 1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됐다. 멘토링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평소에 쉽게 만날 수 없는 전문가와 직접 만남을 통해 본인의 꿈을 구체화하고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질문을 하며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이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청출어람 프로젝트는 2021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교육부 커리어넷에서 '월격영상진로멘토링'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팀과 연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커리어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연 기자

Maski, если их выбросить не правильно, становятся оружием угрожающим жизни животных! 마스크, 올바르게 버리지 않으면 동물을 위협하는 무기가 됩니다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вторно, если была использована в течение короткого времени в месте с небольшим загрязнением ... Посл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ыбросьте в платный мусорный пакет.

Маска, которая ста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при выходе из дома из-за Corona 19. Однако, поскольку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дноразовых изделий быстро увеличилось, также возникла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по поводу загрязн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Как мне повтор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маску? Мы рассмотрим, как правиль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и выбросить маску.

■ Маски, которые носили в течение короткого времени в местах с небольшим риском заражения, могут повторно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только одним и тем же человеком.

Конечно, большинство масок одноразовые, но повтор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асок может варьиров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и местоположения.

Если используется временно в месте, где существует небольшой риск заражения, то может повторно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только тот же человек.

Для повтор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маски ее необходимо высушить в хорошо проветриваемом помещении. Не используйте повторно, если просушили феном, продезинфицировали спиртом или простирнули.

При снятии после ношения или во время хранения маски лучше использовать шнурок и носить ее в пакете с молнией.

■ Утилизируйте использованную маску в платный пакет для мусора.

С увеличение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масок увеличивается и количество мусора. Как выбросить использованную маску, чтобы защитить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Сначала возьмитесь за ручки для ушей руками и осторожно снимите их, чтобы загрязнения с

поверхности маски не попали вам на руки. Выбирая маску, лучше отрезать ручки. Если их разрезать сложно, сложите маску по горизонтали и вертикали внутрь и дважды обвяжите маску завязками.

Самое важное - выбрасывать все маски из любых материалов нетканые, хлопок и т. д. в платные пакеты для мусора. Срезав ручки и выбросив в платный пакет для мусора можно не волноваться о вреде животным, например привязывание за шнур маски лапы.

Важно помнить, что выбрасывание однажды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маски может не только загрязнить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но также может нанести вред дикой природе и подвергнуть других риску заражения.

Материал Управления Кёнгидо.

〈한글 기사 36면〉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작은 설날’ 동지에는 나쁜 액운을 물리치기 위해 팔죽을 먹는 것이 한국의 전통이다.

요즘에는 먹고 살기 바빠 동지에 팔죽을 챙겨 먹는 한국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이 전통은 여전하다. 2020년에는 12월 21일이 음력 동지였다.

대각사(주지 정호 스님)와 사단법인 나눔과비움 그리고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12월 21일 이웃과 팔죽을 나누며 행복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용인 대각사와 오산 대각사 포교원, 행복한이주민센터, 오산시립 지역아동센터 등이 함께 참여해 오산시청과 오산경찰서, 오산소방서, 오산보건소와 산하시설, 유관기관, 국공립어린이집, 공군작전사령부 등에 동지팔죽을 나눴다.

오색시장 상인들과 시각장애인연합회, 오산노인회, 보훈단체연합회, 이주민노동자와 가족 등에도 팔죽을 배달했다. 이날 대각사 신도와 자원봉사자, 센터 직원 등은 5000인분 팔죽을 포장하고 배달하느라 이른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도 지역사회

회 이곳저곳을 다니며 팔죽을 전달했다.

박대준 나눔과비움 소장은 “팔죽 한그릇한그릇에 코로나 액운을 떨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함께 담았다”며 전통의 아름다운 명절 동지와 팔죽의 의미를 짚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오산지역 동지팔죽 나눔은 오산 대각사포교원에서 시작됐다. 오산역 앞에서 직접 팔죽을 쑤어 시민들에게 나눴고, 2007년에는 행복한이주민센터가 가세했다. 이후 나눔과비움, 복지시설까지 결합해 오산지역 대표 동지나눔 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용기에 담아 팔죽과 함께 나눔의 정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각사 주지 정호스님(불교신문사 사장)은 “전국의 사찰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명절 동지의 의미를 이으면서 아울러 팔죽을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때 따뜻한 동지팔죽 한그릇으로 잠시나마 보람과 행복한 마음을 느끼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자료 불교신문, 정리 송하성 기자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ภัยพิบัติครั้งที่ 3 ของการจ่ายเงินให้กับ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ขนาดเล็กและลูกจ้างที่ทำงานพิเศษ

ตั้งแต่เดือนมกราคมของปีใหม่นี้รัฐบาลจะจ่ายเงินมากถึง 3 ล้านวอนสำห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ภัยพิบัติฉุกเฉินครั้งที่3 ให้กับ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และคนอื่น ๆ ที่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าก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ของการติดเชื้อโคโรนาสายพันธุ์ใหม่ครั้งที่สาม (โคโรนา 19) 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ภัยพิบัตินี้รวมถึ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 Corona 19 เช่น ร้านอาหาร, คาเฟ่, คาราโอเกะ, คนขับแท็กซี่,

พนักงานบริการ, พนักงานพิเศษ และ ฟรีแลนซ์รวมอยู่ในใบสมัคร เมื่อวันที่ 29 ธันวาคมรัฐบาลได้จัดบรรยายสรุป"มาตร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กำหนดเองสำหรับ Corona 19 Third Spread Response" ที่อาคารของรัฐบาลและประกาศมาตรการดังกล่าว

เราตรวจสอ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ภัยพิบัติครั้งที่ 3 ซึ่งคาดว่าจะให้ประโยชน์บางอย่างกับ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

ประการแรกรัฐบาลจ่ายเงินมากถึง 3 ล้านวอนให้กับ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จากการรวมตัวกัน เช่น ร้านอาหาร คาเฟ่ และ สถาบันโรงเรียนสอนพิเศษ เงิน 2 ล้านวอน และ 1 ล้านวอนจะจ่ายให้กับธุรกิจที่ถูกจำกัด กลุ่ม เช่น ร้านอาหาร ร้านกาแฟ และ ธุรกิจความงามและ ธุรกิจทั่วไปอื่น ๆ ตามลำดับ เป้าหมาย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อนัก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ถูกจัดประเภทเป็นธุรกิจที่ต้องห้ามและ ถูกจำกัด ตามหลักเกณฑ์การกักกัน และ นัก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2.8 ล้านรายที่มียอดขายต่อปีน้อยกว่า 400 ล้านวอนในปีนี้เมื่อเทียบกับปีที่แล้ว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ภัยพิบัติครั้งที่ 3 ประกอบด้วยแท็กซี่ส่วนตัว 160,000 คันและสถานบันเทิง 30,000 แห่ง

เงินกู้ค่าเช่ายัง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ใน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 1.9% สำหรับ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รวมที่ต้องห้ามวงเงินกู้ 10 ล้านวอน เงินกู้ที่มี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อยู่ในช่วง 2 - 4% จะถูกส่งไปยั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รวม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กำไรให้เงินอุดหนุนเพื่อการรักษาเสถียรภาพ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สำหรับพนักงานพิเศษและฟรีแลนซ์ด้วยเงินอุดหนุน 500,000 ถึง 1 ล้านวอนต่อคน ตำแหน่งงานพิเศษ ได้แก่ อาจารย์สาขาการเรียนรู้อาจารย์ประจำสถาบันครูสอนพิเศษ

หลังเลิกเรียน, พนักงานขายแบบ door-to-door, ตัวแทนประกัน และสาม ฯลฯ สิ่งนี้ใช้กั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ที่กับ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 ฮวาคาจอง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เพื่อ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จำนวน 500,000 วอนแก่พนักงาน 90,000 คนในการเยี่ยมเยียนและ ดูแลกอง

ทุนรักษาเสถียรภาพรายได้ 500,000 วอนจ่ายให้คนขับรถแท็กซี่องค์กร 80,000 คน 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ปิดกิจการไปแล้วจะได้รับแรงจูงใจ 500,000 วอนสำหรับการลองร้านค้าที่ปิดไปแล้วอีกครั้งรวมถึ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เริ่มต้นการค้าใหม่ได้ถึง 10 ล้านวอน

รัฐบาลยังตัดสินใจที่จะขยาย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สวัสดิการฉุกเฉินรายเดือนจำนวน 1.27 ล้านวอน ให้กับครอบครัวที่มีรายได้น้อยที่มี

รายได้เฉลี่ย 75% หรือ น้อยกว่าจนถึงไตรมาสแรกของปีหน้า กองทุนช่วยเหลือภัยพิบัติ ครั้งที่ 3 จะจ่ายให้ตั้งแต่วันที่ 11 หลังจากได้รับใบสมัครออนไลน์หลังจากส่งข้อความไปยังบุคคลเป้าหมายใน วันที่ 6 มกราคม

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 Lee Jae-myong ผู้ว่า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 Gyeonggi ได้เรียกร้องให้รัฐบาลจ่ายเงิน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ภัยพิบัติ

ฉุกเฉินที่สามเป็น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ที่ผันผวน ผู้ว่าการ Lee กล่าวว่า " Gyeonggi-do กำลังทบทวนมาตรการเพื่อสนับสนุนเงินท้องถิ่นสำหรับผู้อยู่อาศัยทุกคน แต่ปัญหาทางการเงินถือเป็นปัญหาสำคัญ" <한글 기사 30면>

코로나 슬기롭게, 청춘남녀의 '랜선만남'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랑애(愛) 롤러코스터'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12일 청춘남녀의 랜선만남 '사랑애(愛) 롤러코스터'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했다.

각 가정 내 온라인 랜선 만남으로 진행된 '사랑애(愛) 롤러코스터'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만혼, 비혼 등 결혼 기피 분위기를 개선하고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관내 거주 또는 관내 직장을 다니는 미혼 남녀에게 건강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이성과의 폭넓은 교류 기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을 다니는 미혼 직장인 40명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운영돼 좋은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인연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남녀를 위한 랜선 만남 프로젝트인 '사랑애(愛) 롤러코스터'는 미혼남녀의 건강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이성 간의 폭넓은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게임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랜선으로 진행되는 사랑의 짝대기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만남을 갖기 어려운 시기에 센터에서 나서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 좋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영의 기자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8일 2020년 사업에 참여한 시민, 봉사자, 사업 관계자에게 선물을 나누고 센터의 연간 행사를 안내하는 '2020 해피투게더 가족 나눔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나눔의 날 행사는 다문화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고 파주시 관내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 가족에게 사회 관심도를 높이고, 파주시 다문화 정책의 전달체계 및 서비스 지원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나눔의 날 행사에서는 센터 리플렛과 소식지를 500부를 제작해 배부했으며, 센터 사업보고 동영상을 센터 게시판에 게시했다. 또한, 파주시 관내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및 일반 시민 350명에게는 코로나19를 슬기롭고 따뜻하게 이겨

낼 수 있도록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방역키트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건강가정 관련 사업에 기여한 공이 크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며,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한 직원 및 파주시민 그리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2020 해피투게더 가족 나눔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2020년도 사업을 되돌아보며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행사였다.

센터 관계자는 "이제 다가오는 2021년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기찬 미래와 함께 앞으로도 파주시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등 "다문화가족도 신청하세요"



파주시가 복지대상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 신청 활성화에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등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미감면자들을 위해서다.

요금감면 규모는 대상자마다 차이가 있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 6,000원과 통화료 50%,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 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기준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각 35%,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 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 각 50% 감면할 수 있다. 이동통신비 외에도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요금감면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정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다문화가족이 많이 일하는 특수고용직에도 1인당 50만~100만원 지원한다



정부가 새해 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카페, 노래방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2월 29일 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다문화가족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이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부는 우선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식당과 카페, 미용업 등 집합제한업종과 그 밖의 일반업종에는 각각 200만원,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다. 이번 3차 재난지원에는 개인택시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곳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는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용자자금이 공급된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된다. 특수고용직은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방과 후 교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통번역가 등 다문화가족이 많이 일하는 업종이 해당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월 127만원의 긴급복지지원금도 2021년 1분기까지 연장해 지급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월 6일 대상자를 상대로 문자메시지 발송 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일부터 지급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모든 도민 지역화폐지원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크다"며 정부가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현금이 아니라 소멸성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 지급하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어 13면, 베트남어 13면, 러시아어 37면, 일본어 8면, 태국어 29면> 김지연 기자

1. 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คืออะไร?

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 คือ ค่าไฟ ค่าแก๊ส ฯลฯ ที่เราใช้ที่บ้าน... 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 คือ ค่าไฟ ค่าแก๊ส ฯลฯ ที่เราใช้ที่บ้าน... 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 คือ ค่าไฟ ค่าแก๊ส ฯลฯ ที่เราใช้ที่บ้าน...

1. 公과금이란?

公과금이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등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을 본인이 한 달 동안 쓴 만큼 냅니다.

ตัวอย่างครอบครัวหลากหลาย درآمد

ฉันต้องย้ายบ้านก็เลยขอเงินค่ามัดจำคืนจากเจ้าของบ้าน แต่เจ้าของบ้านหักค่าน้ำ ค่าไฟ ค่าแก๊ส ที่ฉันค้างชำระ ประมาณ 1 ล้านวอน และคืนเงินมัดจำส่วนที่เหลือให้ ฉันคิดว่า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เหล่านี้รวมอยู่กับค่าเช่าบ้านแต่ละเดือนอยู่แล้ว แต่ปรากฏว่าที่ผ่านมามีเงินไม่ได้รับในแจ้ง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เพราะที่อยู่ไม่ถูกต้อง

2. การจ่าย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ทำได้ อย่างไร?

(1) จ่ายผ่านเครื่องชำระ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ที่ธนาคาร... วิธีการที่เอามาแจ้ง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ไปจ่ายผ่านเครื่องชำระเงินอัตโนมัติที่ธนาคาร...

2. 公과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1) 은행의 공과금 자동수납기로 납부하기... 공과금 청구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공과금 자동수납기로 돈을 내는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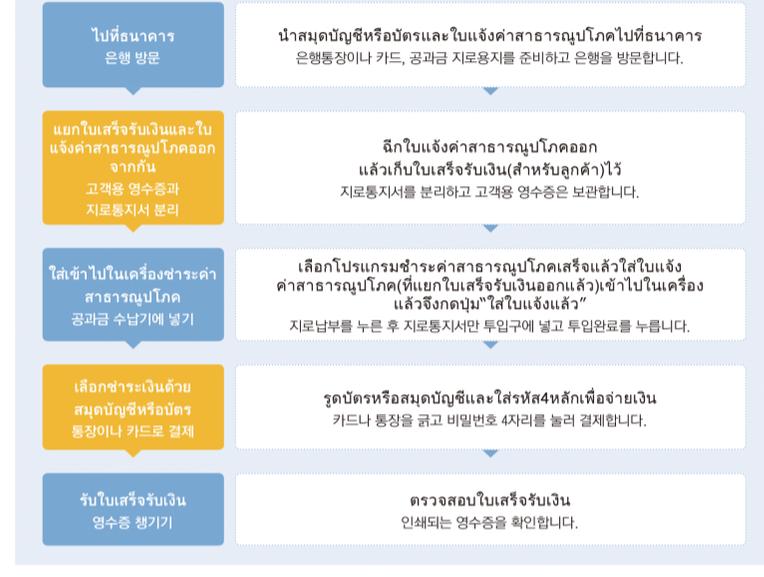
เครื่องชำระ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อัตโนมัติ



หน้าจอเครื่องชำระ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อัตโนมัติ



วิธีชำระเงินผ่านเครื่องชำระ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อัตโนมั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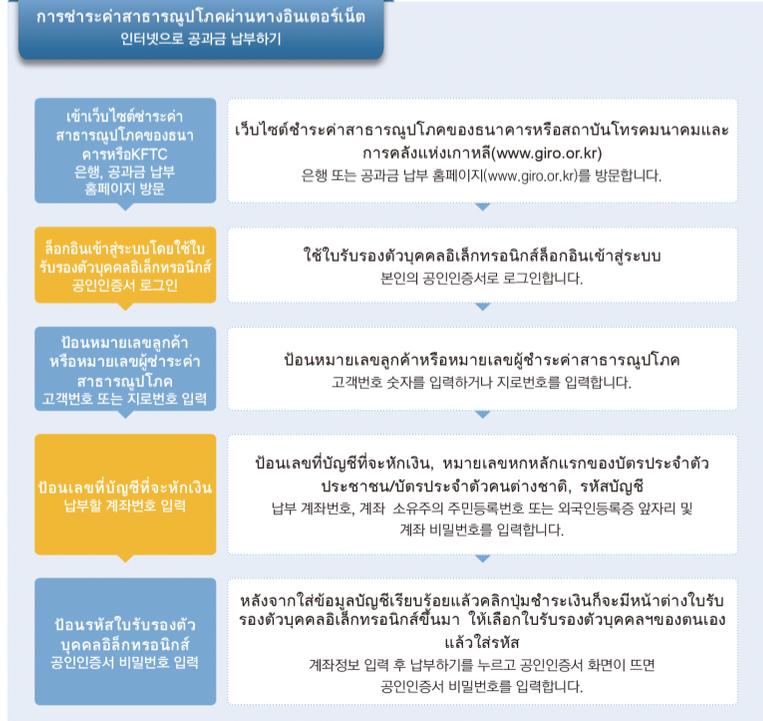


(2) การจ่ายผ่านอินเทอร์เน็ต

กรณีที่ไม่มีเวลาไปธนาคารก็สามารถชำระเงินได้อย่างง่ายดายผ่านบริการออนไลน์... กรณีที่ไม่มีเวลาไปธนาคารก็สามารถชำระเงินได้อย่างง่ายดายผ่านบริการออนไลน์...

(2) 인터넷 납부

은행에 갈 시간이 없는 경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공과금을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과금을 클릭하면 종류별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จอภาพการชำระ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ผ่านโมบาย



(3) การตั้งหักบัญชีอัตโนมัติ

การจ่าย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โดยวิธีส่งจ่ายอัตโนมัติ หมายถึง การตั้งค่าให้ระบบหัก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ออกจากบัญชีอัตโนมัติตามวันที่กำหนด...

(3) 자동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납부방법은 매달 내 통장에서 공과금이 자동으로 정해진 날짜에 빠져 나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4) 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 ณ ที่ทำการไปรษณีย์

กรณีที่ไม่มีบัญชีธนาคารหรือไม่แน่ใจว่าจะจ่ายค่าสาธารณูปโภคได้อย่างไรก็สามารถจ่ายได้ง่ายๆที่ไปรษณีย์ใกล้บ้าน...

(4) 우체국 납부

은행에 통장이 없거나 납부 방법을 잘 모를 때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99. 한류

대화-병원에서

메이 : 조이야, 지금 TV에 방탄소년단이 나왔어.

조이 : 진짜야? 금방 갈게.

준기 : 조이도 방탄소년단 좋아해?

조이 :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방탄소년단이 최고 인기예요.

메이 : 맞아요. 아파트 모임에 가도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준기 : 정말 요즘 방탄이 대세이긴 하구나. 요즘 미국 빌보드에서 1위도 하더니 놀라워.

준기 : 한국 가수가 빌보드 1위를 하고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한류의 인기가 대단해.

메이 : 한국 가수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도 인기가 많아요.

저는 어릴 때 엄마랑 <대장금>을 보고 처음 한국을 알게 되었어요.

조이 :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나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같은 드라마도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메이 : 예전부터 한류는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준기 : 한국이 문화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 첨단산업과 미용, 의학,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

조이 : 요즘 고향에 제 친구들도 한국 제품이 좋다고 연락이 많이 와요.

준기 : 친구들이 어떤 걸 좋아해?

조이 : 일단 화장품은 제일 좋아하고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 싶어 해요.

메이 : 한국으로 여행 오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준기 : 정말이야? 앞으로 한국이 더욱 발전해서 좋은 문화를 많이 알리면 좋겠네.

메이 : 요즘은 외국에서도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도 실시간으로 봐요.



안진숙

해설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실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온 '한류'는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부터 시작하여 외국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문화산업을 말합니다. 이제 한류는 패션, 화장품, 음식, 관광, 무술, 산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국가의 전반적인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는 문화적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의 표현 - 한류

좁게는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부터 시작하여 넓게는 패션, 화장품, 음식, 관광, 무술, 산업 등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전반적인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는 문화적 현상

■ BTS는 제가 좋아하는 최고의 한류 스타예요.

최근 한류 덕분에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 시작된 한류가 한국의 산업과 국가 이미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 대장금

2003년에서 2004년까지 방송된 대장금은 한류 붐을 이끌어낸 드라마입니다. 조선시대의 궁녀 '서장금'이 의녀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장금의 사랑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로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한국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면서 한류를 알린 대표적인 역사 드라마입니다.

영국 글로스터시의 뜻깊은 연하장

파주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직접 방문교류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우호도시 영국 글로스터시로부터 뜻깊은 연하장이 배달됐다고 밝혔다.

이 연하장은 영국 글로스터시 시장(Kate Haigh)과 시의원들이 보내온 것이다. 코로나19로 숨 가쁘게 달려온 2020년 한해의 끝자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2021년과 더 나은 새해를 기원 한다는 평범한 내용의 연하장이지만 그 속에서 우정과 격려 등 수많은 따뜻한 언어로 표현된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900~1000여 명대를 오르내리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 파주시는 '글로스터시의 코로나19 극복에 파주시가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글로스터시에 방역복 세트 1,000벌을 보냈고 글로스터시 노인요양원 의료진에게 보급됐다. 이에 글로스터시는 진실한 우정에 감동했다며 감사 서한문을 파주시에 보내왔으며 글로스터시주 지지사와 글로스터시주 명예 협회장도 함께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또한, 지난 10월 임진강전투 추모 헌화식에서는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가 최종환 시장에게 파주시의 글로스터시 방역복 지원에 대해 직접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최종환 파주시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6.25 때 목숨을 바친 영국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보은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한국전 참전 장병들에게 오히려 감사를 드린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위로하며 응원하는 자매도시 간 교류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파주시와 글로스터시의 이 우정 이야기는 국내 방송과 신문은 물론 영국에서도 BBC 국영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 또한, 개인 유튜브 방송과 SNS 등에서도 수십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퍼져 나갔다.

파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코로나로 힘든 중국 자매도시인 무단장시에 파주시 특산품인 홍삼원액을 확진자와 의료진 건강 격려차 보낸 바 있다.

중국의 또 다른 자매도시인 진저우시에서는 지난 3월 우리나라가 마스크 부족으로 한창 어려울 때 파주시에 마스크 1만장을 지원해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해 주는 자매·교류도시 간 우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고 나아가 자매, 교류도시의 발전에 서로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직접 방문이 어렵지만, 화상회의, 온라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직접 방문교류를 추진하겠다"라며 자매, 교류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의지를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중국, 일본, 호주 등 해외 8개국 10개 자매도시 및 2개국 3개 교류(우호)도시와 교류 중이며 국내에는 광양시, 강남구, 광주동구청, 강릉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경의중앙선 '야당역' 급행열차 선다

파주시는 오는 1월 5일부터 경의중앙선 야당역에서도 급행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운정신도시의 수송수요 및 역세권 변화를 반영해 야당역 급행열차 정차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급행열차는 야당역에서 문산~서울 간 16회, 문산~용산 간 8회, 총 24회 정차하며 운정역에서 기존 문산~용산 간 4회에서 4회가 추가

돼 총 8회 정차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야당역의 급행열차 정차와 운정역의 급행열차 증회로 서울로의 출퇴근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배차 간격 단축 및 급행열차 증회 등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코로나 시대, 서로에게 희망과 위로가 된 '2020사업보고회'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튜브 통해 '사업보고회와 가족골든벨' 진행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지난 12월 19일 오전 유튜브를 통해 '2020사업보고회와 가족골든벨'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군포의 다양한 가족들과 센터가 진행한 행사를 돌아보고 더욱 발전된 2021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희 센터장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족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센터가 다양한 가족들을 위해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2021년에도

좋은 부모됨과 가족사랑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격려사에서 "군포시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지친 분들이 많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면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행사가 서로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건강한 가정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비전을 갖고 다양한 가족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센터에 감사한다"며 "군포시가 가

족이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센터에 격려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진 사업보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 현황, 방문교육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소통프로그램, 다양한가족 이해교육 등 한해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수기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센터 이용자 김미희 씨는 "가족 중심

센터 프로그램에 감동을 받았다"며 "특히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남편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육아 참여자가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가족골든벨은 '아이러브군포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50가족이 참여해 군포 지역사회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로 구성된 골든벨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시대에 군포의 다양한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2021년을 즐겁게 준비한 행사로 마무리됐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에게도 유용한 취업서비스 제공할 군포고용복지센터 업무 개시

고용노동부와 군포시 협업 운영 ... 취업·복지지원 등 고용복지 종합서비스 제공



취업지원과 구직급여, 복지관련 상담 등을 하게 될 군포고용복지센터가 12월 21일 문을 열었다.

군포시는 군포고용복지센터가 12월 21일 군포새마을금고 본점(군포로 522) 5층에 마련된 센터 사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구인자·구직자 취업 지원, 구직급여, 복지상담 등 고용·복지와 관련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연

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직촉진수당 등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군포고용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인력 지원과 군포시의 재정 지원 등, 군포시와 고용노동부의 협업방식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8명과 군포시 직원 3명 등 11명의 인력으로 출범하며, 2021년에는 인력이 22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에 적합한 지

역밀착형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의 협업 방식으로 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한다"며, "구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들은 먼저 한국어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급 한국어를 구사해야 취업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031-390-05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연 기자



다문화 카페 레인보우 수익으로 이웃 돕는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포시에 500만원 기탁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500만원을 지난 12월 28일 군포시에 기탁했다.

후원금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레인보우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이번 후원은 전국에 산재한 상당수 다문화가족 카페가 수익 창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포의 레인보우카페가 앞선 운영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 카페는 결혼이민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문화 카페로 다문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앞장서면서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경험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카페 수익금을 지역사회 내 취약

계층을 위해 군포시를 통해 공동모금회로 기부하기로 했다.

박성희 센터장은 “이번 후원이 결혼이민자들이 서비스 수혜자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자로 전환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대희 시장은 “이번 후원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군포시를 위한 의미있는 기부”라며, 센터 관계자들과 카페운영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복지 후원금품 기탁 등으로 이웃돕기 실천에 동참하길 희망하는 시민은 군포시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연 기자

군포시와 군포지역서점연합회,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협약

군포시중앙도서관은 최근 군포지역서점연합회와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란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새 책을 동네서점에서 바로 신청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가능 서점은 자유문고(산본천로 62), 산본문고(광정로 70), 열린문고(군포로 464번길 2), 명문서점(산본천로 193)이다.

이들 서점에서 시민들은 원하는 책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 5만원 이상의 고가도서, 정기간행물, 교과서, 수험서, 만화 등은 제외된다.

중앙도서관 이남구 관장은 “시민들이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바로 빌려봄으로써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서점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은 2021년 2월부터 「희망도서 바로대출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5월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다문화가족은 자녀들이 독서를 잘 할 수 있도록 군포시의 바로대출서비스를 이용해 볼 만 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중앙도서관(031-390-887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연 기자

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ระบบการศึกษาของเกาหลีที่ชาวต่างชาติต้องรู้ในปี 2021

고교 무상 교육 등 2021년 외국인주민이 알아두면 좋은 한국의 교육제도 변화 4가지

ในปี 2021 ระบบการศึกษาของเกาหลีจะมี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หลายอย่าง ตรวจสอบ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ในระบบการศึกษาของเกาหลี

ที่ชาวต่างชาติควรทราบ

◆การศึกษาในระดับมัธยมศึกษาตอนปลายฟรี กระทรวงศึกษาธิการจะขยายและดำเนินการศึกษาระดับมัธยมศึกษาตอนปลายฟรีสำหรับนักเรียนระดับประถมศึกษาปีที่ 2 และ 3 ในโรงเรียนมัธยมปลายในปี 2564 การละค่าเล่าเรียนต่อปีประมาณ 1.6 ล้านบาท ต่อ 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ปลาย เช่น ค่าเข้าชมค่าเล่าเรียน ,ค่าสนับสนุน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ของโรงเรียน และ ค่าหนังสือเรียนจะลดลง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โรงเรียนเอกชนที่มี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แรกเข้า และ ค่าเล่าเรียนจะถูกกำหนดโดยครูใหญ่

◆เพิ่มระดับ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ผลประโยชน์ทางการศึกษา จำนวนเงินสนับสนุนผลประโยชน์ด้านการศึกษา (ค่าใช้จ่า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ศึกษา ฯลฯ) สำหรับนักเรียนจากครัวเรือนที่มีรายได้

น้อยก็จะเพิ่มขึ้นเช่นกัน หนังสือเรียนและ อุปกรณ์การเรียนในครัวเรือนที่มีอยู่จะรวมอยู่ในค่าใช้จ่ายสนับสนุน

กิจกรรมการศึกษา และ 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 286,000 วอน สำหรับนักเรียนระดับประถมศึกษา 376,000 วอน สำหรับ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ต้น และ 448,000 วอน สำหรับ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ปลายเพิ่มขึ้นเฉลี่ย 24% จากปีก่อน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บริการดูแลเด็กที่เพิ่มขึ้น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ภาครัฐจะขยายออกไปเพื่อบรรเทาภาระค่าใช้จ่าย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ที่ใช้บริการดูแลเด็กจนถึงปัจจุบัน ครอบครัวที่

ใช้บริการนอกเวลา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รัฐบาลมากถึง 720 ชั่วโมงต่อปี แต่ในอนาคตพวกเขาจะ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รัฐ

บาลนานถึง 840 ชั่วโมงต่อปี อัตราส่วน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รัฐบาลต่อค่าบริการยังขยายเป็น 80 → 85% สำหรับครัวเรือนที่ใช่

เต็มวัน (รายได้เฉลี่ย 75% หรือน้อยกว่า) และ 55 → 60% สำหรับครัวเรือนที่มีบุตรนอกเวลา (รายได้เฉลี่ย

น้อยกว่า 120%) แต่ละครัวเรือนจ่ายเอง 5% นอกจากนี้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ลุ่มเสี่ยงที่มีรายได้ต่ำ (ต่ำกว่า 75% ของรายได้ปานกลาง) ได้รับการเสริม

สร้างเพื่อให้ครอบครัวพ่อแม่เลี้ยงเดี่ยวพ่อแม่พิการ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เด็กพิการได้รับค่าบริการสูงถึง 90%

◆เพิ่มตำแหน่งของครูผู้ช่วยและครูดูแลเด็กที่ขยายออก เพื่อปรับปรุงสภาพ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ครูผู้ดูแลเด็ก เช่น การลดภาระ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ครูผู้ดูแลเด็ก และ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ชั่วโมงพักจะมี

การขยายตำแหน่งของครูผู้ดูแลเด็กที่ได้รับเงินอุดหนุนและขยายเวลาออกไป ครูผู้ช่วย 28,000 คน และ ครูผู้ดูแลเด็ก 30,000 คนเพิ่มขึ้น 6,000 คนเมื่อเทียบกับปีก่อนหน้า ดังนั้นหากจำนวนพนักงานช่วยเหลือเพิ่มขึ้นอย่างมากในศูนย์รับเลี้ยงเด็กหลาย

แห่งเด็ก ๆ จะได้รับบริการดูแลเด็กที่ดีขึ้นและจิตใจของผู้ปกคร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จะสบายขึ้น

<한글 기사 1면>

이아리 기자

Отправка посылок из Кореи в Россию 한국에서 해외로 택배 보낼 때

빠르고 편리한 우체국 EMS제도, 고향 방문 못하는 이주민에 택배 발송은 또 다른 즐거움



중량(kg)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0.5	23,000	32,000	29,000	23,500	26,000	30,500	22,500	19,000	23,500	17,500	23,500	18,500	32,500
0.75	26,000	35,000	31,000	25,000	28,000	33,000	23,500	20,000	24,500	19,000	26,000	19,500	35,500
1	29,000	38,000	33,000	26,500	29,500	35,000	24,500	21,000	25,500	20,500	28,000	20,500	38,500
1.25	32,000	41,000	35,000	28,000	31,500	37,000	25,500	22,500	27,500	22,000	30,500	21,500	41,500
1.5	35,000	44,500	37,000	30,000	33,000	39,000	26,500	23,500	28,500	23,500	32,500	23,000	44,500
1.75	38,500	47,500	39,500	31,500	35,000	41,000	27,500	24,500	31,000	25,000	35,000	24,000	48,000
2	41,500	50,500	41,500	32,500	36,500	43,500	28,500	25,500	33,000	26,500	37,500	25,000	51,000
2.5	46,500	56,500	45,500	34,000	40,000	47,000	30,000	27,500	34,500	29,000	41,500	26,500	56,000
3	51,000	62,000	49,000	35,500	43,000	50,500	31,500	30,000	36,500	31,500	45,500	28,500	60,500
3.5	56,000	68,000	53,000	37,000	46,500	54,000	33,000	32,000	38,000	34,000	50,000	30,000	65,500
4	60,500	74,000	57,000	39,000	50,000	58,000	34,500	34,000	40,000	36,500	54,000	32,000	70,500
4.5	65,500	79,500	60,500	40,500	53,000	61,500	35,500	36,000	41,500	39,000	58,500	33,500	75,500
5	70,000	87,500	64,500	42,000	56,500	65,000	37,000	38,000	43,000	41,500	62,500	35,500	80,500

В условиях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отправиться в путешествие на Родину весьма затруднительно. Поэтому остается лишь радовать с воих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людей частыми посылками. Но оказывается не многие знают об основных расценках на корейской почте и требованиях к содержимому и упаковке почтовых отправлений.

В статье будет идти речь про экспресс-доставку EMS, которая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ри отправке малогабаритных посылок за счет высокой скорости отправления и доставки лично до получателя.

Расценка на доставку приведена в таблице. Так как имеется базовая стоимость на отправление, то иногда выгоднее отправлять, например, более тяжелую посылку.

Так как статья направлена на русскоязычных читателей, то в таблице приведена расценка на отправление из Кореи в Россию. С расценками при отправке посылок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корейской почты <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2.postal>.

Возможно, список запрещенных к отправке предметов примерно одинаковых во всех странах. Но раз мы отправляем посылку из Кореи, то я думаю многим стоит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ребованиями к содержимому. Во-первых, это различные аккумуля

торы, батарейки и предметы, содержащие их. Во-вторых это аэрозоли и спреи, например духи. В-третьих, это легковоспламеняющиеся жидкости. Также могут быть под запретом сильнодействующие лекарства, споры, бактерии и т.д. Начиная с января месяца, когда даже в Корею купить маски было большой трудностью, их отправка была запрещена.

Однако с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этот запрет был снят. Оказывается, не многие знают об этом и до сих пор не решаются отправить даже мин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редств защиты.

С полным списком запрещенных к отправке предметов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корейской почты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В этом году, из-за невозможности посетить Россию я стараюсь как можно чаще отправлять посылки своей семье. И если вы не знаете, что можно отправить, то я могу дать вам небольшой список рекомендаций, что же понравится человеку из России. Во-первых, это корейская косметика, от которой любая женщина будет просто в восторге.

Следующее - это еда, а именно настоящие корейские рамен и снеки. В Корею существуют целые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е туры, поэтому раз нельзя привезти семью в Корею, то можно дать им возможность окунуться

в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попробов популярными печеньки, заварную лапшу и консервы. Ну и последнее - это, конечно же, корейский женьшень, который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е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Я надеюсь моя статья поможет вам разобраться в корейской почтовой системе и поделиться частичкой Кореи со своими близким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인주민은 고향집에 방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 물건을 보내 가족과 친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많은 이주민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우체국 기본요금과 우편물의 내용물 및 포장 요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수취인에게 직접 소형 택배를 보낼 때 매우 인기있는 한국의 속달 EM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송비는 오른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배송 당 기본비용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무거운 소포를 보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러시아로 물건을 보내는 가격을 보여줍니다.

배송비는 한국 우체국 홈페이지(ems.epo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지 품목 목록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소포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들은 이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다양한 충전식 배터리 및 이를 포함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둘째,

향수와 같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입니다. 셋째, 가연성 액체입니다. 강력한 약물, 박테리아 등도 금지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배송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구매가 매우 어려웠던 1월부터 출하가 금지됐는데 최근에 해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보호 장비도 보낼 수 있습니다. 금지 품목 전체 목록은 한국 우체국 웹 사이트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를 방문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주 가족에게 소포를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물건 어떻게 있을까요?

첫째, 한국 화장품은 어떤 러시아 여성이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 즉 진짜 한국라면과 과자입니다. 한국의 음식 투어는 대부분의 외국인주민이 좋아할 콘텐츠이지만 가족을 한국에 데려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국 문화에 빠져들 수 있도록 음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한국 과자, 용기 라면, 통조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물론 고려인삼인데,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 좋은 품목이 될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주민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국의 일부를 공유하고 또 한국의 우편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광명 다양한 가족의 욕구 파악해 더 나은 가족서비스 제공해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시 가족정책 방향과 가족센터의 역할’ 포럼

광명의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생활에서 자녀양육(59명, 34.1%)과 경제적인 어려움(33명, 19.1%)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점은 언어문제(31명, 17.9%), 외로움(20명, 11.6%), 가족갈등(10명, 5.8%)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지난 16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가족정책 방향과 가족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2020년 가족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됐으며, 광명시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센터가 최근 실시한 ‘다문

화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와 ‘광명시 가족 다양성 인식 조사’를 통해 광명시 가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가족센터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마련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시대 이후 가족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새로운 가족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임무자 센터장은 “광명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족지원사업을 계획하고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광명시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동행하는 가족센터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인혜 센터 총괄팀장의 ‘다문화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와

가족 다양성 인식 조사 결과보고’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는 모국의 친구나 친척 등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논하는 사람은 모국인(79명, 44.1%), 한국인(41명, 22.9%) 순서로 나타났으며 일자리와 관련해 의논하는 사람도 모국인(63명, 35.4%), 한국인(58명, 32.6%) 등으로 모국인에게 더 의지했다.

특히 여가와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도 모국인(78명, 43.6%)이 한국인(38명, 21.2%) 보다 많았다.

다만 자녀교육과 관련해 의논하는 사람은 한국인(79명, 44.5%)이 모국인(67명, 37.6%) 보다 많았다. 이후 양정선 (재)경

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이 ‘경기도 및 광명시 가족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김영순 인하대학교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봉화 서울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이주희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은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진선임 광명시민 대표, 박상기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광명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가족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봄으로써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가족센터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지연 기자



마스크, 올바르게 버리지 않으면 동물을 위협하는 무기가 됩니다!

오염 적은 곳에서 잠깐 썼다면 재사용 가능...사용 후에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시 필수품이 된 마스크. 하지만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마스크는 어떻게 재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마스크를 잘 사용

하고 잘 버리는 법에 대해 살펴봤다.

■ 오염 우려 적은 곳에서 잠깐 쓴 마스크는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 가능
물론 대부분의 마스크는 1회용이지만 마스크 재사용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염의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마스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건조해야 한다. 헤어 드라이기로 건조하거나 알코올 소독, 또는 세탁을 한 경우에는 재사용해선 안 된다.

특히 마스크를 쓰거나 벗어 보관할 때에도 끈을 이용하고, 지퍼백 등에 넣

어 다니는 것이 재사용에 유리하다.

■ 다 쓴 마스크는 꼭 종량제 봉투에 버리세요

마스크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쓰레기의 양도 늘어나고 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다 쓴 마스크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

먼저 마스크 겉면의 오염물질이 손에 묻지 않도록 귀에 거는 끈을 손으로 잡고 조심스럽게 벗는다. 마스크를 버릴 때에는 귀걸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다.

만일 귀걸이를 자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가로세로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돌돌 두 번 말아 묶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직포, 면 등 재

질과 상관없이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다. 마스크 귀걸이를 자르는 것도 야생동물이 마스크 끈에 다리가 묶이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인데, 종량제 봉투에 제대로 버린다면 이러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한번 사용한 마스크를 아무렇게나 버리면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다문화가족들도 환경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겠다.

(중국어 47면, 러시아어 28면, 일본어 5면)

자료 경기도청

"온라인 한국어교육, 2021년에 '더!' 새롭게 도전해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 한국어교육 하반기 수료식



성적우수상 등을 시상한 뒤 12월 7일 열린 '백일장, 예쁜 글씨 뽑내기 대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임무자 센터장은 "예전에는 센터에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지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아쉬웠다"라며 "1년 동안 열심히 한 학생들과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어교육 유선희 강사는 "같이 만나서 공부해야 재미있는데 코로나로 센터에서 함께 공부하지 못해 아쉽다. 인터넷으로 열심히 공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국어교육 2단계 강지는 강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임에도 열심히 공부해주어 즐거웠다. 한국어를 배워 한국 생활에 즐겁게 적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어교육 개근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1단계 응웬티김응안, 2단계 곽옥평, 레전바오짬, 류샤오위, 쩌도응옥프엉 씨에게 주어졌다. 응웬상은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해 한국어 실력이 쑥쑥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

는 학생들에게 시상됐다. 1단계 허희진, 짬티미히엔 씨 등이 수상했으며 2단계 츠영예우린, 쩡자오양 씨가 받았다.

각 반에서 1등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적우수상은 1단계 까오티지엠미, 2단계 곽옥평과 류샤오위 씨에게 돌아갔다.

곽옥평 씨는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 선생님들이 아낌없이 가르쳐주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예쁜 글씨 뽑내기 대회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 응웬티김땀, 우수상 하응우엔탄반, 장려상 쩌이뻘 씨 등이 수상했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작은 핸드폰으로, 아기를 챙기며 수업을 끝까지 참여해 주신 수강생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유근식 도의원, 주선행 작은도서관에 도서 기증



광명시민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520권의 도서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광명시 내 45개 작은도서관에 기증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의 주선으로 지난 12월 24일 개최된 '경기중앙교육도서관-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장 도서 광명 작은도서관협의회 기증식'에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이 소장 중인 도서 중 총 520권의 도서를 유근식 의원과 함께 광명시 작은도서관협의회에 전달했다.

김영의 기자

Третья выплата пособий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лица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 специальным работникам

С января нового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о выплатит третье пособие мал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и другим лицам,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третьей волны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Corona 19), в размере до 3млн. вон.

Данное пособие предназначено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Corona 19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а именно владельцам кафетерий и караоке, а так же водителям такси, ухаживаемому персоналу, специальным сотрудникам и фрилансерам и т.д.

В з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29 декабр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ело брифинг на тему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третьей вспышк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rona 19» на котором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следующих мерах.

Рассмотрим 3-е пособие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которое, как ожидается, получат 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е семьи.

Во-перв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платит до 3млн. вон мал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ых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согласно запрету на скапливан

ие людей, таким как караоке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Предприятия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 доступом, таким как рестораны, кафе и салоны красоты, а также другим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выплатят по 2 и 1млн вон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собия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ых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или ограниче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авилами карантина, это 2,8млн.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годовой доход которых уменьш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и составляет менее 400млн. вон. Данное 3е пособие так же получают 160.000 частных таксистов и 30.000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й.

Также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ены ссуды на аренду по ставке 1,9% для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ых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Лимит кредита составляет 10млн. вон. Ссуды с процентной ставкой в диапазоне от 2 до 4%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траслям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Пособия для стабилизации занятости в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такж

е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специальным сотрудникам и фрилансерам в размере от 500.000 до 1млн.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Особые должности - это такие должности как преподавателя на дому,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кружков, продавцы с выездом, страховые агенты и переводчики,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которых часто работа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особие на проживание в размере 500.000 вон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90.000 служащим, оказывающим услуги по уходу с выездом. Пособие для стабилизации доходов в размере 500.000 вон выплачивается 80.000 водителям корпоративных такси.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которые уже закрыли свой бизнес,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ены льготы в размере 500.000 вон для повторного открытия заведения, а также пособие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бизнеса в размере до 10млн. вон.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также было решено продлить до первого квартала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ежемесячное экстре

нное пособие в размере 1,27млн вон семьям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до 75% от среднего заработка).

С 6 января лицам которым положено пособие будет отправлено сообщение, после чего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заявления на третье пособие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а выплаты начнутся с 11-го числа.

Между тем,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до Ли Чжэ Мён обратился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 просьбой выплатить третье пособие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местной валюте(지역화폐).

Губернатор Ли сказал: «Кёнгидо пересматривает меры по поддержке местной валюты (지역화폐)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так как существуют больш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затруднения.» Он отметил, что "ес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место наличных денег будет выплачивать в местной валюте(지역화폐) в качеств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для ожи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продукция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увеличится, что приведет к возрождению экономики Кореи."

<한글 기사 30면>

장울가 기자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포복지재단과 '가족정책 방향 포럼'

김포시(시장 정하영)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포럼이 열렸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12월 18일 '다양한 가족 등장에 따른 김포시 가족정책 방향' 김포시가족정책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김포복지재단의 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표자와 토론자만 참석한 채 유튜브 브로 생중계됐다.

김연화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겠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 김포시 다양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김포복지재단은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배로'라는 비전을 가지고 김포 복지발전을 위해 관내 사회시설과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협력연구가 김포시 복지정책 발전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가족서비스의 중추를 담당하는 센터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병우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분야 별로 5개의 연구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포럼도 그 일환"이라며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김포복지재단은 연구설계, 기관지원 등 복지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기조강연, 2부 주제 발표, 3부 지정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먼저 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가족정책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서 2부는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가 '김포시 가족정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손서희 숙명여대 교수

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복지 지원 방안'을 주제로, 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이 '미혼모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을 주제로, 손용민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장이 '장애가족 복지관 이용 가족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박영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긴급 위기가족 사례관리사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손서희 교수는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가족이 사회혼란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컸다"며 "그럼에도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돌봄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등 가족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놀랍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730여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가족복지를 주제로 한 포럼으로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송하성 기자

김포시, 온라인 식생활 교육 동영상 제작 배포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관내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교육영상은 총 2편으로 관내의 농가를 방문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개와 국내산 콩을 이용해 김포 달피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전통방식으로 된장을 만드는 모습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두부를 생산하는 관내 두부 업체를 방문해 콩을 이용한 전통식품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식생활교육사업의 공모를 통해 시군과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형 식생활 교육이 축소되고 직접 농가와 체험장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영상으로 제작됐다.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국내산 콩을 이용한 전통식품(된장, 콩)의 생산과정을 자세히 소개해 체험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다.

제작된 식생활 교육 영상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풍무도서관, 디지털배움터 '이미지 편집 툴 픽슬러'

김포시 풍무도서관은 오는 1월 8일부터 4주간 디지털 배움터 '이미지 편집 툴 픽슬러와 포토스케이프'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역량교육 경기사업단(㈜프로보)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미지 편집 툴인 픽슬러와 포토스케이프의 기본 기능을 알아보고 직접 사진을 편집해보며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지은 기자



Четвертый базовый план по повышению рождаемости в стране

한국의 저출생 위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극복될 수 있을까?

15 декабр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бъявило о "Четвертом базовом плане для пожилых граждан и по повышению рождаемост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Первый план был разработан еще в 2005 году, как ответная реакц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низкий уровень рождаемости и старение населени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ыло решено установить ежемесячную выплату пособия детям в возрасте от 0 до 23 месяцев. При этом, начиная с рождения до 11 месяцев размер выплаты составит 200 000 вон, а с 12~23 месяцев - 150 000 вон. При этом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пособие до 500 000 вон в месяц к 2025 году.

При подтверждении беременности, можно оформить 국민행복카드, которая покрывает медицинские расходы по беременности и род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азмер помощи от государства составляет 600 000 вон, однако в будущем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матпомощь до 1 000 000 вон. Кроме этого будет утверждена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после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в размере 2 000 000 во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это пособие выдается в виде ваучеров и ее размер разны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города.

Родител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отпуск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на 3 месяца с сохранением 100% выплат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не более 3 000 000 вон). Ранее семья считалась многодетной, если в семье на содержании находятся три и более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ребенка. Однако сейчас это понятие было изменено. Семья, в которой двое и более детей считается многодетной.

Все перечисленные льготы начнут применяться с 2022 года, что означает, младенцы рожденные в 2021 и родители не будут входить в программу плана. Подсчитано, что если сложить ваучер на рожденного ребенка на 2 миллиона вон и увеличение родительского отпуска, ребенку, родившийся в 2022 году,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до полных 10 миллионов вон по сравнению с ребенком, родившимся в 2021 году.

Такж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ъявило, что оно возьмется за улучшение условия жизни и завершит комплексную систему ухода за мест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чтобы пожилые люди могли комфортно жить там, где они жили. Т.е. принимаются существующие меры, такие как расширение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расширение базовых пенсий, активац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с посещением врача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20 000 социального жилья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отойдя от взгляда на людей как на рабочую силу или производительную силу. Во всем мире остро стоит проблема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лагает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сделать комфортную среду для будущих родителей.

12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2005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우선 0~23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월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11개월까지는 20만원, 12~23개월까지는 15만원입니다. 동시에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지급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임신 확인시 임신 및 출산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행복카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현재 60만원이지만 향후 100만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출생 후 2백만원의 일회성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이 수당은 바우처 형태로 발급되며 도시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부모는 임금 100%를 지급(3백만원 이하) 받으며 3개월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혜택은 2022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므로 2021년에 태어난 아기와 부모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 바우처 2백만원과 육아 휴직 증가액을 더하면 2021년생에 비해 2022년생은 1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가족이 세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경우 다자녀 가족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다자녀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정부는 다자녀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3자녀 이상은 모두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습니다. 3자녀 모두 대학등록금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중위소득 200%이하인 경우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한 노인들이 사는 곳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사회 종합 요양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 기초 연금 확대, 의사 방문으로 의료 서비스 활성화, 고령자 사회 주택 2만개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목표는 사람들을 노동력이나 생산력으로 보지 않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의 부모를 위해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 영아기 집중투자

- 임아수당: '22년도 출생아부터, '25년부터는 매월 50만원 지급
- 첫만남 지원금: 임신 시 100만원, 출산 시 200만원 신규 지급('22년)

2. 출생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 관할임 관보육: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 '25년까지 50% 달성
- 문명돌봄: 학교안팎의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한 돌봄 지속확충
- 초등교육 혁신: 놀이, 심,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학습지원 등
- 아동의 기본권 보장: 출생통보제 도입, 학대 아동 가정방문 의무화

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학년의 주거지원 보충: 청년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임차가구 금융지원 40만 가구
- 학년의 소득지원 높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확대 등
- 성·고령친화 보육: 평등관점의 성교육,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건강검진 및 종합상담 제공

4.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확대

- 육아휴직 확대: 여성, 대기업 근로자 ▶ 남성, 중소기업근로자, 특고, 예술인 등 확대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각각 최대 월 300만원
- 임원·특수·육아 필요기업은 선행지원: 성평등 경영공표제, 노동위원회 성차별 피해 구제절차 신설 등

5.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 2자녀 가구 이상 다자녀 추가지원: 다자녀 지원대상 기준 완화(3명 → 2명), 공공임대주택 넓은 평형 이주 시 우선권 부여
- 3자녀 이상은 모두 국가장학금 지원: 3자녀 이상 시 3자녀 모두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지원,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지원(중위소득 200% 이하)

6. 신중년의 품격 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확대

- 신중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계속고용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고용장려금 등 일하는 곳에서 계속고용 지원
- 인생5모작 지원: 퇴직 후 고용·창업의 기회 확산, 일자리·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 신중년취리 소득을 분배하게: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다중 노후 소득보장체계 마련, 신탁 종합재산관리 활성화 등 자선호보방안 추진

7.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 지역사회 계속기구를 통한 생활보완: 고령자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 전국 확산, 방문형 건강관리 및 의뢰서비스 활성화
- 고령친화적 거주환경조성: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등, 한국형 은퇴복지단지 및 고령자 서비스 연계주택 모형 개발
- 편안한 삶의 마무리 지원: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확대

연말연시, 김포의 다양한 가족을 지지하는 지역사회 후원 잇따라

김포아이사랑센터, 김포평화나비, 비바컴퍼니, 김포복지재단, 대한한부모협회 등

연말연시 다문화가정 및 지역사회 다양한 가정을 돕기 위한 김포 지역사회의 개인 및 단체의 후원이 김포 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잇따르고 있다.

김포아이사랑센터(조윤숙센터장)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산타원정대’ 캠페인을 통해 28가구에 선물을 지원했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된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 양말 및 영양제를 포함한 선물세트를 144명의 아이들에게 지원했다.

또 (사)김포평화나비(황순연이사장)는 연말을 앞두고 지역 내 독거여성노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쌀, 라면,

양말, 마스크 등 긴급생활지원물품 20박스를 후원하였으며 이번 배달에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김포평화나비의 회원들, 경기도의회 이기형의원,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함께했다.

비바컴퍼니에서도 겨울니트모자 800개를 후원하면서 “김포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도 함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포복지재단에서는 쌀 50포와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한 과일 36상자를 후원하였으며, 도담도담 대한한부모협회에서도 분유 78캔을 지역 내 유아들을 위해 후원했다.

후원받은 물품은 취약위기 사례관리 대상 43가정, 긴급위기(가정폭력)대상 2가정, 다문화가족사례관리대상 20가정을 비롯하여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가정, 한국어수강, 지역서포터즈 등 본 센터이용가족, 저소득 다문화가정, LH행복주택입대가정 등 약 300여명의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됐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측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따뜻한 관심으로 후원해주신 지역사회 공동체 및 여러기관에 감사드리며, 후원자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지역사회에 잘 전달해 사랑을 전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지은 기자



온라인 가족여가문화체험 "뮤지컬을 관람하며, 거실에서 캠핑!" 실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캠핑 '좋아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19일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가족여가문화체험 행사, “뮤지컬을 관람하며, 거실에서 캠핑”을 진행했다.

90가정, 320여명이 참여한 이날 가족캠핑은 여가생활이 부족한 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가족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가족 캠핑의 기회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 우울,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고 가정생활에 보다 안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사전에 가족캠핑 키트를

제공받았으며 모든 행사는 쌍방향 소통 플랫폼인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사전에 난방텐트를 설치하고 음식을 준비한 뒤 레크레이션, 산타행사, 캠핑음식나누기 등에 참여하고 뮤지컬 문화공연도 관람했다.

1부 첫 시작은 가족레크레이션 및 산타행사였다. 이상인 아이웃음극단 대표가 나서 요술풍선놀이, 퀴즈(이심전심), 가족댄스, 산타행사 등 온라인 레크레이션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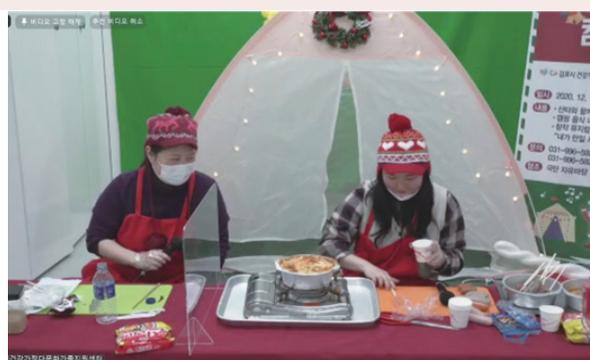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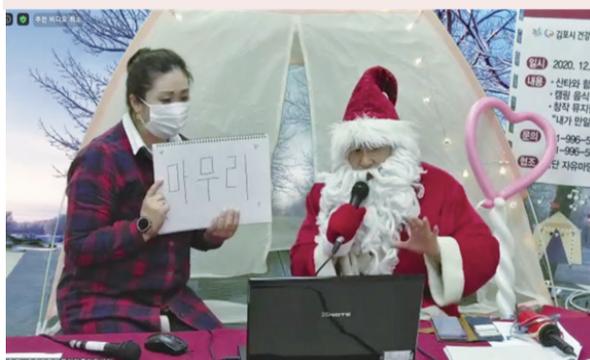
이어 가족캠핑 키트에 준비된 칠떡 떡볶이, 라면, 소세지 구이 등의 캠핑 음식 먹기에 나섰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알차게 준비된 캠핑음식에 감탄하기도 했다. 2부에서는 가족뮤지컬 ‘내가 만일 사람이라면’

을 관람했다. 사람이 되고 싶은 강아지들이 사랑과 우정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이야기로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가족캠핑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코로나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서 심심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색다른 가족캠핑에 참여해서 무척 즐거웠다”며 “집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이런 행사를 준비한 센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실 캠핑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느끼고 코로나19 위기 상황도 잘 이겨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도 알면 도움되는 과천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 기억해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입 온라인 1:1 컨설팅 진행, 과천화폐 연중 10% 할인 판매 등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과천시는 2021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월 24일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천 거주 다문화가정에도 희소식이다.

과천시는 출생 후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해 입학 전 축하의 의미를 담은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등록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초등과정 입학 아동이다. 입학생의 보호자에게는 과천시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초등과정 입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2021년 1월 20일부터 과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학생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입학축하

금은 신청 후 익월 말까지 지급된다. 입학 전 사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입학축하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취학 통지서를 받은 입학예정자들이 신속히 입학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가정에, 미리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라며 “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2-2150-3914

대입 온라인 1:1 컨설팅 진행

과천시는 2021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 대비해 1:1 컨설팅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시는 2021년도 정시 입시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효과적인 입시전략을 알려주기 위해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됐다.

컨설팅은 관내 고3 수험생, 재수생 및 학부모, 과천 관내 직장 종사자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와 입시전문가들이 1:1로 입시에 대한 조언을 주게 된다. 컨설팅 기간은 2021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각 가정에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컨설팅 접수는 선착순 80명까지이며, 과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gc1318.or.kr) 배너창에서 할 수 있다.

과천시는 수험생들이 학교와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맞춤형 진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9월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사와 입시전문가를 초빙하여 1:1 수시입시컨설팅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해, 수험

생과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생 이외에도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연중 운영되는 상시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02-2150-3916

과천화폐 연중 10% 할인 판매

과천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2021년도에는 지역화폐 「과천토리」를 연중 상시 10% 할인판매 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과천시는 2020년도에도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과천화폐 확대발행을 추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할인판매는 1인 월 40만원 구매 한도로 하며, 구입처는 지류형 과천화폐는 관내 농협 9개소, 카드형 과천화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구입 및 충전이 가능하다. 단 한도 초과 구입 시는 할인혜택은 없으며 법인, 단체,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경우 할인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천화폐 「과천토리」는 과천화폐 가맹점 1,200여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3677-2449

김종천 시장, 방역수칙 준수 호소

김종천 과천시장은 1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며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종천 시장은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평균 확진자가 774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가까워졌고, 과천지역에서도 4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직접 시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과천지역 확진자 중 가족 간 감염이 26%, 확진자 접촉 등 외부 요인이 74%”라며 “방역 당국의 노력과 조치만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며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송하성 기자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실

- 상담대상**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 상담내용**
 - 상담 : 부부갈등, 이혼문제, 가족문제, 자녀양육, 성격문제, 부모-자녀관계, 진로학습문제 등 상담
 - 놀이치료: 심리적 문제, 유치원 및 학교 부적응, 부모자녀 관계 등 어려움을 겪는 유아~아동 놀이치료
 - 심리검사: 인성, 성격, 학습, 진로 등 다양한 심리검사, 종합심리검사
- 상담방법**
 - 상담전문가와와의 1:1 개인 및 가족상담, 심리검사
 - 놀이치료전문가와와의 1:1 놀이치료, 부모상담, 심리검사
- 접수 및 문의**
 - 센터 전화접수 후 상담실시(연중수시)
 - 가족상담팀 : ☎ 02-503-0070

내 아이 돌봄을 책임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미 선생님이 찾아가는 1:1 돌봄 서비스입니다.

- 대상** 영아 종일제 : 만 3개월~만 36개월
시간제/종합형 : 만 3개월~만 12세
- 내용** 돌봄 및 놀이 활동, 준비된 급,간식 제공 등 (영아는 이유식, 목욕, 젖병소독 등 제공)
-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회원 가입 후 아이돌봄미 연계(정부지원대상자는 등사무소 문의,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참조)
- 문의** 아이돌봄팀 02-507-0073 / 02-503-0041

다문화도서 www.bookhg.com 국내최대 매장 확보

세계 각지의 다양한 서적을 만나보세요!

- 도서납품(외국도서, 국내도서)
- 교과서납품(전 세계국가, 국내)
- 다문화전자책 납품(국내유일)
- 비도서(OVD, CD, 잡지) 납품(전세계)
- MARC DATA 구축, 장비, 태깅, 배가작업

한결문고

경기 부천시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2동 403호
전화: 032-325-4755 팩스: 032-325-4772
E-mail: hcpe6401@hanmail.net Website: www.bookhg.com



'지역사회에 다양성 존중하는 문화 중요' 안양시, 다문화홍보대사 '이레사 페레라' 위촉

최대호 안양시장은 14일 안양시민 이레사 페레라씨(여성 45세)에게 안양시다문화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연주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도 참석했다.

이레사 씨는 스리랑카에서 출생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학 졸업 후 2002년 의류업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인연이 돼 한국인과 혼인, 2009년 한국 국적 취득과 함께 안양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KBS, EBS, 아리랑TV 등 공중과 방송에도 다수 출연해 '안양시민 이레사'로 통하기도 한다. 특히 2010년부터 이주여성 자조단체인 '톡투미' 대표를 맡아 온-오프라인 회원 4000여명이 넘는 이주민 단체로 성장시켰다. 2014년 안양2동 주민자치위원

을 역임한 적도 있어 지역 사정에도 밝다.

이레사 씨는 앞으로 2년간 다문화홍보대사로서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며, 안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교류 역할을 하는데 적극 나설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 내리는데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관내 거주 외국인은 2019년 11월 기준 안양인구의 2.2% 수준인 1만4617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매년 800명~900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 김장 행사, 지역 대학과 함께해요!

안양전가다가, 대림대학교와 함께하는 김장 행사 진행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7일 대림대학교와 함께하는 김장김치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입국 5년 미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김치 담그기 체험을 통해 한국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김치 담그는 방법을 익혀 가정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결혼이주여성만 대림대학교 율곡관 7층 실습조리실에 참석했으며 다

수 이주여성은 줌으로 비대면 요리에 참여했다.

당일 오전 10시 대림대학교에 모인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 3명은 약 30분간 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후 2시간 동안 김장 체험에 나섰다.

이날 김장 행사는 줌으로 실시간 방송돼 17명의 외국인주민이 집에서 김장 행사에 참여했다.

이를 위해 센터 측은 사전에 김장 키트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김장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은 “김장이 늘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우리 집에서 직접 김장을 해 가족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법인인 대림대학교가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을 위해 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것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의 올바른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다.

송하성 기자

☑ 사업내용: • 온라인 수다클럽 (놀이전문가와 짐콕놀이, 도시락 수다방)
* 상담 프로그램 (심리검사 및 영육코칭 등)

☑ 신청방법: 경기도 내 15개 기관을 통한 신청 (전화)

☑ 신청기간: 2020년 12월 22일 ~ 2021년 1월 15일 ※ 선착순 마감 ※

☑ 신청대상: 자녀를 양육중인 '경기도민'

- ▶ 한 가정 당 한 기관에만 참여 가능
- ▶ 거주지 해당 지역에 우선 신청
- ▶ 그 외 지역은 근처 기관에 신청 가능

☑ 위 일정과 내용은 사업수행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문의사항: 031-220-3992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가족교육사업팀)

☑ 사업수행기관

사업	지역	기관명	연락처
짐콕놀이 & 도시락 수다방	가평군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82-9902
	고양시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969-4041
	안양시	안양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677-7191
	평택시	경기남부평택교육연구소	031-653-5053
짐콕놀이 & 도시락 수다방 & 상담 프로그램	파주시	파주YMCA	031-945-5998
	과천시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02-503-0070
	광명시	광명크로싱학제/제2외배출순화연구원	070-8286-8650
	구리시	구리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56-4139
짐콕놀이 & 도시락 수다방 & 상담 프로그램	남양주시	남양주 교육포럼	010-4744-5135
	동두천시	동두천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863-3801
	성남시	새남야동상담교육센터	031-758-9808
	수원시	가족사랑교육원	070-4407-1080
짐콕놀이 & 도시락 수다방 & 상담 프로그램	안양시	안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양시	안양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8045-5705
	용인시	우리들의 정서상담센터	0507-1315-5193

☑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가까운 기관으로 문의·신청 가능합니다!
긴 시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를 함께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가사스트레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세요!

대상: 중도입국청소년 (12세~19세)

일정: 4월15일~10월30일

내용: 한국어교육, 진로교육, 학과공부

접수: 전화문의 031-8045-6394 (상시접수)

안양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Những thay đổi trong chế độ giáo dục của Hàn quốc năm 2021 mà người ngoại quốc cần biết

고교 무상 교육 등 2021년 한국의 교육제도 변화에 대해

Vào năm 2021 sẽ có vài thay đổi liên quan đến chế độ giáo dục của Hàn quốc. Những công dân nước ngoài cũng nên tìm hiểu về những thay đổi này

◆ Thực thi chế độ giáo dục không học phí đối với cấp học trung học phổ thông

Chế độ giáo dục miễn phí cho học sinh cấp 3 năm 2.3 đang được bộ giáo dục thực thi đến sang năm 2021 thì sẽ được áp dụng cho toàn bộ khối cấp 3 các năm 1,2,3. Các chi phí như tiền nhập học, tiền học phí, tiền hỗ trợ chi phí dạy học, tiền sách ..vv.. tính cho mỗi học sinh sẽ khoảng tầm 1 triệu 600 nghìn won và chi phí này sẽ hoàn toàn được miễn giảm. Tuy nhiên, tiền nhập học, tiền học phí đối với những trường tư lập thì sẽ không được áp dụng.

◆ Tăng cường hóa mức bảo đảm lương ngành giáo dục

Số tiền hỗ trợ lương giáo dục(tiền hỗ trợ hoạt động giáo dục ..vv..) dành cho đối tượng là các học sinh ở các hộ gia đình có thu nhập thấp sẽ được tăng. Các

chi phí như tiền sách, chi phí dụng cụ học tập sẽ được gộp thành chi phí hỗ trợ hoạt động giáo dục và trợ cấp theo mức như sau học sinh tiểu học 286,000 ngàn won, học sinh trung học là 376,000 ngàn won, học sinh trung học phổ thông là 448,000 ngàn won, tăng trung bình 24% so với năm ngoái.

◆ Mở rộng hỗ trợ hoạt động chăm sóc trẻ nhỏ

Mức hỗ trợ của chính phủ để hỗ trợ gánh nặng chi phí của những gia đình sử dụng dịch vụ chăm sóc trẻ sẽ được mở rộng. Trong thời gian qua, những gia đình sử dụng dịch vụ chăm sóc trẻ theo thời gian thì mức hỗ trợ nhận được hằng năm từ chính phủ là 720 tiếng trên 1 năm tuy nhiên sẽ được tăng số giờ hỗ trợ lên 840 tiếng / năm vào năm sau. Tiền hỗ trợ của chính phủ dành cho những gia đình sử dụng dịch vụ chăm sóc trẻ theo tiêu chuẩn từng hộ gia đình cũng sẽ được thay đổi cụ thể như sau đối với gia đình có trẻ sơ sinh (mức thu nhập trung bình dưới 75%) thì mức hỗ trợ sẽ tăng từ 80→85%, hộ gia đình sử dụng hình thức làm theo thời gian (mức thu nhập trung bình dưới 120%)

thì mức hỗ trợ thay đổi từ 55→60%, như vậy từng loại hộ gia đình sẽ được tăng mức hỗ trợ 5%. Bên cạnh đó những hộ gia đình có thu nhập thấp (thu nhập trung bình dưới 75%) cũng sẽ nhận được mức hỗ trợ tốt hơn, những gia đình chỉ có 1 bố hoặc mẹ, hoặc gia đình có bố (mẹ) là người khuyết tật hoặc gia đình có trẻ khuyết tật thì sẽ nhận được mức hỗ trợ tối đa lên đến 90%

◆ Tăng cường giáo viên hỗ trợ. tăng ca

Giảm gánh nặng công việc cho giáo viên và tăng mức thời gian nghỉ ..vv.. là những thay đổi liên quan đến cải tiến điều kiện làm việc của giáo viên nuôi dưỡng. Số lượng nhân viên hỗ trợ hiện tại là 28,000 người, giáo viên nuôi dưỡng là 30,000 người so với năm ngoái tăng khoảng 6000 người. Theo đó số lượng giaosi viên ở nhiều nhà trẻ sẽ được bổ sung đảm bảo trẻ em có thể nhận được nền giáo dục tốt hơn thông qua đó cũng giúp những bậc phụ huynh người ngoại quốc có thể cảm thấy yên tâm hơn.

<한글 기사 1면>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17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지속, 외국인주민도 적극 호응해야"

이재명 지사, 보건방역과 동시에 경제방역 대책으로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강조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

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한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에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해당 조치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외국인주민들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맞춰 모든 만남을 취소하고 숙소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당국은 이번 명령을 어길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돼 고발 조치 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치료비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안양시청 031-8045-7000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8045-5705 안양여성전화 031-468-1366 안양일자리센터 031-8045-210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정 자녀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소 '불발간 사춘기'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기 청소년 긍정적 자존감 형성 노력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위기 가정을 상담하면서 부모상담과 함께 자녀 심리정서 서비스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체감했다.

이에 센터 측은 지난 12월 총 5회기에 걸쳐 사춘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발간사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집단 활동을 통해 부정적 사춘기문화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소통 및 유대감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

다. 위기 다문화가정 자녀(청소년) 4~6학년 16명은 12월 한달간 ▲키트박스를 전달하고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활동과 ▲휴대폰 과몰입 자가진단 척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올바른 휴대폰사용을 유도하는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교육 등을 진행했다.

또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예방법 및 대처방안을 습득하는 청소년 성인지 교육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직접 만들어 보며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마음힐링 원예활동 그리고 ▲다양

한 키트 만들기를 하고 사진을 촬영해 인증하는 Drop the Kit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당초 2020년에는 청소년 무박캠프, 1박 2일 캠프 등 회기수를 확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집중했다”며 “이를 통해 자기이해를 통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타인 이해를 통한 상호작용 향상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

송하성 기자

화성시 공공도서관, 26일부터 축소 운영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관내 공공도서관이 정부의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축소 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축소 운영이 적용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15개관, 공립작은도서관 6개관이다.

도서관 종합자료실은 평일 9시부터 20시,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린이 자료실과 장난감도서관은 오후 6시까지만 대출·반납이 가능하다. 전자정보실과 열람실, 휴게시설은 체류 및 열람, 이용 등이 모두 금지된다. 또한 일 2회,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2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방역활동으로 도서관 모든 구역에서 체류가 불가하다.

한편 화성시립도서관은 12월 29일 오전 9시부터 리뉴얼된 홈페이지로 세련된 디자인에 강화된 개인정보 보안시스템과 비대면 회원가입 서비스, 도서검색엔진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안내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월~12월(매주 월~금) 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장소 유엔아이센터 4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화성시 관내 다문화가족

비용 무료

이용방법 전화 문의 후 방문 및 예약

지원내용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 입국초기 상담, 정보제공, 교육 및 프로그램 안내
- ▶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번역
- ▶ 보육 및 교육기관 관련 통번역
- ▶ 행정·사법기관, 병원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등
- ▶ 친정 부모 초청 필요 서류 안내
- ▶ 행정·사법기관 번역
- ▶ 센터 내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시 업무와 관련된 통·번역

* 모든 서류는 공증 되지 않습니다

☎ 031-267-8769 Fax. 031-267-8791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유엔아이센터 4층

여말가족부 지원 경기도 화성시 위탁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Hwaseo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베트남어

Hỗ trợ thông phiên dịch cho người đi trú kết hôn gặp khó khăn trong giao tiếp.

- ▶ Tư vấn những vấn đề cần thiết khi lần đầu nhập cảnh, cung cấp thông tin, hướng dẫn chương trình, giáo dục
- ▶ Hỗ trợ thông phiên dịch về vấn đề ngôn ngữ, trường hợp khẩn cấp giữa các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 ▶ Hỗ trợ thông phiên dịch liên quan đến việc sử dụng cơ quan giáo dục, chăm sóc trẻ em
- ▶ Đồng hành thông dịch tại bệnh viện, tòa án, cơ quan hành chính trong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 ▶ Hướng dẫn giấy tờ đăng ký mới ba mẹ, anh(chị) em ...
- ▶ Dịch giấy tờ hành chính, những cơ quan tư pháp
- ▶ Hỗ trợ thông phiên dịch liên quan đến giáo dục và các chương trình của trung tâm

* Tất cả mọi giấy tờ biên dịch trung tâm sẽ không công chứng

중국어

语言沟通困难的结婚移民者提供通·翻译服务

- ▶ 初期入国咨询, 信息提供, 教育及活动介绍.
- ▶ 家人间语言沟通支援及危殆对策通·翻译.
- ▶ 保育及教育机关有关的通·翻译.
- ▶ 行政·司法机关, 医院就诊所需要的同行翻译等.
- ▶ 邀请亲家父母所需材料介绍(需要1天)
- ▶ 行政·司法机关材料翻译(需要14天)
- ▶ 中心内部教育或活动进行时与业务有关的通·翻译

영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 Initial consultation, provision of information, training and programs.
- ▶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for family communication and crisis response.
- ▶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related to child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 ▶ Dispatching interpreters for administrative, judicial, and hospital services.
- ▶ Documents required for inviting parents. (1 day required)
- ▶ Administration, Justice Translation. (takes 14 days)
- ▶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related to the work during the training and program in the center.

Проект поддержки "Бесплатный транспорт" в г.Хвасон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молодежи 외국인주민 자녀도 이용할 수 있는 화성시 무상교통 '대박', 대중교통 무료 이용!



В г.Хвасон запущен проект бесплатного проезда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в черте города для детей 7-18лет, в том числе для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Что это за проект?

В г.Хвасон проводится эколог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в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ри которой жители Хвасона пользуются автобусами бесплатно. Это политика по сокращению выбросов углерода в транспортном секторе, который считается основным виновником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и новаторск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политика, осуществляемая крупными странами по всему миру. В г.Хвасон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дели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слуги "Бесплат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3 этапа, первый из которых для детей 7-18 лет уже запущен с ноября 2020 года. Второй этап-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в возрасте до 23 лет и для пожилых старше 65 лет в 2021г.и для всех горожан в 2022 г находятся на рассмотрении.

Дети 7-18 лет, включая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роживающие в городе Хвасон (на основании регистрации резидента)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Бесплатный транспорт".

Транспорт: Обычные городские и деревенские автобусы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идячих мест, городских районов, пригородов и автобусов)

※ Инвалиды,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поддержку отдель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ри Службе поддержки город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данной услугой не мог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им необходимо выбрать между услугами «бесплатный транспорт» и «служба поддержки мобильности».

▷Способ регистрации и получения проездной карточки на бесплатный проезд:

1. Регистрация карточки.

Регистрация производится онлайн на сайте

www.savebus.hscity.go.kr , на имя ребенка, банковские реквизиты тоже должны быть на имя ребенка.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можно выбрать из 2 вариантов: онлайн-карточка на телефон и чековая карта.

2. Получение карточки и регистрация номера на сайте www.savebus.hscity.go.kr. В течение 10 дней Вы получаете карточку и перед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ее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на сайте: ввести номер карточки на личной странице ребенка.

▷Как пользоваться карточкой?

Загрузить на карточку необходимую сумму в пениджмагах (CU, gs25, seveneleven и тп) .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автобусе как обычную проездную карточку: при посадке на автобус и при высадке прикладывать карточку к монитору электронного счетчика.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Транспортные расходы буду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после 20-го числа следующего месяца в размере, использованном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месяца.

Первоначальная оплата за ноябрь планируется в период 24~30декабря (При оплате будет отправлено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ани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максимальный годовой предел бесплат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составит:

(При превышении максимального годового предела оплачивается только данная сумма)

В 2020году:

-детям 7-12лет 87,600 вон = 730 вон×3 раза×20 дней× 2месяца (43,800 вон в месяц)

-детям 13-18 лет: 181,800 вон = 1,010 вон×3 раза ×30 дней×2месяца (90,900 вон в месяц)

-В 2021году

-для детей 7-12лет 525,600 вон = 730 вон × 3 раза × 20 дней × 12месяцев (43,800 вон в месяц)

-для детей 13-18лет 1,090,800 вон = 1,010 вон × 3 раза × 30 дней × 12 месяцев (90,900 вон в месяц)

▷Внимание

Пользоваться карточкой может только заявитель, передавать или "одалживать" проездную карточку другим лицам нельзя.

Город Хвасон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 в 1,4 раза больше Сеула, растянут от Ки

тайского моря к центру Кёнгидо, поэтому иногда чтобы доехать с одного конца города в другой,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сечь другие города Кёнгидо. Я считаю, как было бы здорово, если бы и в других городах Кёнгидо со временем появились проекты, подобные проекту "Бесплатный транспорт"в г.Хвасон, для поддержки слабофинансовы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дети, подростки, пожилые.

Будьте в курсе региональ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вместе с репорте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по Кёнгидо, Еленой Ким.

Хвасон является иностранными детьми, включая 7~18 летних подростков, в качестве对象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Хвасон бесплатный транспорт?

Хвасонские жители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автобусы, чтобы снизить выбросы углерода в транспортном секторе, который считается основным виновником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и новаторск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политика, осуществляемая крупными странами по всему миру. В г.Хвасон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дели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слуги "Бесплат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3 этапа, первый из которых для детей 7-18 лет уже запущен с ноября 2020 года. Второй этап-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в возрасте до 23 лет и для пожилых старше 65 лет в 2021г.и для всех горожан в 2022 г находятся на рассмотрении.

Хвасонские жители, включая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роживающие в городе Хвасон (на основании регистрации резидента)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Бесплатный транспорт".

Транспорт: Обычные городские и деревенские автобусы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идячих мест, городских районов, пригородов и автобусов)

▷ Бесплатный транспортный билет и выдача

1. Карточка

Заяв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онлайн на www.savebus.hscity.go.kr. Заяв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именем ребен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ребенке должна быть введена. Заяв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именем ребен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ребенке должна быть введена. Заяв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именем ребен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ребенке должна быть введена.

2. Веб-сайт www.savebus.hscity.go.kr. Заяв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именем ребен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ребенке должна быть введена. Заяв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именем ребен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ребенке должна быть введена. Заяв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именем ребен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ребенке должна быть введена.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韩国的新年与中国的新年 한국의 새해와 중국의 새해에 대해

음력설 중시하는 두 나라 모두 신정은 하루만 휴식 ... 건강하고 평안한 새해 되기를



阳历的1月1号是新年,在中国又叫元旦,中国和韩国都过这个节日,那么再过几天就是新年了,我们一起来看一下,韩国和中国都是怎么过元旦的吧!

在韩国,以前1月1日就是新年,法定假期是连休三天的,但是由于还有阴历新年,所以近期也和中国一样只放假一天。

不过韩国人还是比较重视这一天的。元旦这一天,家族的子子孙孙都会聚在一起给祖先祭祀,祈求一年的平安和健康。祭祀的桌子上会摆放很多的食物,比如水果,肉,鱼,饼,菜等。

礼拜完祖先,晚辈们一般会穿上韩服,给长辈们磕头。我想这也是为了祈福还有感谢吧。晚辈们磕完头,祝长辈们新年快乐。那么长辈们会给晚辈压岁钱,还会说一些祝福的话。

接下来就是大家一起吃团圆饭的时间了,韩国新年的第一天早上,一定要吃年糕

汤,因为年糕有黏住财富,驱除恶势力的寓意,年糕做成汤吃下去也表示了又长了一岁的意思。

除了这些以外,韩国人还会编织竹子香包挂在门外,还有大家会聚在一起玩扔木条游戏等。

那么接下来我们看看中国人的元旦是怎么过的,首先中国人更重视阴历的新年,所以阳历的新年只放假一天,那么我们可以利用这一天好好休息,或者出去游玩。中国元旦的代表性食物是饺子。饺子寓意更岁交子,并且也有把所有财富都包起来的意思。

再一个必不可少的元旦文化就是元旦晚会。各个单位,学校,组织会举行一些小型的晚会,准备一些节目来庆祝新的一年开始,媒体,尤其是电视台也会播放隆重的元旦晚会,中国人喜欢全家聚在一起边包饺子边看元旦晚会。再一个就是吃饭前会放鞭炮,放鞭炮的意思有两个,一个是驱赶恶势力,第二个是欢迎财神来我家。

2020年是一个多灾多难的一年,希望过完元旦,所有的病菌都被赶走,迎来一个健康,平安的新年!

양력의 1월 1일은 새해, 중국에서는 '원단'이라고도 부른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이 명절을 보낸다. 이제 새해인데, 한국과 중국 모두 신정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한국에서는 이전에는 1월 1일이 새해였고 법정 휴가는 3일 연휴였다고 한다. 하지만 음력설도 있어서 요즘은 중국처럼 하루만 쉰다.

그래도 한국인은 이날을 중시한다. 설날에는 집안의 자손들이 모여 한 해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며 조상님께 제사를 지낸다. 차레상에는 과일, 고기, 생선, 떡, 반찬 등 먹을거리가 많이 차려진다.

조상 차례가 끝나면 아랫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웃어른에게 절을 한다. 이를 세배라고 한다. 세배는 복을 받고 감사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손아랫사람들이 모두 절하고 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시고 덕담을 한다.

이제 모두 함께 단란하게 앉아 음식을 먹을 시간이다. 한국은 새해 첫날 아침에 떡국을 꼭 먹는데, 재물이 붙으라는 의미를 뜻하고 또 액운을 몰아낸다는 의미도 있다. 떡국을 먹고나면 나이도 한 살 더 먹었다는 뜻을 가진다. 이 외에도 한국은 대나무로 향주머니를 짜서 문 밖에 매달기도 하고, 여럿이 같이 모여서 윷놀이도

한다. 그럼 이제 중국인의 설날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자. 우선 중국인들은 음력 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정(원단)은 하루만 쉰다. 이날을 이용해 폭 쉬거나 놀러갈 수도 있다. 중국 설날의 대표 음식은 만두다. 만두는 한살 더 나이를 먹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부를 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신정 문화가 바로 신정 이브닝 파티다. 각 부서, 학교 등 기관에서는 작은 파티를 열고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새해의 시작을 축하한다. 언론 특히, TV에서 화려한 신정 이브닝 쇼를 방영하는데, 중국인들은 온 가족이 모여 만두를 빚으며 설날 이브닝 쇼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또 하나는 밥 먹기 전에 폭죽을 터뜨리는 문화인데,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액운을 몰아낸다는 뜻이고, 둘째는 재물신(財神)이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뜻이다.

2020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되었다. 신정을 마치고 모든 병균을 내쫓아 건강하고 평안한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원안 경기외국인SNS기자단

口罩,如果不正确扔掉,就会成为威胁动物的武器! 마스크 올바른 사용에 대해

在污染少的地方短暂使用的话可以再次使用...使用后放入计量袋里 사용후엔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因新冠病毒而成为外出时必需品的口罩。但是随着一次性用品使用量的剧增,也有人提出了对环境污染的担忧。口罩怎么进行再次使用比较好?下面介绍一下口罩如何更好的使用和怎样扔掉的方法。

在污染担忧较少的地方,短暂戴上的口罩仅限于同一个人再次使用

当然大部分的口罩都是一次性使用,但是口罩的再使用根据情况和场所可能有所不同。如果在污染可能性小的地方临时使用,仅限于同一人使用。

口罩要想再次使用,必须在通风良好的地方进行干燥。如果用吹风机干燥或消毒酒精或洗涤,就不能再使用。戴口罩或摘下来保管时,最好使用绳子,在拉链袋里保管。

用完了的口罩一定要扔到计量袋里

随着口罩使用量的增加,垃圾的数量也在增加。为了保护环境,应该怎么扔掉戴过的口罩呢?

首先,为了防止口罩表面的污染物质粘到手上,要用手抓住耳朵上的带子小心地摘掉。扔掉口罩的时候,最

好把耳环剪掉。如果无法剪掉耳环,就要将口罩横竖向内折起来,用绳子卷两下。

最重要的是,无论副织布、棉等材质如何,都要扔到计量袋里。剪下口罩耳环也是造成野生动物受害的原因,如果正确扔在计量袋里,就没有必要担心。

一定要记住使用过一次的口罩随意丢弃不仅会污染环境,还会给野生动物带来危害,使其他人暴露在感染危险之中。

<한글 기사 36면>

京畿道厅资料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접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화성시는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학령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정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특성에 따른 학습, 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화성시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도시권인 동부에 비해 서북부권은 상대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열약하다.

이에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동기를 높이고자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동아리와 3년 연속으로 1:1 멘토-멘티를 매칭하고 학습지도 및 심리·정서 지원을 실시했다.

11~12월에 진행된 '2020 자녀멘토링 봄봄봄' 사업은 화성시 관내 위기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 멘티 9명과 대학생 봉사자 멘토 9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유엔아이센터 강의장 및 멘티 가정과 또한 온라인으로 만나 학습 외에도 보드게임 등 놀이를 함께 하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대상자들의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것에 반해 많은

인원이 모이는 대면 서비스 진행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센터 측은 사전 OT와 멘토링 첫 회기를 2회로 나누어 소그룹으로 진행하고 가정 방문 또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와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빠르고 의욕적인 학습 동기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센터 내 사례관리대상 가족의 자녀 중 학습 지연을 보이는 학령기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멘티와 멘토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행정안전부가 2019년 11월에 발표한 2018년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4,022명으로 이중 취학자녀는 1,119명이며 전년도에 비해 560명 증가했다. 다년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해마다 평균 400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성시의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 수는 3위다.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부터 통합 운영된다.

송하성 기자

찾아가는 코로나 이동검사소 운영 외국인주민도 필요시 검사받아야

화성시는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산업단지·공장밀집지역 근로자 및 선별진료소까지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위해 '찾아가는 코로나 이동검사소'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코로나 이동검사소'는 화성시와 관내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화성디에스병원과 원광종합병원이 협력해 29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찾아가는 코로나 이동검사소'의 검사대상은 화성시 산업단지 내 9개소 1270개사와 산업단지 외 980개사 등 관내 모든 기업체(1만1070개사, 20만8918명)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남부권 지역 주민(13개 읍면동) 23만5499명도 포함된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빈 공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이동검사소 설치하는 물론 검사를 희망하는 기업체에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찾아가는 코로나 이동검사소 운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해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정신·요양병원 및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임시선별검사소 4곳을 추가로 설치해 증상 유무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화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혜택을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김지연 기자

2021外国居民需要了解韩国教育制度的变化 한국의 교육제도 변화에 대해

2021년, 한국의 교육제도가 일어날 몇 가지 변화가 있다. 외국居民需要了解的韩国教育制度的变化如下。

◆全面实施高中免费教育

教育部将于2021年起原以高二、高三学生为对象扩大为高一、二、三年级学生为对象,进行全面实施高中免费教育。入学金、学费、学校运营支援费、教科书费等高中生每人每年将减轻约160万韩元的学费负担。但入学金和学费由校长决定的私立学校除外。

◆强化教育薪金保障水平

以低收入层家庭学生为对象提供的教育津贴(教育

活动支援费等)的支援金额也将被上调。将现有的副教材费、学习用品费综合到教育活动支援费中进行支援,小学生28.6万韩元和初中生37.6万韩元和高中生44.8万韩元,比前一年平均上调24%。

◆加大照料宝贝服务支持

为了解申请照料宝贝服务家庭的费用负担,政府将扩大支援。一直以来,利用时间制服务的家庭得到的政府支援时间限制在每年720小时以内,但今后将得到每年840小时以内的政府支援。对服务费用的政府支援比率也将扩大到“婴幼儿全日甲型”(中等收入在75%以下)的使用家庭为从80%扩大到85%，“时间制乙型”(中等

收入在120%以下)的使用家庭为从55%扩大到60%,将各自减少5%的个人负担。另外,政府还加强了对低收入(中等收入75%以下)弱势群体的支援,因此,单亲家庭、残疾父母、残疾儿童家庭的服务费用最高可以得到90%的支援。〈한글 기사 1면〉

◆辅助、延长保育教师的扩大配置

为减轻保育教师的工作负担和保障休息时间等改善保育教师工作条件的补助和延长保育教师的配置。其中,辅助教师2.8万人,延长保育教师3万人等,将比前一年增加6000人。如果将支援人力大幅扩大部署到多数儿童之家,儿童将得到更好的保育服务,因此,外国居民父母也将变得更加轻松。

왕그나 기자